



유네스코 청년원을 기억하며

매곡리 868-1, 젊음의 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청년원을 기억하며

매곡리 868-1, 젊음의 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간사 5

리뷰

유네스코 청년원을 9
기억하며

전성민

Part I.

젊음의 집, 그 터를 닦다 30

청년원 건립추진 33

청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 35

Part II.

미래를 내다 보며 60

청년의 꿈을 구현하다

미래를 열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다 61

조국순례의 대행진을 열다 74

세계와 만나 함께 교류하다 86

청년 연구와 청년 정보망의 초석을 닦다 105

세계시민을 키우다 114

인터뷰

내가 기억하는 134
유네스코 청년원

이진원 청년원, 내 젊은 시절의 135
근원이 있는 곳

안형균 차범근 부자도 다녀간 142
청년들의 메카

김승윤 청년들의 마음에 뿌린 리더십, 146
봉사, 상호교류의 씨앗

손춘석 내 청춘을 바친 곳, 153
영원한 역사가 되길

이승환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158
세계를 향한 젊음의 열정

한미현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었기에 .. 166
더욱 아름다웠던 보금자리

전명철 내 삶과 추억이 깃든 곳, 171
아름다운 작별이 되길

윤경배 청년원에 뿌리내린 174
한국 청년들의 정신

부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대 사무총장 ... 178

유네스코 청년원 역대 원장 179

유네스코 청년원 주요연혁 180

책자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187

사진으로 본 청년원 230

유네스코 청년원 관계 자료목록 300

발간사

유네스코 청년원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청년 연수시설이 없던 시기이던 197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개원하여 청년지도자 양성과 청년 국제교류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청년원을 거쳐간 수많은 청년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과 밑거름이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청년 정책과 관련 인프라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시대적 소임을 다한 유네스코 청년원은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청년원을 사랑해주시고 청년원을 추억하는 모든 분들과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이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의 탄생은 한국 청년활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한 전국의 유네스코학생회 청년들에게 청년원은 청년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물을 담은 학술지 ‘청년연구’를 1978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발간해 청소년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선도한 바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청년원이 개설한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청소년 분야 종사자만 6,7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을 18년 간 흔들림 없이 수행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연수과정 참가자 구성 또한 엄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종교와 성별, 지역, 장애 여부를 구분 짓지 않고 매우 다양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국 청소년활동의 지도자로 우리나라 청소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청년원은 국제 청년교류의 장으로, 청년원의 개관은 국제적으로도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제13차 유네스코총회의 권고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충실히 이행한 결과 이룩한 성과였다는 점입니다. 13차 총회는 회원국에 청년활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을 확충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행하였습니다. 청년원이 들어설 터전을 일구고 고르는 터 닦기 작업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아프리카 말리 등 10개국에서 청년 야영 봉사활동에 참가하러 한국에 온 70명의 외국 청년들과 국내 50개교에서 모인 대학생 85명 등 155명의 청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구슬땀을 흘려 가며 일손을 보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는 청년원이 유네스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역사(大役事)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청년원은 국제 청년들이 만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제 문제를 청년들의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다양한 실험과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1950년 6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후 32년만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 한국을 찾은 세네갈 출신의 아마두 마타르 음보(Amadou Mahtar M'Bow) 사무총장도 청년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 보았을 정도로 청년원은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990년 청년원은 시대를 한 발 앞서 한국청년해외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s)을 창단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봉사단사업을 태동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 이천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8년 이천 영어마을로 더 친숙한 지구촌평화마을(Global Peace Village)을 설립한 결과 2022년까지 이천 소재 초등학교들에게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즐거운 교실이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교류한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이천 매곡리 70,000㎡ 부지에 자리한 연수원은 청소년 연수를 위한 숙박시설, 강의실, 세미나실, 체육시설, 식당 및 야외 캠프장, 삼림욕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또 지구 반대편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청소년의 미래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느라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혔던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청년원은 실내와 야외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이면 푸른 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잠시 짬

을 내 구기 종목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응원 소리와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원은 세계 청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 고 세계에 전파하는 ‘핫 플레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청년들은 청년원 야외 마당에 둘러 앉아 우리 전통 북을 두드리고 장구와 소고를 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 청소년들은 오늘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를 가장 먼저 배우고 경험한 청소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설레 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소풍 나오던 장소였던 이곳은, 이천 매곡리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억자료집의 발간은 유네스코 청년원의 기억을 정리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50여 년 간 유네스코현장의 이념을 구현한 실험실이었던 청년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성찰하고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청소년 활동의 미래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 기억 자료집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 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세계의 더 많은 청년들이 서로 연대해 유네스코현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이 책이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리뷰

유네스코 청년원을 기억하며

전성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청년원 지도교수, 청년원 연수과장,
협력사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 사업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을까? 이유는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저 없이 청년원 시기를 꼽을 것이다. 이야기는 청년원의 일생을 변곡점 별로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부여해 본다.

청년원 탄생기

청년원의 탄생은 이미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위)와, 유엔 시스템 그리고 대학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새로운 대안과 활로를 찾고 있었다.

1963년 제정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즈음하여 한위의 일부 구성원들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문서 활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위는 창립 초기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무부가 주관하여 1954년부터 1956년까지 4회에 걸쳐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수복지구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존재감을 높였던 경험이 있던 터였다. 이러한 주장은 196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청소년문제협의회’에 한위 직원들이 참석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진다.

물론 이러한 주장과 도전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한위 내부의 이해부족과 마찰이 가장 커다란 애로였다’고 당시 실무자들은 회고한다. 이러한 논쟁은 청년원이 존재했던 내내 이어졌다. 즉,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서의 역할 수행과 적극적인 유네스코활동의 전개와 관련된 한위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한편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른 바 영국의 ‘성난 젊은이들(angry young men)’, 미국의 ‘패배의 세대(beat generation)’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발칙한 혁명’에 주목하게 된다. 드디어 1960년 제15차 유엔총회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 청년들의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유네스코는 1962년 제12차 총회에서 ‘국제 청소년전문가 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Youth)’ 개최를 의결하고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1964년 국제 청소년전문가 회의를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제13차 유네스코총회는 6개 항의 권고안을 채택한다. 이는 향후 한위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근거 틀이 된다. 이 시기 청소년,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유네스코의 시각은 1965년 아시아지역 청소년전문가 회의에 즈음해서 ‘학교 밖 교육(out-of-school education)’으로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을 강조하는 르네 마유(René Maheu)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인사말에서 엿볼 수 있다.

마유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밖 교육의 중요성은 그르노블 회의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학교 밖 교육은 학교교육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 간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뿐 아니라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도 학교 밖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의 교육 제도란 학교 밖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밖 교육의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의 의의를 설명한 것인데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활동 패러다임 가운데 육성 패러다임(pro-social paradigm)과 지원 패러다임(integrative paradigm) 사이에서 하나의 쟁점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엔총회는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을 선포한다. 이와 함께, 1975년까지 유엔총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를 강조하며 국제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조는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주제: 참여·발전·평화)’로, 1995년 ‘2000년 이후의 세계 청년행동 프로그램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으로 발전하면서 국제 청소년 포럼, 청소년정책 담당 장관회의, 청소년 관련 선언 등에 반영되어 국제 청소년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반영된다.

이즈음 국내 대학가는 초유의 사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1962년 ‘대일 청구권 문제 합의’와 함께 촉발된 학생 시위는 1964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대일 굴욕외교 반대’ 학생 데모로 발전하고 전국에 파급된다. 그리고 6월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한 학생 시위가 확대되면서 ‘6.3사태’로

역사에 기록되는 비상계엄령이 서울 일원에 선포된다. 이 비상계엄은 7월 29일에 해제되었으나, 이듬해인 1965년 6월에는 ‘한·일 회담 반대 데모’로 전국 13개 대학, 서울 소재 58개 고교가 조기 방학 및 휴교 조치된다. 이어서 8월에는 서울에 위수령이, 고대와 연대에는 무기휴업령이 발동된다.

이렇게 휴교령, 조기방학, 무기휴업령, 시위 참가자 사망, 교수 파면 등은 학원의 피폐화와 함께 면면히 이어오던 민족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4.19혁명 이후 새로 움트기 시작한 민권 운동에 대한 싹을 지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을 느끼게 된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청년원 성장기

1965년 한위는 청소년사업 담당부서를 운영부로 개편하고 제13차 유네스코총회의 권고안을 추진하기 위한 물밑 기초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67년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의 결성과 함께 청소년사업 담당부서를 청소년부로 개편한다.

제13차 유네스코총회 권고안의 내용과 한위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가능한 대로 각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내에 청소년활동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 유네스코학생활동 지도교수협의회 개최

1965년 6월 한위는 서울 도봉 산장에서 각 대학 학생처장과 청소년 활동 전문가 18명을 초청하여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성격을 회고하면서, △한국 학생운동은 너무 형식에 치우쳤거나 획일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너무 강하고, △국제적 성격이 희박하고 로컬리즘에 치우쳤으며, △생산적인 요소가 적다. 또한 △자신감과 기백이 부족하며 사회풍조의 모방이 너무 많고, △취미생활이 빈약하며, △종교적인 기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위가 새로운 차원의 학생활동을 모색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이 협의회는 1965년 10월 각 대학에 ‘유네스코 학생클럽’이 창립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면서,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로 변경된

다. 유네스코 학생활동에서 지도교수는 한위, 유네스코학생회와 함께 ‘새물결운동’의 이념을 다듬고 실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창기 각 대학 지도교수는 대부분 복수였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다섯 분을 지도교수로 모신 클럽도 있었다. 이후 학생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각 대학 동아리에 지도교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의미가 왜곡되고 대학가의 불신이 새물결운동의 실천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1982년 ‘유네스코학생회 상임 지도교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위일체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1992년 학생협회와의 관계를 파기하게 된다.

들. 청소년지도자와 교육자의 훈련을 강화할 것: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1965년 7월 유네스코 한위는 유네스코 학생활동지도자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기 유네스코 학생 씬머스쿨’을 개최한다. 이 교육과정은 서울 지역의 16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과 교지 편집진을 중심으로 59명을 초청해서, 12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서울농대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는 ‘새물결운동의 모색’이었으며 12일부터 18일까지는 서울농대에서 강의와 토론, 레크리에이션을, 18일부터 25일까지는 3개 반으로 유네스코 학생봉사단을 편성하여 경기도 일원에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전개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새물결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새물결운동 현장’이 없었다. 이는 날마다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새물결운동의 추진방향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새물결운동 이념과 실천방안을 만드는 자발적 자아개혁 운동과정에 ‘나’를 던져야만 했다. 아마도 교조적인 행동강령에 익숙한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작업은 꽤나 낯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다소 엉뚱했을 수도 있는 유네스코현장은 운동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실마리였을 것이다.

여하튼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웃고 떠드는 생경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심각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일차적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소집단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실천적인 지역사회 발전 참여방식과, 담이라는 원초적인 생리 현상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맺어지는 워크캠프 특유의 인간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불신과 권위와 형식의 극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방법이나 내용상 특징은 강의, 교양강좌, 주제발표와 토론, 실습과 함께 1968년도 6기부터 시작된 ‘만나 보고 싶은 분’이라는 프로그램의 편성이다. 이 시간은 교육과정이 개최되는 시기에 핫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분들을 초청해 20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초청자는 집배원, 언론인, 산악인, 예술가, 교육자, 사회운동가, 외교관, 기업인, 장관, 정치인, 대통령 부인 등 다양했다.

유네스코 학생클럽 활동 3주년에 즈음해서 이를 평가하는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외부 청소년단체의 종사자들은 유네스코 학생클럽이 창립 3년 만에 전국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대학 사회에 폭넓은 영향을 꾸준히 미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활동기회의 제공과 함께 유네스코 학생회원들의 지도성(leadership)을 꼽는다. 이러한 지도성은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자 교육과정 외에 유네스코 학생 리더십 세미나, 회장단 연수회, 각 프로그램 활동별 요원훈련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결과였다.

유네스코클럽 신입생은 한위 청소년업무 간사와 지도교수들이 전국의 대학을 방문해서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임원 활동 예정자들인 2학년 진급생들은 유네스코 학생 겨울학교와 리더십 연수과정에서, 회장단 활동예정자들인 3학년은 1968년부터 개최된 회장단 연수회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지도성에 기초해서 각 대학 유네스코 학생회는 새물결운동 이념의 구체화와 다양한 자체 혹은 지구별 연합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강한 조직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전국 수준의 연합활동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특정한 지도성은 참가 경험자 중 요원을 선발하여 적합한 태도와 기술, 행동을 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자율적, 자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험을 쌓게 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4학년이 되면 지도 선배로서 한위 담당간사를 보좌했고, 질과 양의 측면에서 독보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게 된 KUSA와 한위는 다른 단체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조국순례대행진 같은 대규모의 행사나 국제청년야영과 같은 수준 높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셋. 각종 비정부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와 활동을
개발할 것: 유네스코학생협회(KUSA: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 in Korea) 창립**

1965년 7월 제1회 유네스코 학생 씬머스쿨을 통해 새물결운동에 동의했던 참가자들은 10월부터 13개 대학에 「유네스코 학생클럽」을 창립한다. 유네스코 클럽(UNESCO Club)은 유네스코헌장에 담긴 유네스코의 이념에 찬동하여 그 이념을 전파하고 유네스코 정신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유네스코 학생클럽은 유네스코 정신에 기초하여 유네스코학생활동 지도교수협의회의 지도와 한위의 지원, 유네스코 학생클럽의 실천이라는 삼위일체 안에서 추진되는 새물결운동을 활동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유네스코 학생클럽이 유네스코 학생협회라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조직관리의 한계 때문에 점차 유네스코 이념보다는 각 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활동으로 왜곡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특히, 군사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에 따른 대학가 안팎의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협회의 정체성은 유네스코 이념에 따른 학생 활동체에서 학생 운동체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반부터 유네스코 학생협회는 한위와 유네스코학생활동 지도교수협의회의 지도를 받는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네스코 학생클럽으로서의 정체성과 새물결운동의 추진 체계를 학생협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 되었다.

새물결운동은 유네스코 학생클럽의 정신적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초창기에 회원과 지도교수, 한위 관계자들의 깊은 사색과 대화, 열띤 토론과 실천을 통해 정립된 새물결운동 이념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고 모든 새물결인의 맥박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지적·도덕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유네스코활동이라면, 작은 조약돌 하나가 호수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듯이 가정, 학교, 사회, 세계로 각성의 물결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새물결운동이다.

새물결운동 헌장은 헌장과 5개의 실천 강령으로 구성된다. 헌장은 새물결운동을 규정하고 방법과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자각운동, 탐구운동, 대화운동, 실천운동 그리고 “혼자면 독서, 둘이면 대화, 셋이면 합창, 넷이면 운동”하는 새생활 창조로 구성된다. KUSA의 모든 행사에서는 개회 시에는 새물결헌장을 낭독하고 폐회 시에는 유네스코 노래를 제창한다. 이는 회원들이 지향하는 바와 유네스코

클럽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초기에는 각 학기 초에 각 대학 유네스코 학생클럽 회장단 회의가 있었다. 전반부에는 주로 한위의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보조 신청 안내, 신입회원모집과 조직정비 및 강화문제 등을 논의하고 새물결지 편집장을 인준했다. 이 외에도 임시 회장단 회의에서는 펠로우십 회의(fellowship conference) 개최 등을 의결해서 추진하고는 했다.

유네스코 학생클럽이 수도권 대학가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지방 대학에서도 유네스코 학생클럽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여러 번의 찬반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1967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제1차 새물결운동 전국대회에서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가 결성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협회 규약과 당해 년도에 각 대학 유네스코 학생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공동 활동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1968년도 공동 활동목표는 △고전읽기 △학생 연구발표 △한글 바로 쓰기 △노래 부르기 △나무 심기 등으로 평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유네스코 학생회의 성격과, 역으로 당시 대학가, 대학생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고로 1969년 공동 활동목표는 △새물결의 얼을 확립하고 전파하자 △우리의 학원을 새롭게 하자 △조국의 흥에 일하려는 희망을 심자 등이다.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의 결성 목적은 “이제 우리는 한 자연인이요, 대학인이며, 국민이요, 세계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관용이라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 간 막힌 담을 헐고, 이러한 이해의 터전 위에서 창의적이며 우호적인 협동의 힘을 빌어 새 질서와 새 가치를 창조하며, 전 인류의 염원인 세계 평화와 번영의 광장으로 나아가려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집약된 힘과 사명의 다짐으로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를 결성”한다는 규약(전문)으로 잘 알 수 있다.

학생협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임원회와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로 구성된다. 임원회는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총괄하며,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각 대학 회장들로 구성되었다. 협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한 5인과 유네스코 한위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임원은 협회장이 구성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중앙위원회 위원자격이 있는 정회원 지회가 확대된 후에는 전형위원회에서 협회장 후보자 중 2명을 중앙위원회에 추천하여 정견발표와 각 대학 유네스코 학생회 회장인 중앙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전체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하였다. 1974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유네스코 클럽 지침서’에는 제2장 클럽의 조직과 운영 중, 학생클럽 편에서 KUSA의 활발한 활동을 유일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각 대학 유네스코학생클럽 외에도 다양한 취미활동을 장려했던 한위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클럽들을 지원했다. 클럽에는 매주 영어회화를 위해 활동했던 파르테논 클럽, 월 2회 음악 감상회를 진행한 뮤즈 클럽, 레크리에이션 클럽, 사진 활동을 활발하게 한 U.P.C., 등산 활동의 산 바라기 클럽, 유네스코 학생봉사회, 나중에 새물결회로 명칭을 변경한 독서회, 자연과학연구회 등이 있었다.

1965년 3월에 개최된 ‘아시아지역 청소년전문가 회의’ 결과는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을 원하던 청소년단체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에 한위는 15개 청소년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1965년 5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강원도 춘천에서 ‘청소년문제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 주제는 △청소년 단체 간 상호협조 △청소년단체 간 공동사업 추진 △국제 청소년단체 활동과 유대 강화 등이었으며, 회의 결과로 각 청소년단체 간 협의와 연락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와 참가단체의 대표로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이후 수차에 걸친 준비회의 끝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를 결성하기로 하고, 한위에 이를 건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협은 1965년 12월 8일 창립되었다. 사무국 기능은 한위의 청소년부가 대행하기로 하여 1972년 3월 청협 사무국이 독립할 때까지 담당 직원을 배치했고, 이 기간 중 청소년문제 심포지엄과 토론회, 청소년문제 연구세미나, 청소년지도자 훈련과정, 전국연합봉사단 활동과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 문화제를 개최하고, 세계 청소년 회의(World Assembly of Youth: WAY)와 아시아 청년 협의회(Asia Youth Council: AYC)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했다. 지금도 청소년기본법으로 보호받는 법정단체로서 가맹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위와 KUSA, 청협과의 관계를 보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집스레 견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위는 KUSA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조언만을 하고, 청협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회원단체의 권유로 부회장 단체를 맡았을 뿐 대부분 이사 단체 혹은 평회원 단체로 참여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넷. 청소년활동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출판하여 보급할 것: 새물결지 창간 및 「보람 있는 대학생활-학생활동의 방향」 발간

새물결지는 1966년 3월 제1기 씬머스쿨의 자치조직인 홍보부 구성원과 제2기 윈터스쿨 홍보부원들이 한위 운영부와 협업으로 창간된다. 창간호는 “새물결지는 타인이 만들어 주는, 남에게 강요된 것도 아닌 우리 회원들 모두가 창조하고 이룩해 나가는 것이어야 하며 독선과 자존의 감정을 넘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참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새 세계를 향한, 넓은 안목과 넓은 터전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물결의 선두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창간배경을 설명하면서 창간목적은 △새물결운동의 전파 △대학 여론의 창달 △대학 문화의 형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새물결운동 현장 및 실천강령과 같이 새물결 이념이 문자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다. 날마다 스스로를 새롭게 하면서 탐구하고, 대화하며, 협동하는 기풍을 가정, 학교, 사회로 넓혀 나가는 개방된 전개 형태로 인해서 이를 생활 운동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물결지가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맡았다.

창간 초기에는 편집인이 KUSA 홍보부, 발행인은 KUSA 클럽 회장단으로, 새물결지 편집장은 KUSA 클럽 회장단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발행인은 한위 사무총장, 편집인은 새물결 편집실, 발행처는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로 변경되었고, 이는 학생활동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한위가 방패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되어 씩씩하다. 새물결지는 당시 어려운 정국에서도 새물결 이념의 정립과 회원, 지회 상호 간의 정보교류, 세계의 청년운동 동향 소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1977년 통권 7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다.

1968년에는 국판 양장 218페이지로 유네스코학생활동지도교수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보람 있는 대학생활-학생활동의 방향」을 발간한다.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1부는 학생활동의 의의를 중심으로 학생활동의 회고, 학생활동의 유형 및 그 기능, 학생활동의 정신적 자세, 대학생의 인간관계를, 2부는 바람직한 학생활동 안내를 중심으로 그룹·프로그램 작성, 학구적 활동, 교양활동, 봉사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협동활동 등을 다루었으며, 3부는 유네스코 학생활동의 전망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새로운 형태의 학생활동을 접하면서 대학생들이 가졌던 궁금증들로서, 보다 체계적인 학생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 1970년에는 「학생문제연구」, 1974년에는 「유네스코 클럽 지침서(Unesco Clubs Manual-revised edition)」,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등을 번역 출판한다.

다섯. 청소년들이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여가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초기 유네스코 청소년활동은 주로 KUSA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소개한 클럽활동 외에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탐구활동이다. 한위는 자발적 자아개혁운동으로서 새물결운동의 전개를 위한 탐구활동으로서,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총 8회의 유네스코 학생클럽 리더십 세미나(UNESCO Student's Leadership Seminar)를,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여학생 세미나 3회, 1970년 10월부터 1972년까지 10회의 새물결 대학논단을 개최했다. 이 외에도 새물결지에서는 수시로 해외 학술논문을 공유하고 마르쿠제, 마르틴 부버, 노자 등의 사상을 소개하고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국제교류활동으로는 1966년 8월 7개국 19명의 외국 참가자를 비롯한 49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 IWC)가 개최된다. 1979년부터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 IYC)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된 이 활동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워크캠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IYC 일정은 작업, 강의, 토의, 자치회, 지역사회 활동(Community Program), 문화교류프로그램(Exchange Program), 국제친선의 밤(International Night), 친선 체육대회, 주말여행으로 편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직접적인 노력봉사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국제야영봉사는 1979년부터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참여방안 모색과 국제문화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는 국제청년야영으로 행사 명칭과 프로그램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보통 7월 중순에 개최되는 이 활동은 8월 초부터 시작되는 조국순례대행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 온 한위의 전통 있는 활동이다.

한·일 학생교환 계획은 13차 유네스코총회에 참석한 양국대표 간에 의사를 타진하고, 1965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청소년문제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 한위 대표단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때 협의 상대는 유네스코 일본위원회와 일본 유네스코 협회연맹이었으며, 문부성이 국가위원

회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협회연맹이 수행하는 일본 유네스코의 업무추진 시스템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6년 제1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1975년까지 10년 간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부터는 1977년까지 히로시마 방일단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체육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10월 고려대에서 KUSA 체육대회가 개최된 이후, 이는 신입회원 환영 체육대회, 새물결 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1990년까지 이어졌다. 1969년부터는 새물결 등반대회가 개최되고 이 등반대회를 1971년부터는 산 바라기 클럽이 주관하였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보면 각 지회의 봉사활동 외에 1969년부터는 대학생연합봉사활동이 197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작업과 강의 및 토의, 체육활동, 친교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200명 정도가 장소를 변경하며 전국 일원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이 가운데 조국순례대행진은 복합적인 프로그램 형태를 띠고 있어서 범주를 구분하기 어려워 따로 정리해본다. 1974년 8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는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을 개최한다. 후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게재되기도 한 이 행사의 취지문에는 “희망찬 조국의 내일을 향하는 젊은 대학인의 행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겨레의 힘찬 행진이어야함을 확신하며”라고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는 1972년 10월 국회해산과 비상계엄 선포(10월 유신) 이후, 해를 넘긴 10월 유신 반대 시위와 조기방학과 함께 1974년 1월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 2, 3호가, 4월에는 제4호가 선포되는 등 학생이 셋만 모여도 형사가 달려들 정도로 대학가는 가사상태였다. 이 즈음, 학생협회 워크숍에서 ‘별건 대낮에 수천 명의 대학생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대로를 활보하면서, 대학생이 살아있음을 확인해보자’는 엉뚱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들었다.

수천 명의 대학생이 전국 4개 혹은 그 이상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10여 일을 행진하고 한 지점에서 합류하는데, 그곳에는 행진에 참여한 대학생 숫자만큼이나 많은 대학생 응원단이 합류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도록 기획된 이 행사는 그 개최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었다. 여하튼 ‘젊음은 행진한다. 영원히 사랑해야 할 이 조국의 땅을!’이라는 주제로 49개 대학 1,510명이 참가하여 8월 5일부터 15일까지 행진하고 공주에서 합류한 제1회 행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여곡절 끝에 대성공리에 끝이 난다.

합류축제의 백미는 갑자기 변경된 백마강변의 모래밭에서 손진척 선배가 연출하고 참가자들이 스태프와 연기자로 참여한 ‘아! 4300년’이라는 마당극이었다. 단군신화부터 훑어오면서 밤을 꼬박 세워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다란 극이 한참 흥이 올랐을 때 비록 우천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자체로 최소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오랜만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이후, 유네스코 학생협회와 지회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만 했다. 조국순례대행진에 참석하고 싶은 신입회원이 쇄도했고, 학생협회는 지회별 참가인원의 배분에 따른 항의성 호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대규모 대학생 행사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서 당국으로부터 개최허가를 얻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개최를 하지 못하는 해가 나왔다. 그러는 사이 KUSA가 보유하고 있던 학생 지도력은 유사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외부단체로 흩어져 1993년까지만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지구별로, 대학별로 조국순례대행진은 지속되었으나, 전국 단위의 행사는 개최될 수 없었다.

여섯. 청년활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 확충할 것: 청년원 건립 추진

1965년부터 활발하게 대학생활동을 전개하던 한위는 대학생 전용 활동공간에 대한 필요성으로 1966년 6월 유네스코 유스그라운드(Youth Ground)라는 명칭으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 수차에 걸친 건의서와 건립계획서의 제출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1974년에야 비로소 경기도와 문교부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건축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1974년 8월 유네스코대학생종합수련장 기공식이 있었고, 1975년 12월 본관, 숙소 2개동, 식당 등 1차 공사가 완공되었고, 1977년 시설 보완과 조경사업을 마무리하여 1977년 7월 개관된다.

당시 청소년 전용시설의 확보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위는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건축 초기부터 참여한 선배들에게 들은 바로는 설계자들이 본관 화장실 문의 도색을 주제로 밤새 토론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다만 숙소에 오르는 계단의 높이를 지금보다 1m 정도 낮추고, 본관 앞 정원과 운동장 사이에 있었던 소나무밭을 살려 본관과 운동장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의견은 예산문제 등으로 반영이 안 되어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청년원 건물들은 설계상 기본 개념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차로 완공된 본관과 숙소 A, B동 및 식당, 2차로 완공된 연수동(C동)과 대강당, 3차로 식당 자리에 증축된 연구실 겸 식당 건물, 그리고 4차로 신축된 영어마을 숙소가 그 예이다. 이는 1차 완공 후 건물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그들의 개념대로 2차 건축을 완성한 후 다시 돌아왔고, 1차 건축의 개념으로 완성된 식당 건물은 5공 당시 대통령의 방문 후 3층으로 재건축되면서 산장 같았던 애초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영어마을 숙소는 후에 대강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로 건축하였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당시로서는 국내 굴지의 청소년활동 시설을 한 위가 보유하게 된다. 완성된 청년원 공간은 청소년이나 현장의 활동지도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는 기회였고, 이를 통해 기능주의 측면에서 연수효과를 더할 수 있었다. 청년원 건물의 완성은 한위가 13차 유네스코총회 권고안의 기초를 완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원 개화기

유네스코 청년원의 1차 완공과 함께 연수업무, 자료실 운영업무, 아·태지역 청소년활동중심으로서의 기능, 조경 등 건축 마무리 공사와 시설관리 업무 등이 확대되면서, 한위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는 청소년부에서 청년원으로 개편된다. 청년원 시기는 한위가 창립 이후 20여 년간 축적한 청소년사업 역량을 체계화하고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시기이면서, 동시에 학원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군사정권의 혹독한 규제정책으로 KUSA 사업과 조직이 대폭 위축되고 KUSA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활동 프로그램도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혼란을 겪은 시기이다. 이 장에서는 청년원의 기관 운영 철학과 가치, 신규사업,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청년원의 철학과 가치

청년원은 ‘새청년상의 창조’를 미션으로 설정한다. 새청년상은 △자주 개척적 기상의 청년 △도의를 구현하는 청년 △국가관이 투철한 청년 △세계를 바라보는 청년이다. 이는 각각 3항목씩 총 12개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설계에 반영되었다.

조국순례대행진이나,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학생활동 교육과정(winter school) 등 개관 이전부터 KUSA 회원들의 호응을 받아온 활동들은 청년원 지도교수의 확충, 안정된 교육공간과 최신 교육 기자재 확보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 외에 새롭게 청년원에서 자체 개발하여 수행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2. 청년원의 사업

1) 연수사업

○ 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

청년원의 괄목할 만한 사업은 청소년활동 지도자연수였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청년원에서 조립한 단어이다. 당시에는 ‘Youth Leader’와 ‘Youth Worker’가 ‘청소년 지도자’로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어서 ‘청소년 집단의 구성원 중 지도자’와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전문 혹은 자원 지도자’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가 ‘청소년활동 지도자’이다.

연수 참가대상의 범위나 교수방법도 당시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주로 청소년 단체 내에서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나마도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았다. 또한 교육방법도 강의 위주로, 당시 일부 산업훈련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던 시뮬레이션 게임을 적용함으로써 이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교수법과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지도교수들은 유럽과 미국의 최신문헌을 참고하고, 당시 우리보다 수준이 앞섰던 일본의 산업체 훈련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노하우를 확보하기도 했다.

‘청소년활동지도자’나 경험학습이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게임’ 방법의 적용은 ‘청소년과 함께(With Youth)’라는 유네스코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의 수직관계에 익숙한 참가자들에게, ‘함께’라는 수평적 관계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럴수록 청년원에 대한 신뢰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은 1978년 단기과정이 개설된 후, 1979년 본 과정, 1983년 통합과정, 1984년 추수과정, 1994년 전문과정이 개설되어 종교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설립배경을 가진 민간청소년단체와 공공청소년기관 실무자, 정책수립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본 과정은 4박 5일씩 4개 과정을 이수한 후, 에세이 수준의 논문을 제출하고 수료하는 형태였다. 제1과정은 ‘청소년의 이해’, 제2과정은 ‘청소년과 집단 활동’, 제3과정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제4과정은 ‘청소년과 정책’으로 편성되었다. 연수방법은 오전에 강의, 오후에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경험학습, 저녁에는 예술 활동을 도구로 하는 집단 활동, 이천 지역 조사를 통한 청년 지도(youth map) 작성 등의 워크숍이 활용되었다. 연수기간 외에 실무자로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업무 실습기간으로 간주하여 지도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청년원 지도교수는 각 과정 별로 강의와 시뮬레이션 게임, 집단활동 실습과 논문지도, 생활지도를 담당했다.

참가자들은 이수기간 동안 청년원 지도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선택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수료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모든 일과가 끝난 9시 이후에는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논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와 지도교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 간의 의견교환과 때로는 밤을 새우는 치열한 토론으로 서로의 시각을 교류하고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년원은 자연스럽게 전국의 민간, 공공 청소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통합과정은 현장실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4박 5일 과정 4개를 15박 16주에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추수과정은 수료한 활동가들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는 연수과정, 전문과정은 분야별 기술 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이 연수과정은 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워크숍, 논문작성과 토론 등의 교수방법은 지도교수가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방식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한동안 현장의 청소년활동 지도사들은 유네스코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의 재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 활동지도자연수는 1984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주최한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특별 연수과정, 1986년 10월 ‘평화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연수’, 같은 해 12월에는 부탄 청소년지도자 육성을 지원한다. 1989년부터는 청소년활동 지도자 해외연수를 시작하고, 1990년에는 정부(당시 체육청소년부)에서 위탁한 청소년활동 지도자연수를 개최한다.

○ 청소년연수

청소년연수는 1977년 대학생 연수과정, 1978년 청소년 연수과정, 1994년에는 제1기 청소년 자원활동을 위한 연수과정이 시작된다. 대학생 연수과정은 윈터스쿨 외에 KUSA 회원들 자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연수과정이 개발되어 ‘여우미요’ 등 노랫말만 남은 전래 동요를 발굴하여 곡을 붙이고 공유하는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청소년 연수는 장애 청소년, 근로 청소년과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2) 국제교류사업

○ 한·일 문화 비교연구 청년캠프

1981년부터 한·일 문화 비교연구 청년캠프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199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문화비교 연구를 통하여 상호 간에 이해를 깊이 하고 △일본문화에 끼친 한국문화의 영향을 연구하며 △양국 대학생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운영형태는 대학생 방일단을 구성하여 10여 일 동안 일본 전역을 여행하면서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일본 대학생과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함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청소년문제 등 폭넓은 범위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형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일본의 유네스코 관계자와 사전협의시,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 땅을 행진하면서 일본문화를 경험한다는 설명에 잠시 당황하던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 외에도 1977년부터 한·필리핀 학생교환 계획, 1981년에는 한·사우디 청년교류계획, 한·독 청년야영을, 1985년부터는 문교부의 위탁으로 재외교포 학생하계학교를, 1992년과 1993년에는 체육청소년부의 위탁으로 국제 청소년광장을 개최하였다.

3) 자원활동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KUSA 활동의 위축과 함께 당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쪽으로 조정하여, 대규모 사업에서 소규모사업으로, 국내 사업에서 국제사업으로 활동의 중심을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 조직활동에서 개인의 자원 활동에 치중하게 된다.

1990년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s, KYV)을 출범시키고 2기 단원까지 훈련하여 파견한 후, 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업무담당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이관한다. 1994년 아시아 자원봉사 활동네트워크(Asian Volunteer Action Network: AVAN) 설립 참여, 1998년에는 국제 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eers)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평화의 문화의 확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주도했다.

4) 청소년문헌정보사업

청년원은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1979년 「청년연구」지 창간, 1981년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교재 발간, 1983년과 1993년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교재 「청소년과 함께」의 개편 작업, 1985년에는 1945년부터 1984년까지 발간된 국내 청소년 관련 문헌을 집대성한 「청소년 관계 문헌 목록집」 발간, 1993년 유네스코 세계 청소년정보교류망(INFOYOUTH)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운영, 1994년 아시아 비정부 청소년단체 자문회의 개최, 1995년 3월 제1차 INFOYOUTH 국내워크숍 개최에 이어 5월 「INFOYOUTH」를 창간한다.

「청년연구」는 학술지로 당시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학술지가 전혀 없었던 시절에 학자들의 논문이나 관련 학과 대학원 졸업논문 작성에 많이 인용되었던 학술지이다. INFOYOUTH의 아태지역 스테이션 선정과정에 인도 유네스코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에도 담당부서였던 유네스코 청소년·스포츠국(Youth and Sports Division)의 질레트(Gillette) 국장이나 담당직원의 청년원에 대한 깊은 신뢰로 결국 청년원이 스테이션으로 선정되었다.

5) 연구사업

1970년대 후반부터는 협회과와 KUSA를 중심으로 새물결운동의 이념과 정체성을 주제로 1979년 유네스코논단, 1981년 제1회 새물결운동 학술대회 등 ‘새물결운동학교’가 행사명을 변경하면서 1993년까지 개최된다. 그리고 지도교수들은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1981년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육성대책 세미나, 1982년 청소년정책 세미나, 1983년 청소년과 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6) 수탁사업

2000년 한위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문화교류 특화시설인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yeongdong Info Zone of Youth: MIZY)를 수탁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회관 2층에 청소년들의 교류거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접근이 어려워 국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실시에 한계를 가진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했다. 미지센터는 후에 남산의 구 중앙정보부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시에 수탁운영권을 반납한다.

3. 청년원 조직

청년원은 협회과, 연수과, 운영과, 청년원 지도교수로 구성되며, 협회과는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연수과와 청년원 지도교수, 운영과는 이천 청년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순례대행진과 같이 행사의 규모, KUSA 관련 숙박교육과 훈련, 직원 개인의 특정 역량과 업무의 일관성, 업무에 따른 장소의 적절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 교류 차원의 협업은 수시로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협회과는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및 학생활동의 계획 수립과 집행 △청소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간행·보급을, 연수과는 △연수사업의 계획 및 집행 △연수 관계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자료실의 관리 △국제 간의 연구교환 계획의 수립을 담당했다. 청년원 지도교수는 △청소년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청소년 관련 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 △청소년 지도업무 및 연수 업무 지원 △기타 청년원장이 위탁한 과업 수행을 맡았으며, 운영과의 주요업무는 시설관리와 행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학원 상황은 10월 유신 후 급격하게 악화된다. 부마 항쟁, 박정희 대통령 서거, 5.18민주화운동, 5공화국 등장, “학원 녹화”사업 강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전개는 모두 익히 아는 바이다. 이에 따라 KUSA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강철대오’로 상징되는 학생운동의 경직화로 학원 내외에서 연합활동을 거의 추진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청소년단체의 학생활동 간사들이 모이면 ‘당국의 집회 허가를 얻는 게 업무의 반 이상’이라고 푸념을 하고는 했었다. 결국 1980년 7회 조국순

레대행진은 당국의 집회불허로 개최하지 못했고, 이후 15회(1988년), 18회(1991년), 19회(1992년) 행사도 당국의 규제와, 행사에 필요한 지도력의 감소, 대학생 욕구의 변화 등으로 1993년 20회를 끝으로 행사를 접는다.

청년활동의 위축은 지도력의 분산으로 이어지고, KUSA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사기의 저하는 조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KUSA 구성원간의 대화가 소원해졌다. 이러한 이유 외에 한위와 지도교수 위원회에 대한 KUSA 회원들의 기대와 의존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오해와 불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KUSA 업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청년원에 대한 당국의 불신도 심각해져갔다. 이 시기에 각 청소년단체의 학생활동 담당 간사들은 대학생과 당국, 기성세대 사이에 낀 처지를 빗대어 ‘줄기 간(幹), 일 사(事)가 아니라’, ‘틈 간(間), 죽을 사(死)’를 쓰는 직책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급기야 1981년 문교부가 ‘학원의 좌경화 경향’과 관련해 산하 기관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제작한 자료에는, 학원좌경화 사례 3건 중 하나로 KUSA의 금서(禁書) 독서캠프가 수록되었다. 이에 책임을 물어 1981년 청년원장이 사직하고, 1982년에도 금서 독서캠프와 관련하여 학생활동 담당간사들이 외압에 의해서 사직하게 되면서 KUSA 업무는 더욱 위축된다.

이후 청년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서 점차 사업을 축소하게 되고, 1991년에는 협회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봉사협력과장 직책을 감축하고, 1992년에는 지도교수 직책도 4명 감축하는 등 업무 인프라가 대폭 축소된다.

2001년에는 청소년사업이 없는 청년원이라는 이유로 명칭을 유네스코문화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교류 업무와 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03년에는 ‘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청년 초청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3년부터는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대학 글로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평화, 갈등해결, 지속가능한 발전 등 범지구적 주제를 논의하는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학술행사로 성장시킨다.

2004년 1월에는 한국교사 일본 방문사업을, 7월에는 유네스코 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 축제를 진행했다. 이때부터 학교 밖 교육을 담당했던 유네스코 청소년사업과 학교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담당 부서와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진다.

2004년 국제교류 담당자 15명이 참가하여 글로벌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아태지역 9개국 청소년단체 정보담당자와 활동가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정보통신기술(ICT) 훈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2006년 청소년 참여정책 국제 심포지엄, 제1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2007년에는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이 진행된다. 2012년에는 「유엔 세계청소년 보고서: 청소년과 기후변화」를 번역해서 보급했다. 그리고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을 시작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 청년들이 아시아 지역의 역사인식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의 눈으로 화해와 평화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2006년에는 프로그램 전용시설 기능으로 유네스코문화원을 유네스코평화센터로 개편하고 이천영어마을을 운영한다.

아주 오래전 한위 직원워크숍에서 국가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 조용하지만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일이 있다. 필자는 문부성에서 국가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유네스코 청년원 같은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그때 유네스코 클럽활동 중심 시설로 청년원을 한위에서 분리시켰으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됐을까하는 부질 없는 상상을 해본다.

참고문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에서 지구촌 나눔의 주역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1954-2014. 2014. 1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뉴스』(통권 770호, 2020. 8월호), 『한국과 유네스코의 청년 활동 70년』. 2020. 7. 3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2015. 1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학생활동』. 1994. 1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클럽 지침서』. 197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클럽 지침서』. 199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년사-평화를 향한 50년』. 2004.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료로 본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 1997. 1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서울: 오름』. 1995. 12.
- 이만열 엮음, 한국사 연표. 『서울: 역민사』 1985. 12.
- KUSA 홍보부, 『새물결』(통권 1호, 1966. 3. 1~ 통권 74호, 1977. 1. 15)



Part I.

젊음의 집,
그 터를 닦다



Part I.

젊음의 집, 그 터를 닦다

- 청년원 건립추진
- 청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



청년원 건립 추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5년부터 국내 청소년육성시설의 부족을 지적하고 관계 당국에 청소년육성시설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위는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연구를 실천하였다. 1973년 7월 11일 유네스코뉴스가 다룬 “청소년과 사회교육시설” 기사를 통해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그 성취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에 정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청소년과 사회교육시설” 기사 (유네스코뉴스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로, 청소년 연수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청소년 연수시설을 “유스 그라운드”라고 칭하고 있다.

유 네 스 코 뉴 스 1973년 7월 11일

청소년과 사회교육시설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유네스코 한위의 노력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외국에 비해 형편없는 청소년시설 종합적 사회교육 정책수립이 긴요

청소년·사회교육시설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한위의 노력

유네스코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유네스코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뉴스는 1973년 7월 11일 “유스 그라운드 (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한위의 노력을 소개한 기사를 소개한다.



유네스코 뉴스

The UNESCO News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이 유네스코 뉴스는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발간되는 것임. (This News is published

<제 169호>

창간: 1964년 1월 10일

2월 27일 / 1974년

청소년 종합 수련장 연내에 착공

경기도 이천군 소재 8만 여평 대지 선정

본 위원회의 오랜 염원이던 청소년 종합수련장 (Unesco Youth Ground) 건립계획이 연내에 그 실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수련장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몇을 두고 기금조달을 구상해 오던중에 김사부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건립기금 모집에 박차를 가해 이같이 그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본 위원회는 지난 75년까지 청소년 종합수련장을 확충한다... 경기도이천군호남면... 7만 8천여평의 국유지를 선정, 한지정부부의 임포보선이 성행리온 진정... 「캠프」장 시설... 기금조달에 착공키로 한 것이다.

학용 이용, 제요회 국제아동봉사 활동 및 전국대학생인턴봉사활동을 겸지역시 개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 청소년종합수련장이 건립되

면 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훈련과 여가의 향상을 위한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수련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될 것이다.

세 교사에 장관 표창장 수여

ASP 사업에 창의적 노력 기울여

유네스코 협회대표 계획 (ASP) 의 외적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민주 의식과 특가관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인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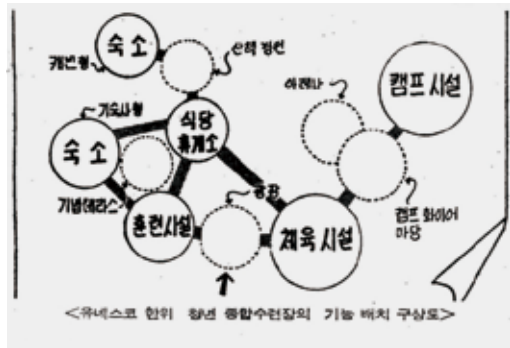
성하는데 기여한 일선 학교 교사 8명에게 문교부 장관의 표창장이 수여된다.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제반활동을 주관한 ASP 학교 교사중

김...
임...
지...
기...
표...
최...
은...
비...

“경기도 이천군 소재 8만 여평 대지 선정”

(유네스코뉴스 1974년 2월 27일)

“청년 종합수련장
기능 배치 구상도”
(유네스코뉴스
1974년 5월 8일)



청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

1974년 8월 1일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 수련장 정지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민관식 문교부 장관과 조병규 경기도지사, 김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물론,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와 티로나 주한 필리핀 대사 등 2명의 주한외교사절 등 총 5명이 현장에 참석해 착공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눌렀다. 이날 기공식에는 국제 야영 봉사활동에 참가한 국내외 봉사대원 120명도 참석해 발파식을 지켜봤다. 봉사대원들은 봉사활동 기간 동안 수련장 부지 터 고르기 작업에 참여했다.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수련장’ 정지공사 기공식 현장
1974. 8. 1.

학생종합수련장 8월 1일 기공

국내 최대규모 9월 말까지 토목·정지공사 완료

본위원회와 광남도 속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종합수련장 (UNESCO Youth Ground) 건설계획은 정기도 이전군 호반면 대곡리소재 8만여평의 대지를 확보한데 이어 기본시설과 부속건물의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오늘 8월 1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작업에 「피지」를 올리게 되었다.

국제 야영 봉사활동 현지서 개최 국내외 학생 150명 정지공사 도와

오늘 75년까지는 시설의 일부를 현지서에서 활동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학생종합수련장은 기본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캠프」장소를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시설로 착공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위원회측은 폭마다 광유 설비를 갖추어온 유네스코연방사령관 무희복을 맞이하여 광남도내 25일부의 용물 7일까지 이 학생종합수련장이 건설될 현지의 첫 정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의의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프랑스」, 영국, 「말레이시아」, 「핀란드」, 폴란드, 「말리」,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일본 등 10개국의 남녀 학생 70명과 국내 50여명의 85명을 합쳐 도합 1백 55명이 참가하는 이 국제야영 봉사활동은 하루 7시간의 작업을 통해 학생종합수련장의 정지작업

을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학생종합수련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학생종합수련장은 광남도에

착공하여 75년 5월까지에는 본관 일부 및 「캠프」시설을 완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통계에는 2백여명, 하계에는 4백여명을 동시에 수용하여 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시설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 서적 「코너」를 설치 광화문 서적 「센터」에 유가간행물 총판

시내 광화문서적 「센터」에 『유네스코 「북 코너」』가 설치되어 앞으로 일반수요자들이 본위원회 및 유네스코본부의 유가간행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본위원회는 유네스코본부와 위원회의 유가간행물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다 손쉽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광화

문서적 「센터」(시내 종로구 중로 1가 71)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5일부터 동 서적 「센터」내에 『유네스코 「북 코너」』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본부와 본위원회가 발간한 유가간행물을 광화문서적 「센터」에서 일괄 판매하게 된다.

“국제 야영 봉사활동 참가한 국내외 학생 150명 정지공사 도와” 기사(유네스코뉴스 1974년 7월 24일)



유네스코 청년원 기공 기념패(나무, 스테인리스)

1974

유네스코 청년원 기공식에 참석한 9인의 이름을 넣어 제작한 기공 기념패. 민관식 문교부 장관, 조병규 경기도지사, 김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월남(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주한 대사의 이름과 서명을 넣어 9각형 모양으로 제작했다. 기념패에는 “평화와 발전의 원동력인 젊은이들의 꿈과 힘을 키워나갈 터전을 마련하고자 세계 7개국에서 모인 일백 육십 명의 젊은이들과 더불어 뜻깊은 첫 삽을 들다. 1974년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다.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 수련장 착공

1일, 정지공사 발파식 각종 훈련 시설등 건립

민관식 장관등 기공식에 참석

유네스코 대학생종합수련장의 정지공사 기공식이 1일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매곡리 현장에서 개최되어 민관식 문부부장관을 비롯한 조병규 경기도지사와 일본, 「필리핀」대사등이 발파 「보탄」을 누름으로써 착공되었다.

8만여명의 대지위에 기본시설과 「테프」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될 이 종합수련장은 연차계획에 따라, 완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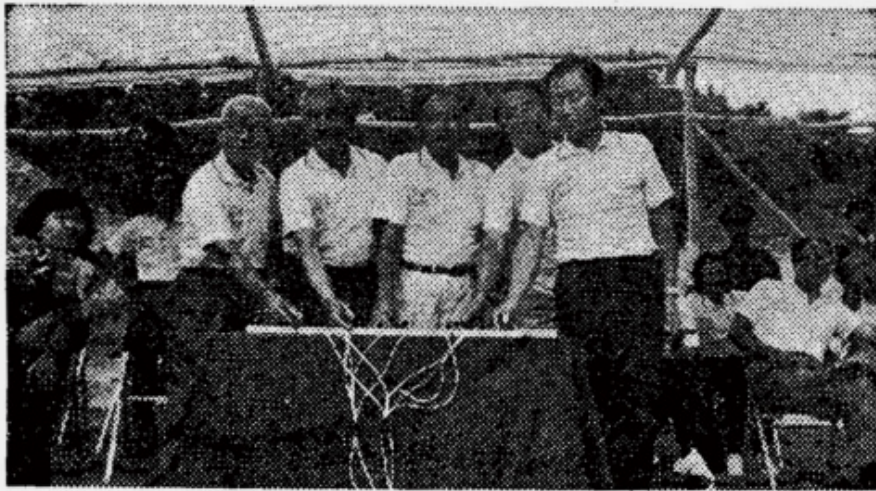
이날 정지공사 기공식에는 발파 「보탄」을 누른 민관식장관과 주한 외보사절, 그리고 조병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유지들이 참석하여 국가수준의 학생종합수련장 기공을 축하했다.

한편 이 학생종합수련장의 정지공사를 돕는 국제아령봉사활동에 참가한 국내의 봉사대원 1백 20명도 이날 기공식에 참석하여 립한 산업을 계속했다.

이 종합수련장은 금년 9월말까지 정지공사를 끝내고 다시 공사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기본시설공사에 착수, 75년까지는 그 일부를 준공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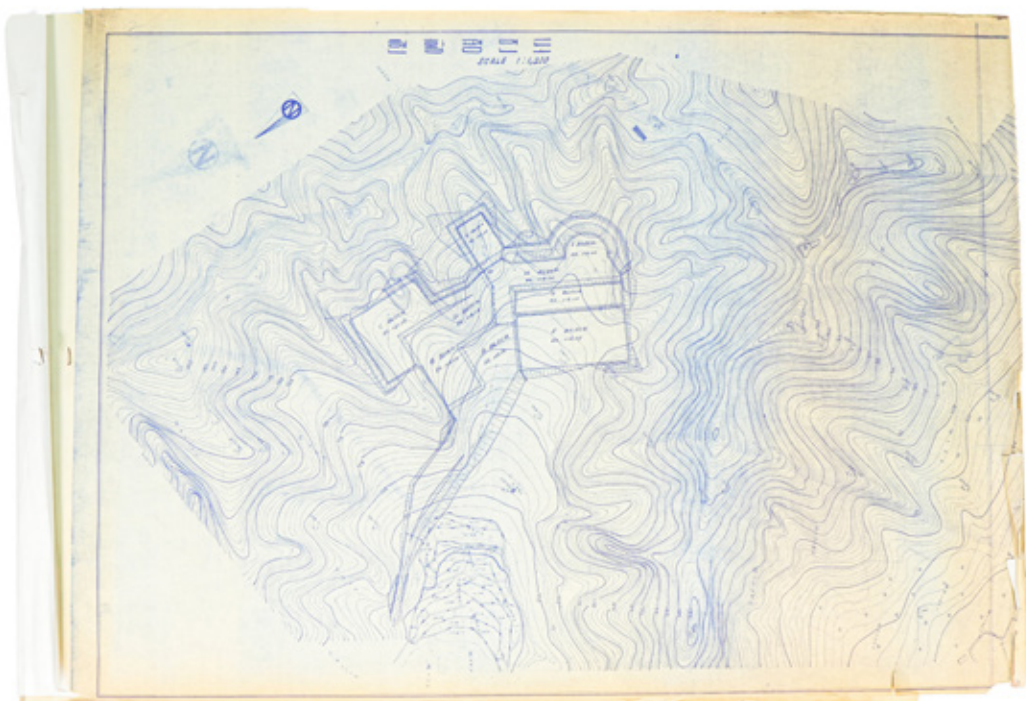
대학생 종합수련장이 완공하면 1년간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20만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여명을 수용, 훈련할수 있게 될 것이다.

본위원회는 이 수련장을 통일에 대비한 내일의역군들을 위한 수련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종합수련장 정지공사 기공식서 발파 「보탄」을 누르는 민관식장관(가운데)과 왼쪽부터 「우시로꾸」 일본대사, 「티로나」 「필리핀」 대사, 조병규 경기도지사, 김규택 사무총장.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 수련장 착공」 기사(유네스코뉴스 1974년 8월 7일)



유네스코 청년원 부지 조성 현황 평면도
1974(추정)



청년원 부지 모형(종이)
연도 미상

기공식 이듬해 한위는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 수련장’ 투시도와 설계안을 확정하고 이를 1975년 1월 29일 유네스코뉴스에 공개했다. 대학생 종합 수련장은 1976년 3월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기본 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고 보조금 등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회의실, 500명이 동시 활용 가능한 캠프장, 축구, 테니스, 수영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수련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위 창립 22주년이 되는 해이던 1976년 한위는 청년원을 마침내 준공하였다. 준공 당시 청년원의 명칭은 “유네스코 대학생 수련원”이었다. 대학생 종합 수련장은 당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20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2만 명을 연간 수용, 훈련할 수 있는 규모였다.

대한 원정관 장래 및 상호 10차 사무처 회의실 면적 보다 비약적인 발전 저명인사, 우한 의과사립 등이다.

위원회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소위원회로부터 인력부족과 생화부문의 연구분석 발표피도있을 예정이다.

KUSA 협회장에 김배윤군 선임

한국유네스코 학생협회 제10대 협회장으로 김배윤군(연대·수학과 3)이 선출되었다. 지난 1월24일 개최되었던 유네스코 학생회중앙위원회에서 「새내선출위원회」가 협회장후보로서 김배윤군을 1974년도에 학생협회가 임명하였다. 이번 협회장에 선출되었다.

게 되었다. 국고보조금을 3억여원의 예산을 끌어 연말까지 기본 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 수련장은 2백명 수용능력의 기숙사와 국제회의를 할수 있는 대회의실, 그리고 5백여명이 동시 에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과 축구, 「테니스」, 수영장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수련장이 될 것이다.

『종합 수련장』 투시도 확정

3월초 착공 10월말 준공 목표

위원회 승인사업의 하나였던 투시도 및 설계안이 확정되어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 수련장의 는 3월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아워』 다음 「프로」 예고

매주 토요일 하오 5시, KBS-TV

▲2월 8일: 「민간」 편
▲2월 15일: 「민간」 편
▲2월 22일: 인 도 편



<3월초에 착공될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수련장의 투시도>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수련장 투시도 확정” 기사(유네스코뉴스 1975년 1월 29일)

한국 청소년 활동의 획기적 전환점 될

'젊은이의 요람'-이천 종합수련장

▶ 특별기획 취재... 공사현장「르뵈」

한국의 청소년활동사에 획기적 전환점을 이루게 될 국내 최초의 해외규모를 자랑하는 「유네스코 대륙종합수련장」 건설공사가 6월 6일간의 분진지움공사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6월 5일 오후 5시에 시작되어 6월 6일 오후 5시까지의 밤 24시간 동안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해의 주인공」이며 「무한한 가늠을 지닌 주제」인 젊은이들이 그들의 열과 피와 땀과 노인이 꽃 피게 하려는 「영원한」의 희망이자 「수련의 도정」이 될 이 수련장이 6월의 신록속에서 서서히 그 용자를 드러내고 있다. 「유니콜이」를 사하고 「피리」를 팔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의 땅」을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는가?

유네스코 후원회 회장 김복남(연세대 수학과)과 여학생부장 김정숙(동원대)이 개관식과 함께 이터의 수련장 건설에 그리면서 유익인 지난 6일 경기도 이천시 조양면 배곡리 소재 「수련장」공사현장을 찾았다. 「어디는 불면, 거기에는 「연드」와 그리고 이곳엔 「유네스코」와 「수련장」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배구장, 정구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현상장목 정준현(충주부 서기)씨의 설명에 조목한 진풍을 느껴 하지 못하면서 인근 파킨슨을 입은 여배원 인부들의 구리빛 수복을 언면서 기념촬영을 하게 되었다. 인력조차 드물었던 이곳 8만

배구장 (2개면) 및 2개면의 「테니스코트」도 완공될 예정이다. 이 6월의 태양이 내리쬐는 공사현장은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심었던 전인근씨의 기념가 제비 나무로 물론 자랑취면서 종지풍사로 특색적인 산물성으로 향할함을 감사추진할 것이다. 「영의 전통」을 합해 미리 말려온 이 불꽃, 학생 대표를 단장게 된 이 「전주」가 나면 「피리」(43세)와 「시련」 불꽃을 「나르」는 착언인부 조양면 (35)는 「자라」니 젊은이들이 인신을 단련할 따

수련장은 그 자체로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주어 있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의의 없이 방생되고 있는 시점으로만 생각해볼 수 없다. 그러나 5월 말 전주가고 이제 오는 15일이면 전기가 들어오게 된다. 이제 는 리드 밤시간을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도도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적 생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단정해 하고는 이것이 모두 수련장의 「피리」이라는 젊은 열매가 말했다.



<공사현장을 찾은 김복남과 김정숙>

국제회의실·축구장·수영장등 시설갖춰

□6월현재 55%진척·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기여□

국내 최대규모의 수련장, 9월말 완공목표

여명의 아산 골짜기에 「젊은이의 요람」을 건립하기 위한 「젊은이의 요람」종합수련장 건설이 시작된 것은 지난 74년 8월 1일.

74년 8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정지공사를 마친 이 「수련장」은 지난 2월부터 기본건물공사에 착수, 매일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6월말까지 정지구조공사가 완공되고 내장 및 도장공사를 끝마친 곳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층 지상 2층의 규모 (면적정 4만7000)에는 5개국어 통역실, 교실, 회의실과 사무실이 마련되어 명실공히 이 「수련장」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정지공사가 끝난을 비롯, 야외체육장, 수영, 탁구장, 「테니스코트」, 기숙사 2개동, 식당, 귀빈숙소, 축구장,

전을 비롯으로도 짓게 된다고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퇴출장치가 안전하면서 「복합」한 조차, 열근 하나하나에서 제일한 신장과 정장을 풀이면서 공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건물이 완공되는 날엔 학생들과 작업장 인부들이 동시에 참가이라도 가져 기쁨을 나누고 주시게 될 때에 이 단계를 약속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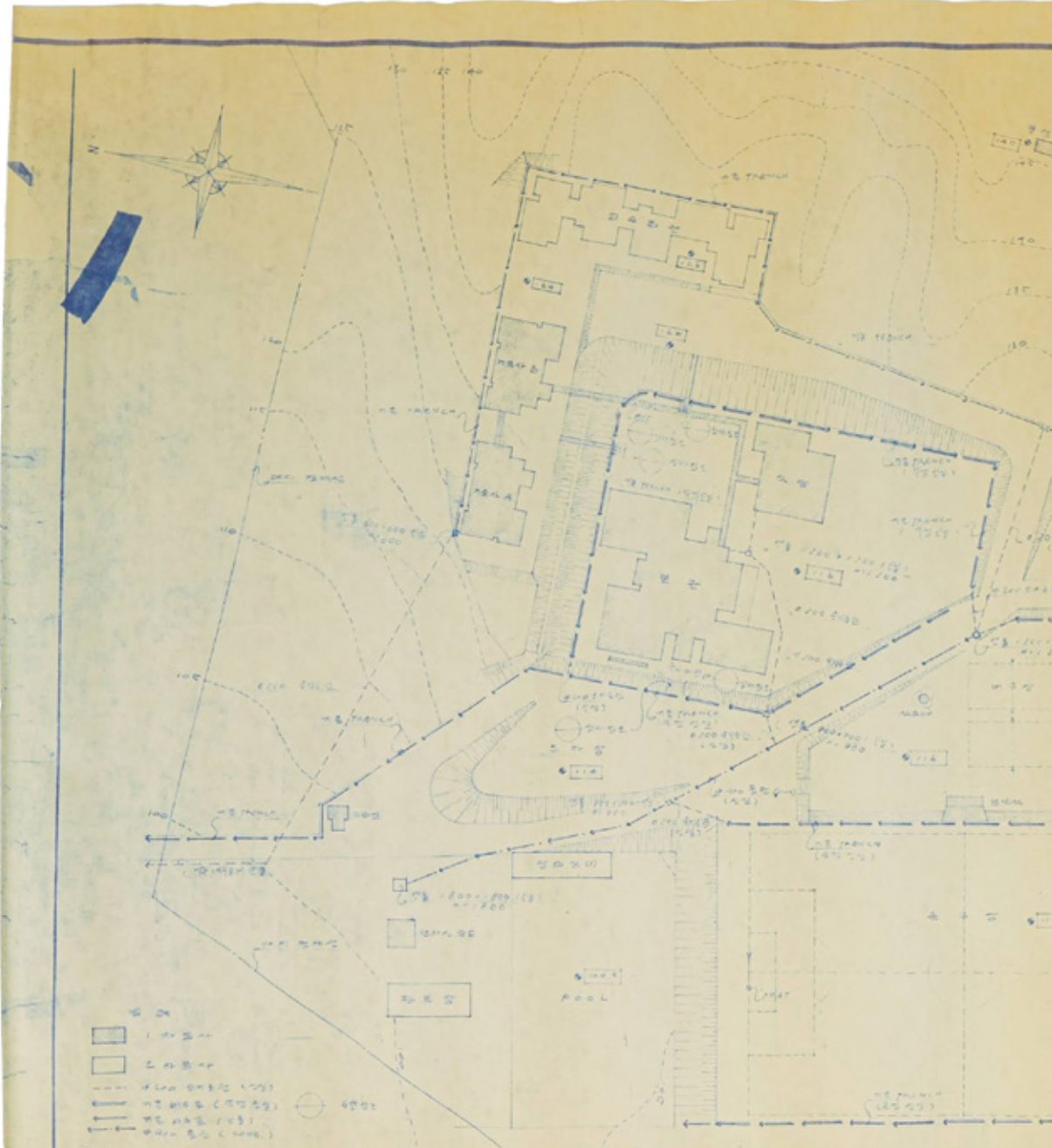
이제 내년이 되면 국제규모를 갖춘 수련장과 보수회관,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규모의 「청소년 종합수련장」으로써의 면모를 과시할 「수련장」에 가는 길에는 학생들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떠날다.

「마루마루 모습을 띠는 공사현장이 마치 특이한 이 자라나 는 어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젊은이」만 아니다.」고 말하는 이 곳주인 박태복씨 (46세)는 「비가 내리면 계속되는 공사에 자라니

생각과 지정이 앞선다.」면서 「이 지년의 8월 한달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개국 학생 20여명을 포함, 국내의 대학생 1백50여명이 국제 아열대사육장을 통하여 정지공사에 그들의 비취를 쏟았고, 어떤가 그들의 노력이 빛나지 않았는지 이제 9월이 된 완공될 이 대항에 「종합수련장」.

오는 8월 「조선의 산천에 스민 민족의 얼」을 순비하고 발표하는 3천여명의 KUSA 발원아들이 8월의 옥양속에 조목하여 「젊은이의 힘」을 과시하며 「젊은이의 힘」에 토정관을 이부계 밑이 곳 수련장을 보다 즐겁게, 그리고 보다 기쁘게 남다른 우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빛기 위한 준비를 틀러 리느라 마지막 단장에 힘치를 올리고 있다. (이천편사현정: 이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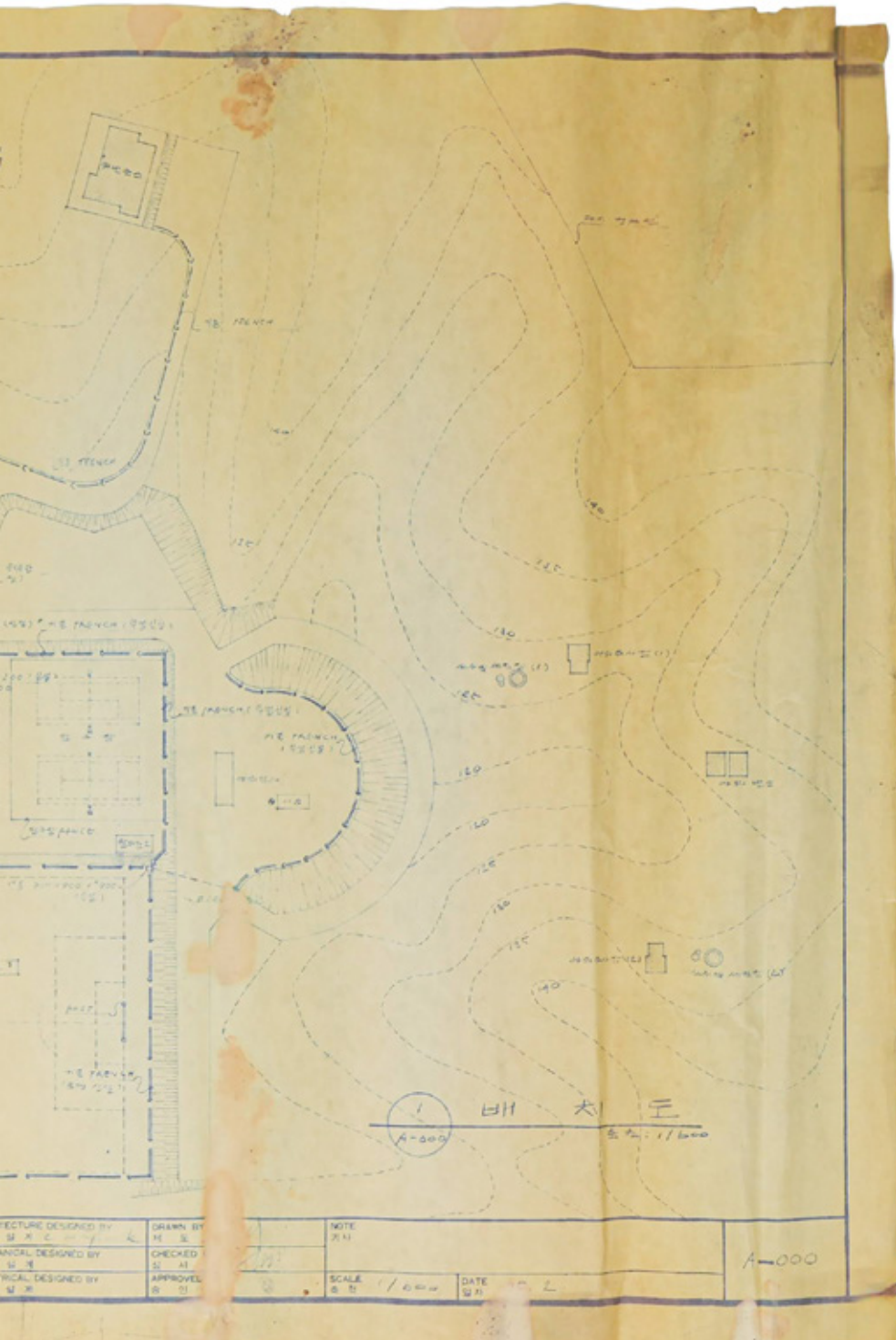
유네스코뉴스 200호 특별기획 취재 기사(유네스코뉴스 1975년 6월 11일)
한국 청소년활동의 획기적 전환점 될 "젊은이의 요람"- 이천 종합수련장이라는 제목의 유네스코뉴스 특별취재 기사. "74년 8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정지공사를 마친 이 수련장은 지난 2월부터 기본건물공사에 착수, 매일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尚志建築設計事務所
SANG JI ARCHITECT & ASSOCIATES

PROJECT NO. FY - 150
시공번호
PROJECT TITLE
12288 유네스코 대학생 종합수련장

NAME OF DRAWING
도면명
B11 K1 E
ARCHITECT
MECH
ELECT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심신을 연마할
활기찬 젊음의 터전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

건립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 증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회 규모가 크게 팽창되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는 고도로 문명화되어 갔다. 교육기술이 크게 발달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진 "사회적 유배의 강"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지역과 성도의 부족도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윤의 "자리의 공백"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변화속에서 청소년의 정서교육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지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5년부터 이러한 국내외 필요성에 부응하여 청소년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단체활동의 진흥, 여학생 고차교육장려, 청소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확립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유네스코 총회 (제13차)가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부 및 유네스코 국제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매우 맞추어 취한 조치적 조치였다.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 소개 책자 1975

청년원 준공 전인 1975년 한위가 발간한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 소개책자로, 건립의 필요성, 건립 개요, 운영 기본방침,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은 청년원 추진 당시 이름이었다. 표지에는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심신을 연마할 활기찬 젊음의 터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건립 개요

위 지 ⇨ 경기도 이천군 도립면 새곡리

부지면적 ⇨ 274,000㎡ (8만 3천평)

건축면적 ⇨ 4,196㎡ (1,270평)

수용능력 ⇨ 학생숙소 - 180명
교수숙소 - 30명
병 프 장 - 500명

교 통 관 ⇨ (기근교통관)

서울-이천 : 고속버스 (1시간 15분)

이천-수원장 : 시외버스 (15분)

(신설00집)

서울(봉자양리역) - 수원장 직행버스

지역의 특징 ⇨

- 도로망이 발달한 곳으로 차량으로 각도와 연결되어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에서 이천 인터체인저까지는 1시간대로 단축되었다.
- 동에는 여주군, 서에는 용인군, 북에는 평주군, 남에는 중록 읍면군이 밀려있는 경기도 남부지역이다.
- 여주와 더불어 양질의 쌀과 도자기의 생산으로 유명하다.
- 일선해원의 교외정원, 김홍도, 신라시대에 축조된 셋집, 애련정 그리고 이천총원이 있다.

운영 기본방침

- (가) 육체소요 한국위원의 사무처 안에 운영위원을 설치한다.
- (나) 회의 및 운영예산을 학교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 (다) 시외교수 및 전문기술료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 편성에 관한 사항을 만든다.
- (라) 대학장, 청소년지도자의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같은 목적의 명사에 장소를 제공하고 학내외의 및 국제교원 제외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사업 계획

● 자체사업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1) 청소년여가촌 훈련과정

단기, 중기, 장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최소 5일, 최대 3개월의 집중여가촌 훈련을 실시한다.

(2) 사회교육여가촌 훈련과정

거주과정과 방문과정으로 나누어 사회교육, 특히 육체소요가 적각 추진하는 평생교육의 중점, 확대를 위한 여가 확보에 주력한다.

(3) 청소년 직업적응교육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기 전에 있는 청소년의 직업적응교육 및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재훈련과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4) 대학생간부 연구과정

연구과정과 특수과정으로 나누어 대학생간부들의 지도력 함양, 국가관 확립, 단체활동 기술개발 등을 도모한다.

부지 조성공사



청년원 신축공사 앨범
1974-1975

호법면 국도변 안내판



건설공사 현장





완공된 청년원의 모습
1976
본관 전경 (위)
본관 서편 출입구 (아래)



본관 로비



식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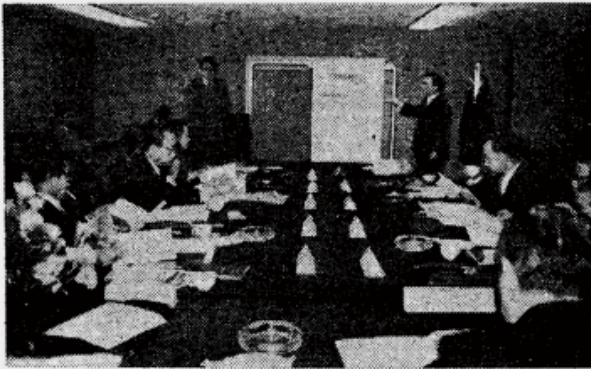
기숙사

본관 로비 (위)
식당 내부 (가운데)
기숙사 (아래)

『청년 수련원』 정식 발족

11일 집행위서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 청소년부의 기능 발전적으로 흡수통합

본위원회는 숙원사업이던 유네스코 대학생수련원을 새해부터 정식 발족시키고 교육과 학부의 과학업무를 자연과학과와 사회과학과로 분리, 강화시키는 한편 본위원회의 청소년부는 그 기능을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에 이관코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개최된 제86차 집행위원회>

11일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위원회의 제11차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직제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발족되는 유네스코대학생 수련원은 1명의 원장이며 수련원의 권리운영을 맡을 운영과(運營課), 수련사업의 기획과 집행용 맡을 연구과(研修課) 그리고 유네스코 학생협회(KUSA)를 지도할 학생협회과(學生協會課) 등 3개 부서를 두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사업을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온 많은 성과를 쌓은 본위원회청소년부는 발전적으로 폐지, 그 기능을 동 수련원에 이관시켜 더욱 강화된 새로운 체제로 새 차원의 청소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면의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국가발전에 대한 학술적 기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유기춘 위원장 자유중국 방문

본위원회위원장인 유기춘문교부장전을 자유중국정부의 초청으로



를 두루 시찰, 한·중양국 교육 교류증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유위원장의 이번 시찰방문에는 이대순문교부고등교육국장과 4명의 교수가 수행했다.

김규택사무총장 FISU집행위 참석

15일, 「우루과이」로 향할

본위원회 김규택사무총장은 19일부터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FISU(세계대학 「스포츠」 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키위

『사회과학협의회』

13일, 확대준비회의



△사회과학협의회 확대준비회의

“직제규정 개정안에 청년 수련원 정식 발족” 기사(유네스코뉴스 1975년 12월 17일)

“유네스코 대학생수련원” 준공에 앞서 1975년 12월 11일 한위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소년부의 기능을 “유네스코 대학생수련원”으로 이관했다.

대학생 수련원 2년만에 준공

「세미나」실·연수실등 국제규모의 수련시설 갖춰 연간 1만여명에 각종 연수·훈련「프로그램」실시

『유네스코 대학생수련원』이 2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 새해부터 정식 발족된다.

경기도 이천군 호남면 매곡리 10만평의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본격적인 청소년 수련의 장으로 등장한 수련원은 그동안 시설공사비만 약 3억원이 투입되어 본관을 비롯, 강당과 국제규모의 「세미나」실 각자 1개, 연수실 3개, 1백명의 수용할수 있는 현대식 학생숙소 2동, 1백50명 수용규모의 식당, 취침숙소, 2백명이 동시에 이용할수 있는 「레프」장과 축구·배구·「테니스」장으로 나누어진 운동장등을 모두 갖춘 종합적의 시설이다.

이 수련원의 발족을 계기로 본 위원회는 연간 약 1만명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국가권과 창의성 및 협동심등을 단체훈련을 통해 배양하기위한 갖가지 「프로그램」활동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지역의 청소년수련 및 연구활동의 장으로도 공개

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사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한다.

본위원회는 수련원의 정식발족을 계기로 「아시아」지역 유네스코협회연맹총회와 청소년정책연구 「세미나」를 오는 6월 중 수련원 국제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1차공사의 완공에 이어 2월부터 6월까지 2차공사에 들어가 30명수용규모의 교수회관과 편의식 「플」장을 건립하고 수련장전인도를 확장, 포장

가능한 한편 도자기공작실등 갖가지 창작 「프로그램」활동을 할수 있는 야외시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련원의 정식발족에 따라 본위원회는 수련원장에 본위원회의 김진원 교육과학부장을 임명 (당일) 하고 운영과장에 장운수 (총무부 부장제 2과장), 연수과장에 이광영 (청소년부 협회담당대리), 협회사업과장에 김정근 (청소년부 간사) 서장을 임명, 발령했다.

30일, 본위원회 창립 22주 기념식 직원표창·「리셉션」등 자축행사 갖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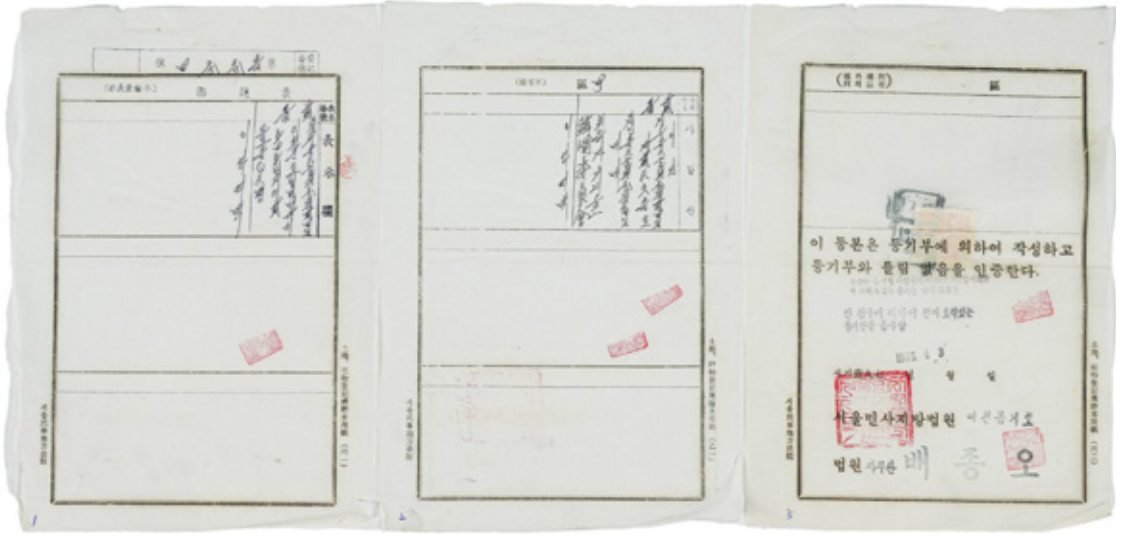
본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사무처에서는 이날 상오 10시 기념식을 갖고 유공직원들 표창한다.

기념식에 이어 이날 하오 6

시부터 포욕·파마·문화계인사및 후원회프사들등 본위원회직원들 참여하고있는 자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 「리셉션」을 베풀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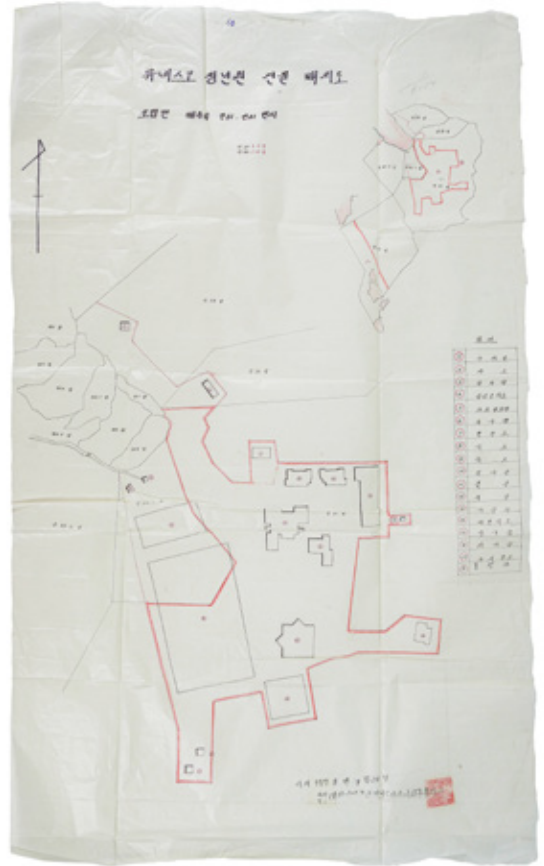
“대학생 수련원 2년만에 준공” 기사(유네스코뉴스 1976년 1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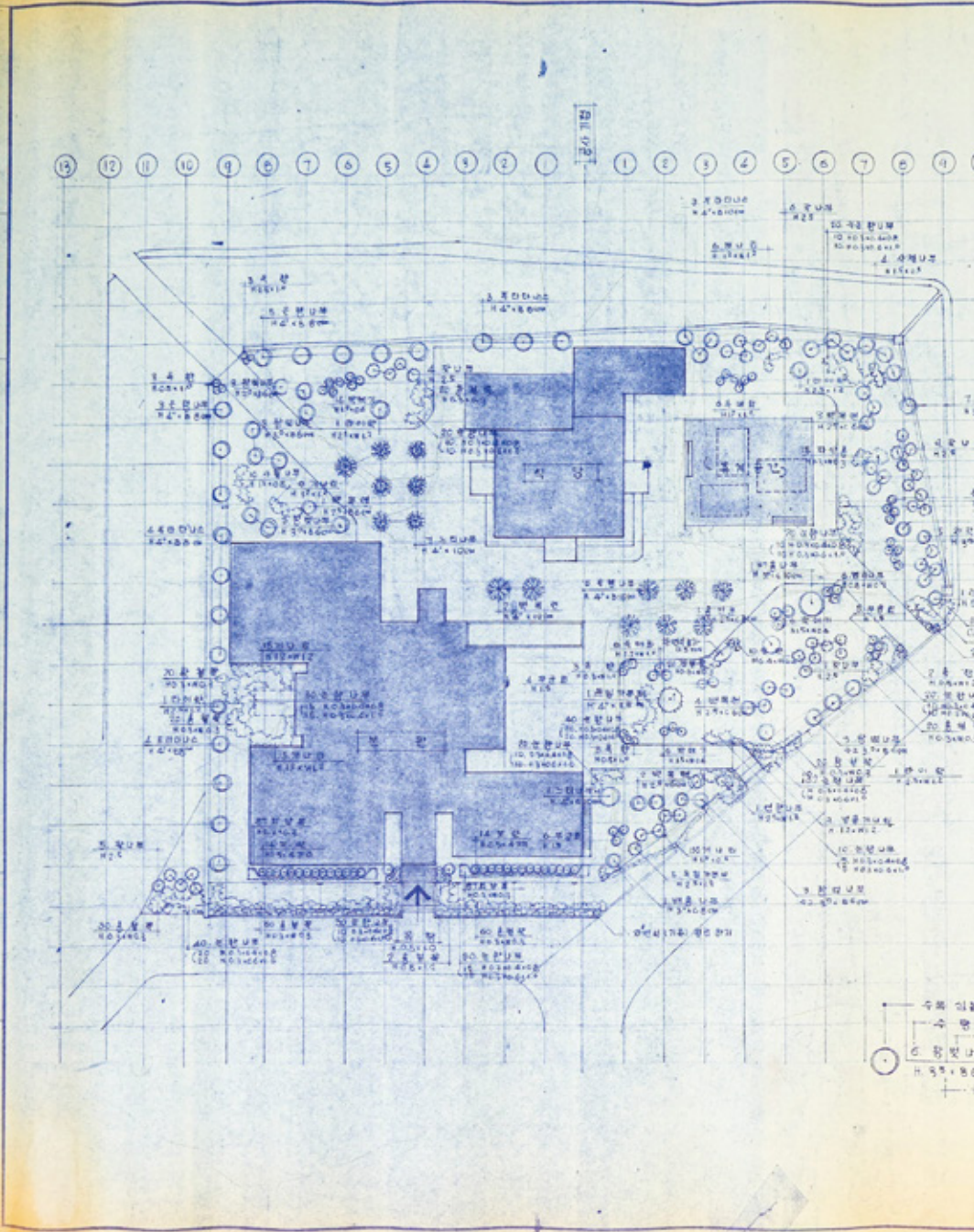


유네스코 청년원 등기부등본
1975.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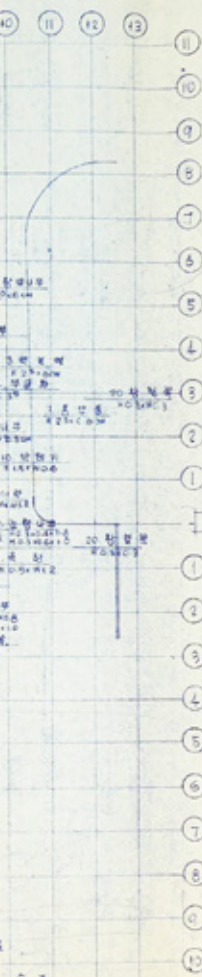


유네스코 청년원 등기부등본 건물배치도
1978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 조경 공사 도면
1977



수목수량표

수목종	구	적	개	수	비고
노린 나무	H4' x B 10"	주	8		
복리 나무	H4' x B 8"		14		
은행 나무	H4' x B 8"		8		
은행 나무	H4' x B 15"		6		
완월 나무	H3' x B 6"		22		
지학 나무	H3' x B 5"		5		
복리 나무	H4' x B 15"		1		
은행 나무	H3' x B 10"		1		
은행 나무	H3' x B 8"		1		
완월 나무	H2"		91		
복리 나무	H2.5' x B 12"		5		
복리 나무	H2.5' x B 6"		13		
복리 나무	H4' x B 10"		2		
은행 나무	H2.5' x B 6"		2		
은행 나무	H2.5' x B 12"		1		
은행 나무	H2.5' x B 12"		7		
은행 나무	H1.8"		23	구식	
은행 나무	H1.5' x B 3"		14		
은행 나무	H1.2' x B 12"		51		
은행 나무	H1.5' x B 6"		36	구식	
은행 나무	H1.7' x B 12"		12		
은행 나무	H1.2' x B 6"		15		
은행 나무	H1.0' x B 12"		2		
은행 나무	H1.5' x B 6"		105		
은행 나무	H1.5' x B 12"		105		
은행 나무	H1.0' x B 12"		16		
은행 나무	H1.1' x B 6"		150	부종	
은행 나무	H1.2' x B 7"		6		
은행 나무	H1.0' x B 8"		6		
은행 나무	H1.0' x B 4"		10		
은행 나무	H1.0' x B 12"		12		
은행 나무	H1.3' x B 9"		23	구식	
은행 나무	H1.3' x B 7"		100		



DESIGNED BY	DATE	
CHECKED BY	DATE	
APPROVED BY	DATE	
GATE	REVISION	BY

UNESCO
대리생수련원
부대시설, 조경
및 시설개수공사

서인
SEOINN
DESIGN GROUP

PLAN	부대시설, 조경, 배치도
SCALE	1:300
JOB NO.	DRAWING NO.
	L-3

새 청년상의 창조에 주력

<청년수련원> 연수목표·계획·일정등확정 7월18일부터 10회, 1천5백명에 훈련 실시

본위원회는 오는 9월 정식 개관될 <유네스코청년수련원(경기도 이천소재)>의 본격적인 연수사업 실시에 앞서 오는 7월18일부터 1주일간 유네스코 학생회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험과정을 개최한다. 『새청년상의 창조』를 연수이념으로 하고 있는 <수련원>의 연수과정은 ①국가관에 부합한 청년 ②자유 개척의 기상인 청년 ③도덕을 수련하는 청년을 연수목표로 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수련원> 연수사업의 대표적 운영을 위해 1주일간 3차의 자문회의를 개최, 연수과정의 목표와 초안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고 연수프로그램 운영방안도 정하여 31일 확정했다.

<수련원>의 연수과정은 "새로운 청년상", "청년에게 바란다", "청년의 애지" 등을 주제로 한 자문인사추천장안과 "국수화 제작술의 청년",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신조"를 위한 "지도자의 길", "신장인의 퇴장" 등을 포함 10회 강의, 그리고 참가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스스럼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목표달성에 중요치었다.

운영인원 모두 10회에 걸쳐 1천5백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의 개최를 예정인 <수련원>의 연수계획을 확대해서 1주일간 개최된 연수「실험과정」은 5차 6일의 과정과 원수의 활동의 단과과 과목을 정하여 자기수련의 경험을 쌓고 새로운 자

아가 발전하는 새청년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위원회는 오는 7월18일부터 시작될 제1차 연수과정은 유네스코 학생회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험과정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전국 일일인 청년과 대학생 등 10회 계속 1천5백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이 기간에 포항 연수과정은 이 기간에 연수과정과 함께 연수과정은 유네스코 학생회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험과정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전국 일일인 청년과 대학생 등 10회 계속 1천5백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수련원>의 연수 과정에는 소수 학과 대학의 추천과 승인을 받은 연구원도 참가할 수 있다.

개관 첫걸음을 위한 운영의 <수련원>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제 1 차 : 7월18일~23일
- ▲제 2 차 : 7월25일~30일
- ▲제 3 차 : 8월15일~20일
- ▲제 4 차 : 8월29일~9월 3일
- ▲제 5 차 : 9월 5일~10일
- ▲제 6 차 : 9월19일~24일
- ▲제 7 차 : 10월 3일~ 8일
- ▲제 8 차 : 11월 7일~12일
- ▲제 9 차 : 11월14일~19일
- ▲제10차 : 11월28일~12월 3일

<매회 1백50명 대상>

16일, 92차 집행위원회 개최

추경예산안·운영 규칙 개정안등 심의

본위원회 제92차 집행위원회가 오는 16일 화요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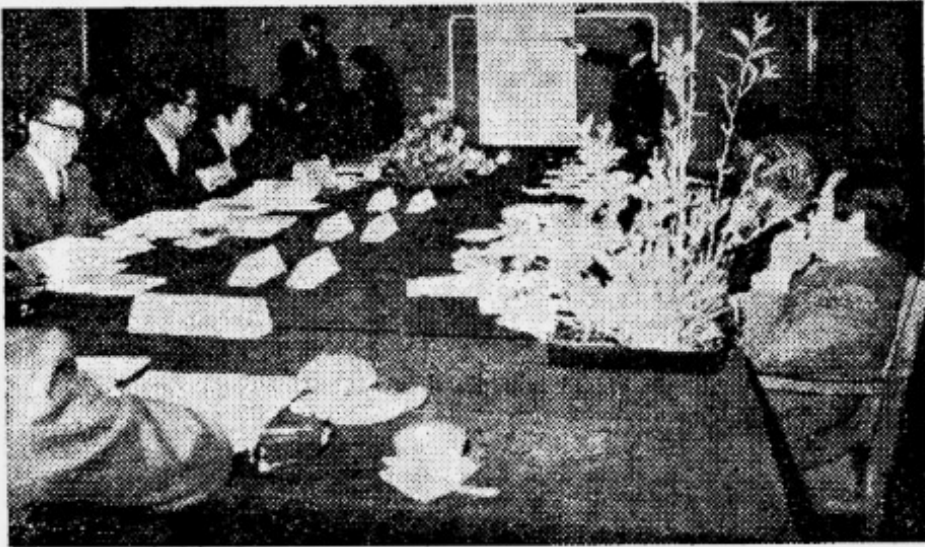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본

위원회사무처 운영규칙등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유네스코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문제도 논의한다.

시험사업기사(유네스코뉴스 1977년 5월 3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청년연수원의 정식 개관에 앞서 1977년 7월 18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총 1,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 실험과정을 운영했다.

이천 수련원의 공식 명칭 『유네스코 청년원』으로 결정



◇16일 개최된 제92차 집행위원회

지난 6월 16일 개최된 본위원회 제92차 집행위원회는 경기도이천에 건립한 수련원의 공식 명칭을 <유네스코청년원>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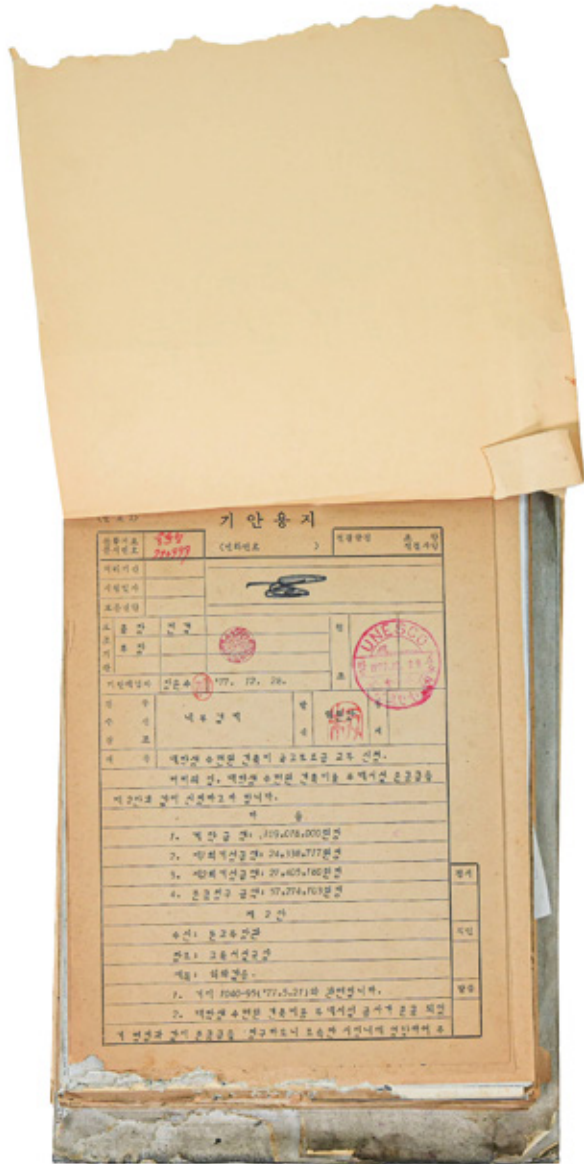
문화주부위원장주재로 열린 이날 집행위원회는 피교육적 인상을 주는 <수련원>보다는 청소년학생들이 스스로의 수련도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하기 위해 <청년원>

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같이 확정했다.

또한 이날 집행위원회는 7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무처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청년원>의 교수직제 신설등을 골자토하는 사무처직제중 개정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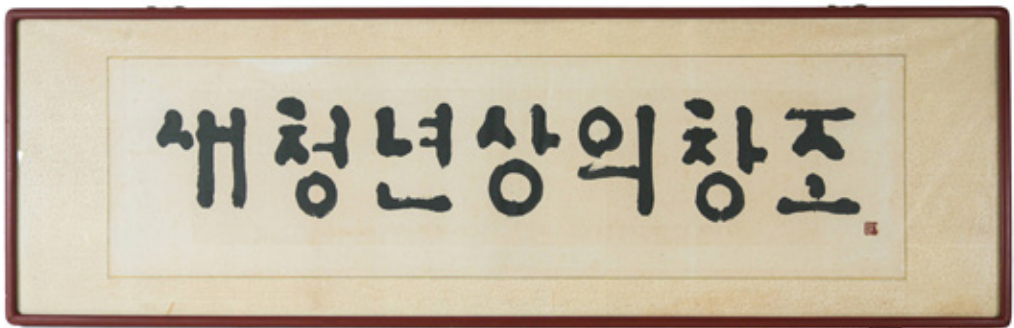
청년원명칭확정기사(유네스코뉴스 1977년 6월 22일)

1977년 6월 16일 제92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천 수련원의 공식 명칭을 “유네스코 청년원”으로 결정했다.



**대학생수련원 건축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977**

1977년 12월 2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청년원 부대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건축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



“새 청년상의 창조” 서예 작품(서예가 김충현 글씨)

1977

유네스코 청년원의 설립 목표인 “새 청년상의 창조” 문구를 담아 제작한 액자. 서예가 김충현의 서예 작품으로 유네스코 청년원의 상징물과 발간물 표지에 사용되었다. 청년원의 기념탑에도 이 글씨를 새겨 부착했다.

Part II.

미래를 내다보며
청년의 꿈을
구현하다

- 미래를 열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다
- 조국순례의 대행진을 열다
- 세계와 만나 함께 교류하다
- 청년 연구와 청년 정보망의 초석을 닦다
- 세계시민을 키우다



미래를 열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다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연수과정은 1978년 단기과정이 개설된 후 1979년 본 과정, 1983년 통합과정, 1984년 추수과정, 1994년 단기과정이 개설되었다. 청소년기관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종교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국의 민간 청소년단체 실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연수과정은 1978년 단기과정이 개설된 후 1979년 본 과정, 1983년 통합과정, 1984년 추수과정, 1994년 전문과정이 개설되었다. 본 과정은 각각 다른 주제로 구성된 4박 5일, 4개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논문을 제출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당시 청소년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의가 일반적이었던 교육방법에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하는 체험학습, 예술작업을 도구로 하는 집단활동, Youth Map 제작을 통한 지역사회분석 등을 도입하여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학습자 중심의 연수진행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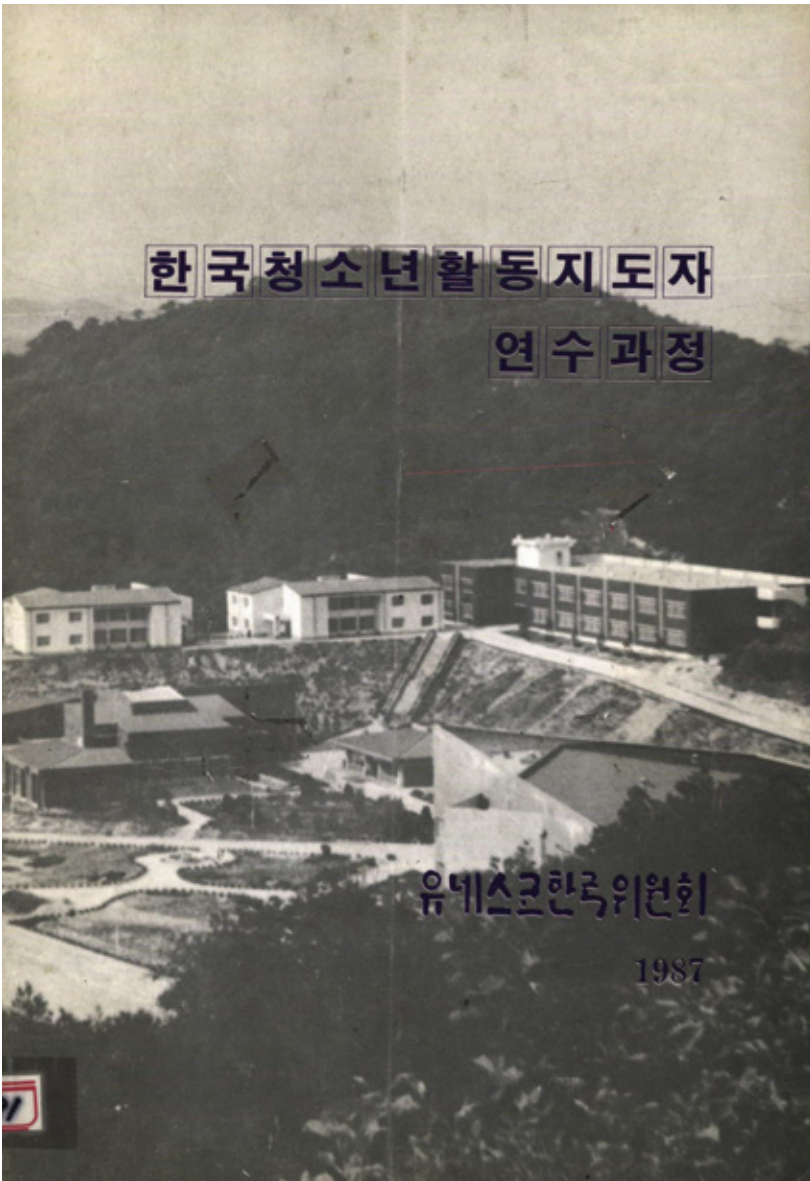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청년원은 1977년 대학생 연구과정을 시작으로, 1978년 청소년 연수과정, 1994년 청소년 자원활동 연수과정 등을 잇따라 개설하였다. 1965년에 개최된 '제1기 유네스코학생 씬머스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학생 연수과정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청소년 연수과정은 1978년부터 1996년까지 50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수과정은 장애 청소년, 근로 청소년과 농어촌 청소년과정, 보호처분 분류심사 중인 청소년과정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직업훈련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 단체사진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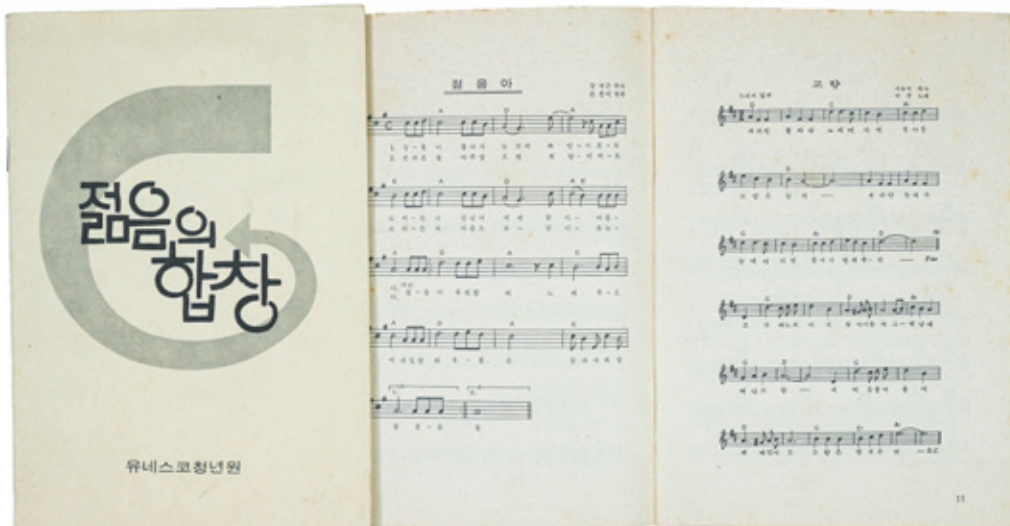
제11차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증 표지 및 내지
1980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안내책자
1987



<청소년과 함께>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교재
1987, 1990,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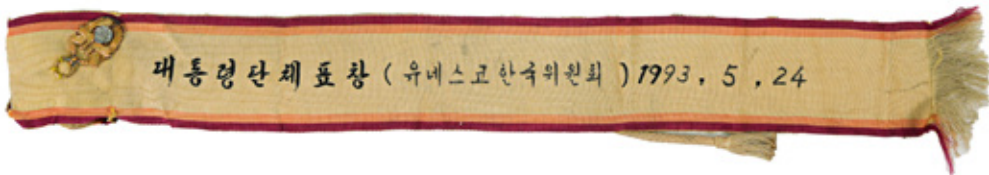


젊음의 합창 악보집(손춘석 작곡 노래 등)
1979

청년원 연수교재로 사용된 악보집으로 청년원 연수생들은 점심식사 후 오후 교육을 받기 전 “마음을 모두어”라는 시간에 악보집의 노래를 배우고 함께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청소년활동 지도자연수과정 실습자료 및 참고자료
1994



청소년지도육성 대통령단체표창
1993
청소년 지도육성 공로를 인정 받아 수여 받은 대통령 단체표창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패

1996

1996년 법무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유네스코 청년원에 요청했다. 교육은 1996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당시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됐으며, 청년원 연수와 소속 지도교수 전원이 3박4일 간 이곳에서 합숙하며 분류처분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연극, 합창, 시화 등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발표회는 심사원에 수용된 700여 명의 전체 청소년들과 직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열렸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이 담긴 사연이 발표될 때면 발표회장은 눈물 바다가 됐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청년원 교수(가죽) 일동 앞으로 수여한 감사패다.

유네스코학생지도자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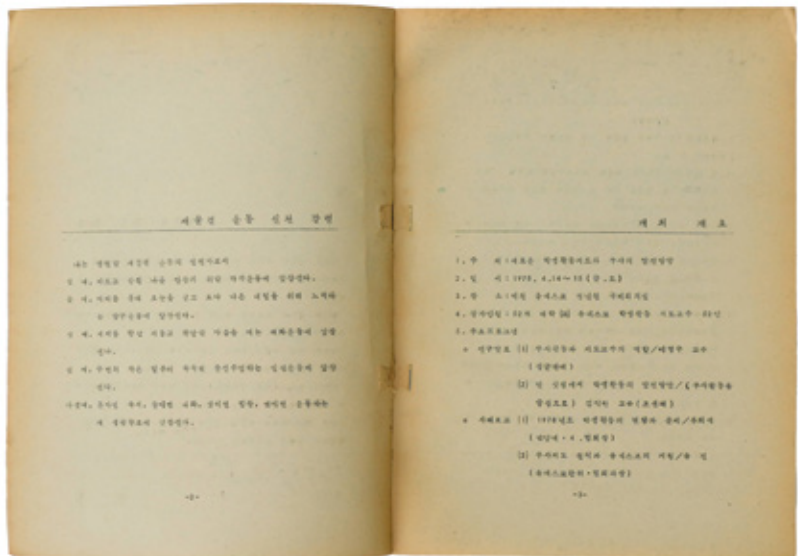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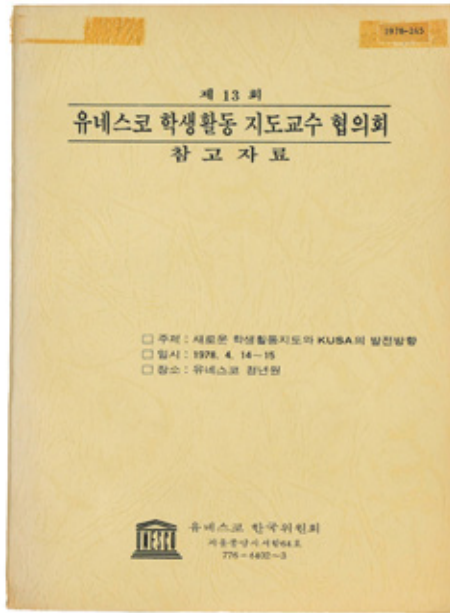
제22기 유네스코학생지도자 교육과정(1978)



제22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교육과정 수료증
1978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학생 지도자 교육과정(1965~1994), 새물결 전국대회(1967~1991), 유네스코학생회 회장단 연수회(1968~1991) 등을 개최하여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제13회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
참고자료
1978
표지(상)
내지(하)





유네스코 청년원 연수교재

1981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만남·삶·청년>(1980), <새물결운동>(1980), <청년·역사·세계>(1981)

1980-81

유네스코 청년원 연수과정의 참가자를 위해 발간한 독서자료 시리즈(1-3권)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새물결> 제28/29기 유네스코학생 지도자교육과정 일일신문
1982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유네스코와 학생활동

1994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의 학생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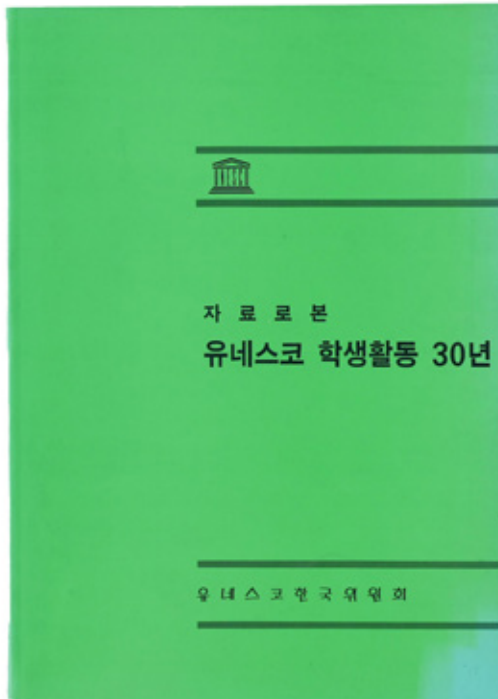


자료로 본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

1997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1965-1995)을 정리한 자료다.



2004 새물결한마당
 안내책자 표지와 내지
 2004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행사개요

발 사 일	2004 새물결한마당
목 적	15만(2003년)명의 동문회와 상호간의 벽을 넘는 계층 마련한다. 15년주제간의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협력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유네스코학생회와 학회를 인제하고 양관양안을 표제한다.
주 제	우리는 영원한 새물결운동의 실천자
일 차	2004년 9월 12(일) ~ 13(일) (9:00 ~ 17:00)
장 소	이천 유네스코과학원(유네스코과학원) 및 광주·이천 일원
참가대상	유네스코학생회 동문 및 가족
주 최	각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회장단 및 후원인사
주 보	2004 새물결한마당 준비위원회
주 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이동행위연구소 각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동문회

새물결행진 도정 개요

행진거리 : 약 30km
 기 간 : 9월 12~13일
 참가인원 : 약 100명

조국순례의

대행진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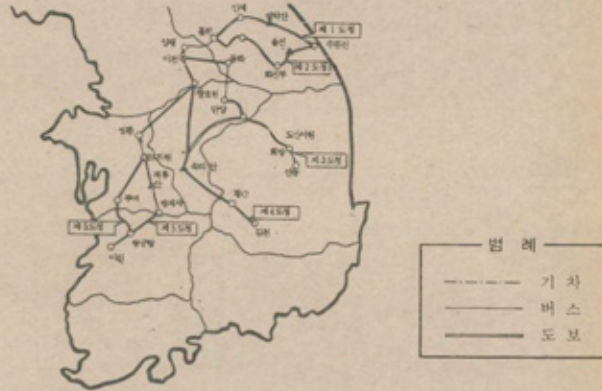
청년원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한 행사로 조국순례대행진을 꼽을 수 있다. 1974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1,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걸어서 돌며 국토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조국순례대행진은 학생들이 몇 개의 코스로 나뉘어 출발해 최종 목적지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청년원은 많은 경우 조국순례대행진의 최종 합류지이기도 했다.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한 유네스코학생회 학생들은 청년원에서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꿈꾸었다.



조국순례대행진 자료철(1974-1987)

제 9 회 조국순례대행진

- * 주 제 : 조국, 이 땅에 살으리라
- * 참가인원 : 전국 66개 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원 1,236명
- * 일 자 : 1982.8.4-8.16
- * 합류지 : 유네스코 청년원 (경기도 이천)
- * 축 제 : 새물결 100년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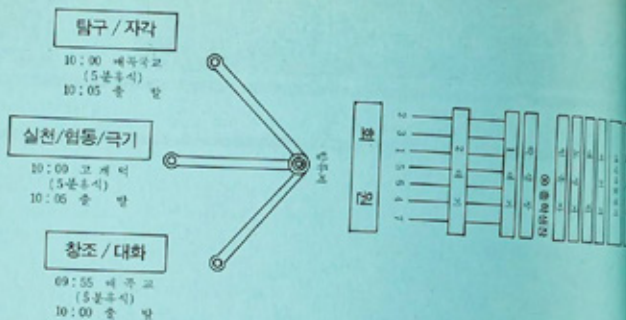
- 1도정 (자각) : 주문진-양양-설악산-원풍-린계-홍천-양평-광주-청년원 - (도보 : 196km, 승차거리: 52km, 총거리: 248km)
- 2도정 (탑구) : 주문진-진고개-오대산-국립공원-봉평-서석-화천-홍천-양평-광주-청년원 (도보: 193km, 승차: 52km, 총거리: 245km)
- 3도정 (대화) : 안동-예산-부석사-소수서원-희명사-죽령-고수동굴-신록사-이천-청년원 (도보: 211km, 승차: 84km, 총거리: 295km)
- 4도정 (협동) : 직지사-황간-대월-화엄이재-범주사-피산-무극-상호원-청년원 (도보거리: 192km)
- 5도정 (실천) : 이리-황궁담-대치-행계사-연산-신도안-계룡산-갑사-조치원-안성-청년원 (도보: 175km, 승차: 45km, 총거리: 220km)
- 6도정 (창조) : 이리-황궁담-미륵산-강경-임천-부여-공주-조치원-안성-백암-청년원 (도보: 181.5km, 승차: 45km, 총거리: 226.5km)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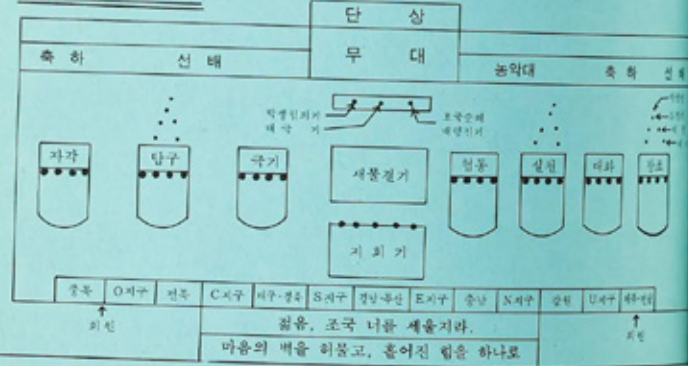
제9회 조국순례대행진 도정(1982)

1982년 제9회 조국순례대행진 개요. 1982년 8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6개 대학 총 1,236명의 유네스코학생회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6개 도정(경로)로 나누어 출발해 이천 청년원에 집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6개의 코스는 전 과정을 모두 걸어서 이동하는 코스도 있고, 주로 걸어서 이동하되 일부 구간은 버스와 기차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코스도 있었다.

● 합류 행진도 ●



● 기념식장 배치도 ●



● 합류 및 광복절 기념식 ●

- 1. 개회식
- 1.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봉창
 - 순국 선인에 대한 묵념
- 1. 국민교육헌장낭독(경기도 교육감)
- 1. 새물결 운동 헌장 및 실천 강령 낭독
- 1. 합류보고(합회장)
- 1. 지사(문교부 장관)
- 1. 표창(문교부 장관/사무총장)
- 1. 감사패 전달(합회장)
- 1. 조국 순례 대행진기 반납(사무총장)
- 1. 내빈소개
- 1. 조국 순례 대행진기
- 1. 폐식

● 일정 안내 ●

- (8월 15일)
- 10:00 합류
 - 11:00~12:00 합류 및 광복절 기념식
 - 12:00~14:00 숙원준비/정식준비
 - 14:00~15:00 전국대회 대회장
 - 15:00~18:00 연속대행진/후회
 - 18:20:00:00 저녁식사
 - 20:00~23:00 기념축회
 - 23:00~24:00 조국헌법과 서훈장 수여 100년을 위하여
- (8월 16일)
- 00:00~07:00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된 힘을 하나로
 - 07:00~10:00 아원개식/정리
 - 10:00~11:00 폐회식

제 10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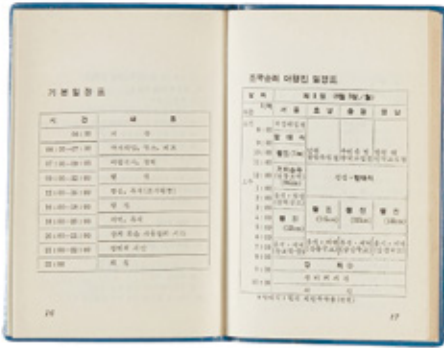
조국 순례 특약진 보고서

기간 : 1983. 8. 4 - 8. 16.

도정 : 전국 7개 도정

학부 : 유네스코 장년원

주 소 : 유 네 스 코 학 회 위 원 회
주 임 : 학 회 유 네 스 코 학 연 령
주 정 : 유 네 스 코 학 연 령



조국순례대행진 수첩

1970-80년대

조국순례대행진 당시 참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조국순례대행진 수첩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조국순례대행진 명찰

1970-80년대

조국순례대행진 당시 참가 학생들이 착용한 명찰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제 12 회
조국순례대행진
〈행사안내 및 협조처 협조사항〉



주 제 : 가슴에는 조국을, 눈으로는 세계를 /
기 간 : 1985. 8. 4~8. 16
장 소 : 전국일원(5개도점)
합 류 :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이전)
참가자 : 전국 각 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원 및
일반대학생 1,750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제12회 조국순례대행진 행사안내 및 협조처 협조사항
1985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조국순례대행진 티셔츠

1970-80년대

조국순례대행진을 기념하여 제작된 하계 티셔츠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조국순례대행진 모자

1970-80년대

유네스코학생회(KUSA) 총동문회 소장



제13회 조국순례대행진
1986



제13회 조국순례대행진
1986





조국순례대행진 합류식

1986

청년원 잔디 축구장에서
조국순례대행진 완주를
자축하며 대행진 기간
동안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하늘 위로 힘껏 던져
올려 조국순례대행진
완주 세러머니를 하는
참가 대학생들

세계와 만나

함께 교류하다

청년원에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렸다. 1966년 청년의 참여와 교류를 위해 시작된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는 1979년부터 국제 문화 교류 촉진이라는 취지로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 약칭 IYC)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2008년까지 열렸다. 한편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외 국제자원활동의 국내 캠프 성격을 띠며 2016년까지 청년원을 거점으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9년 정부에 해외 파견 청년봉사단 구성을 건의해 평화, 발전, 참여를 기본 이념으로 인류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국가 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해외청년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s)을 창설하였다. 최초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48명의 청년들은 청년원에서 합숙하며 사전 교육을 받았다. 청년원에서 합숙 교육을 받은 제1기 단원들은 1990년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4개 나라에 파견되어 의료, 직업기술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되어 계속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년원은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 교사 간 영어 교수 능력 향상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개최된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910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청 소속 교사 152명이 연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원에서 합숙하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1981-318
C.2



1981년도
사우디 아라비아 청소년 방한 연수단
보고서

تقرير تقبيعي عن بعثة الشباب السعودي لدى جمهورية كوريا

주 회 : 대한민국 문교부
الهيئة المسئولة : وزارة التربية والتعليم الكورية
주 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원
اللجنة المسئولة : لجنة يونسكو الكورية

1981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 방한 연수 보고서



**제16차 국제야영봉사
1981**

국제야영봉사(IWC, International Work Camp, 1966~1978)는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1966년 8월에 외국 청년 19 명과 한국 청년 40명이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 사무총장 청년원 방문
1982**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이후 32년 만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음보 사무총장은 1982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방한 기간 중에 유네스코 청년원을 방문해 청년원의 시설을 둘러 보고 기념식수를 했다.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 사무총장 청년원 기념 식수
1982**

한일 청소년 축구 시합

기념트로피

1983

1983년 3월 청년원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축구경기에 참가한 일본 시즈오카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해 청년원에 전달한 트로피



한일 청년 친선교류

1990

1990년 일본 총무청 일본 청년 방한단의 청년원 방문 선물(한일 청년 친선교류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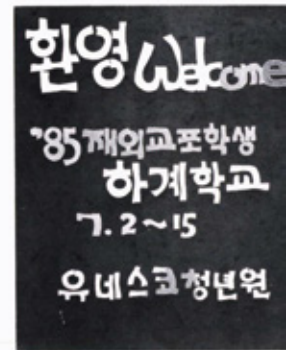
하계 학교의 이모저모



국제공항도착 (Arrival at the Kimpo International Airport)



유네스코 청년도착 (Unesco Youth Centre)



국립묘지방배 (National Ceme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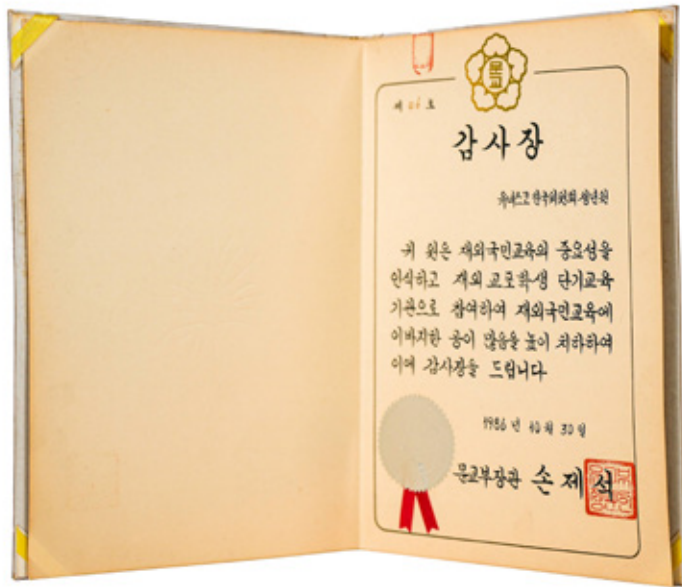
등록 (Registration)

재외교포학생 하계학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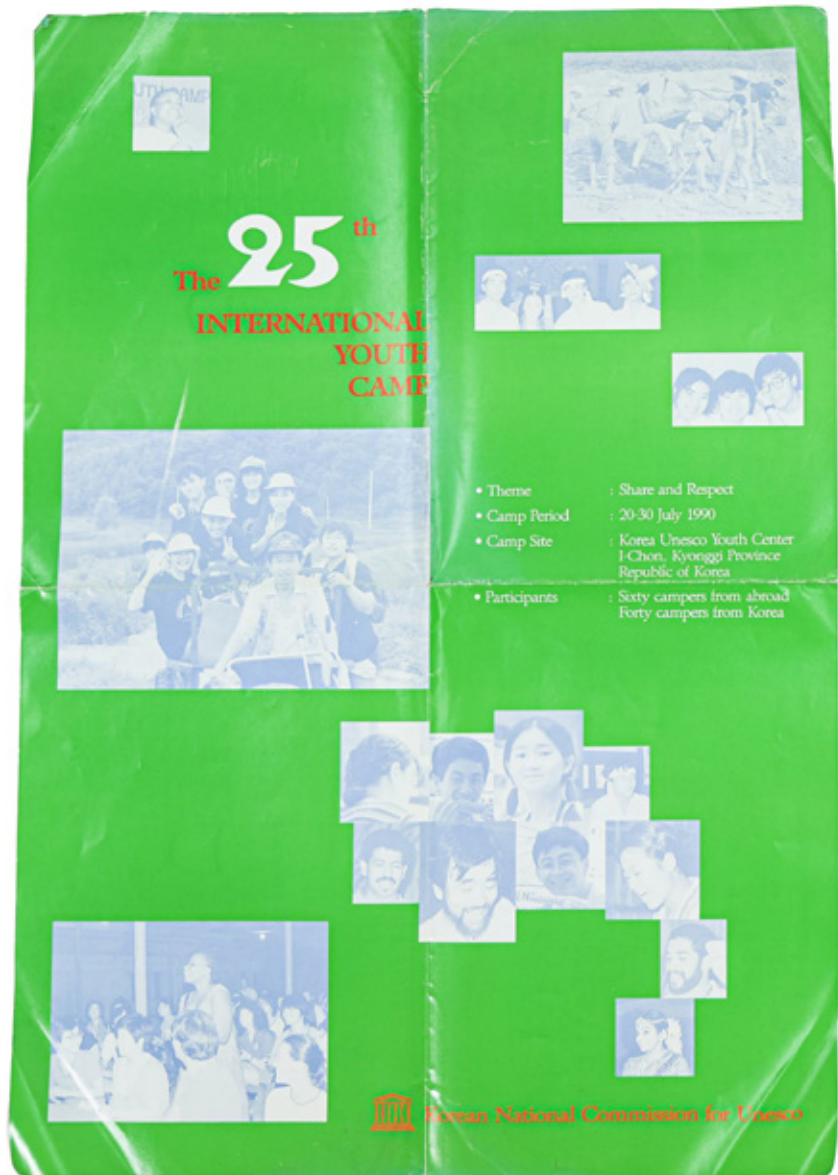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재외교포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문교부가 실시한 재외교포학생 하계학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1985년 하계학교는 7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00명의 교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열렸다.

재외국민교육 문교부장관
 감사장
 1986
 1986년 문교부(현
 교육부) 장관이 재외
 교포학생 단기 교육을
 실시한 공로로 청년원에
 전달한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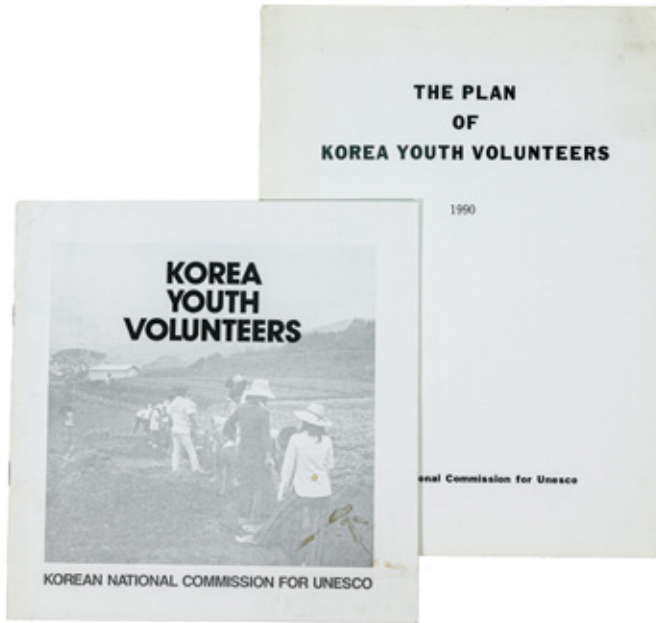


제22차 국제청년야영
 Peace Road 기념패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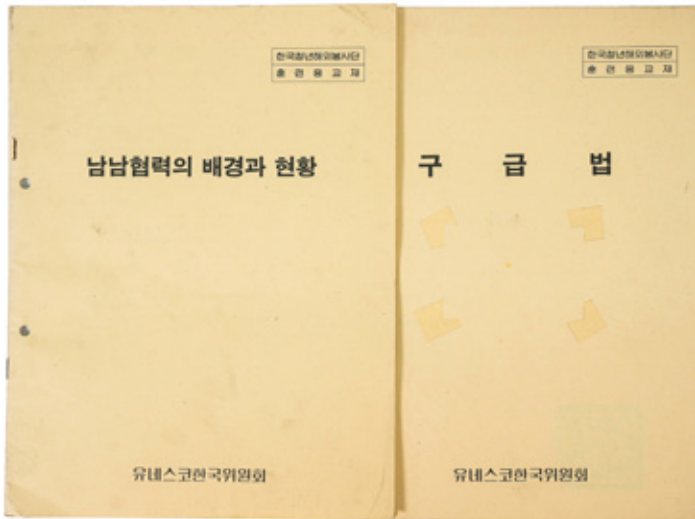


제25회 IYC 포스터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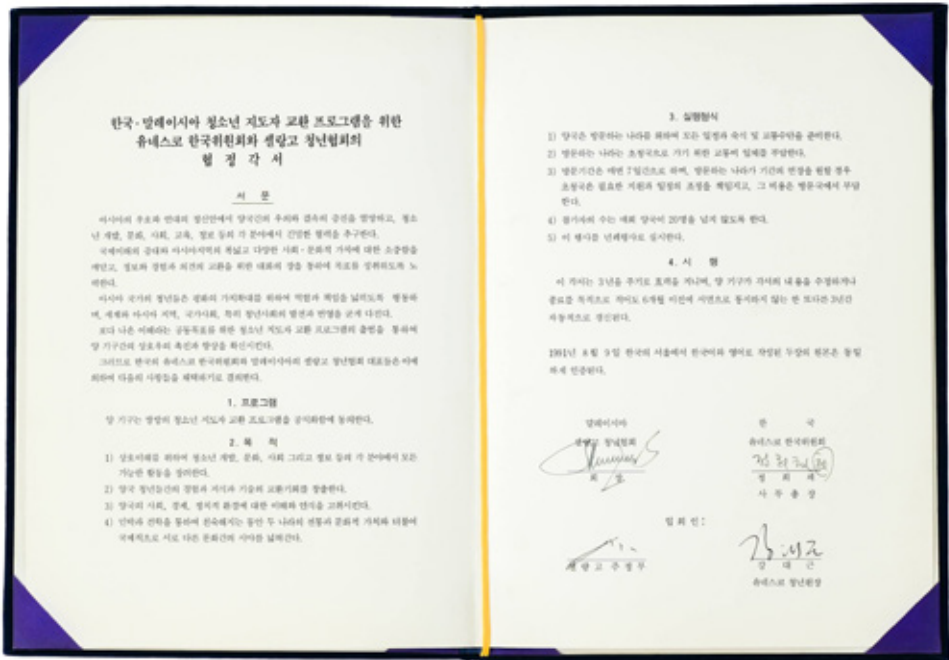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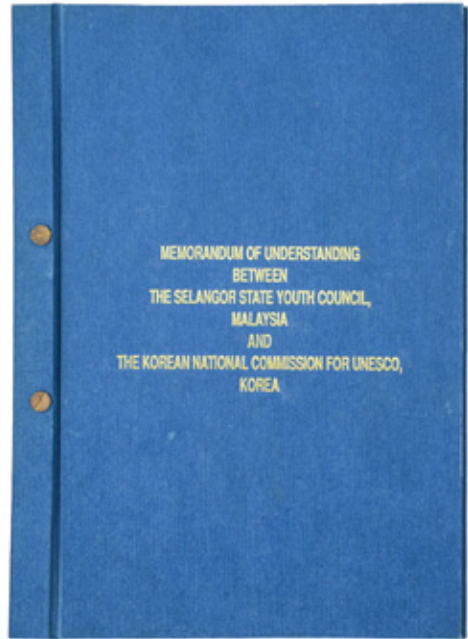
**KOREA YOUTH VOLUNTEERS(한국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요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요와 운영계획을 담은 책자로 199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을 창단하고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2기 단원까지 훈련하고 국외 파견하였다.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로 사용된 남남협력의 배경과 현황(왼쪽), 구급법(오른쪽)
1990**

한국-말레이시아 청소년
지도자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셀랑고 청년협회의 협정 각서:
영문본 표지와 한글본
1991



**한-말레이시아
청소년지도자 교류
기념패**

1991

1991년 유네스코
청년원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청년회 간
청년 지도자 교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셀랑고르
청년회가 청년원에
전달한 기념패





유네스코 청년원 전경이 담긴 백자 (앞, 뒤)

1993

유네스코 청년원 전경을 담은 스케치와 “역사와 젊음을 위하여 1993년 봄 유네스코 청년원” 글씨가 들어 간 도자기 (강대근 글, 그림)



국제자원활동 파견자 훈련 워크숍
1999

다모 " 국경을 초월한 젊은이들의 만남이 있는 곳 "

젊음의 집
여기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내일을 향해 열린 집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과 수련의 열린 공간,
장르와 도량의 구분 없이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각종 이벤트
유네스코 청년원운 각종 레크리에이션 지도 및
음악, 무용, 연극, 도예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을 이용하시려면
• 모든 종류의 모임, 회의, 세미나, 훈련, 대회 등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 청소년 정보자료센터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위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0여년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 시설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책거리 889-1
- 규모 : 부지 75,000평
- 이용 연세 : 청소년 및 일반 단체
- 이용 기간 : 연중 무휴

시설면적

대강당	400평 (간실)
관객실	200평 (간실)
150평 (간실)	
80평 (간실)	
50평 (간실)	
아학 실습실	90평 (간실 10칸)
숙학 시설	900평 (간실 10칸)
1500평 (간실 10칸)	
홀 500평	
세미나 회의실	75~150평 (간실)
식당	250평 (동식 1차)
체육 시설	축구장 (인조), 배구장, 테니스장, 탁구대
여과 탱크장	200평
엘프 회의장	200평

세미나 회의실, 축구장 (인조), 배구장, 테니스장, 탁구대
여과 탱크장 200평
엘프 회의장 200평

◆ 그 외에 청년원 주변 산책로와 인근 지역의 행사 지도가
공유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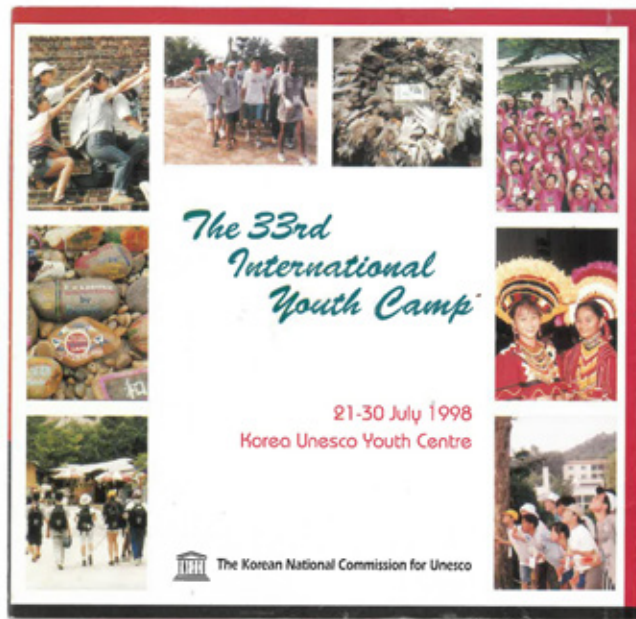
경기도 호법면 호법면 책거리 889-1
TEL : 033(94) 638-9051 FAX : 033(94) 638-9057
http://youth.unesco.or.kr

유네스코 청년원
KOREA UNESCO YOUTH CENTER

모시는 집

**청년원 신문광고
2000**

“국경을 초월한 젊은이들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제하로 청년원 시설 대관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에 게재한 지면광고.
“연수원은 유네스코활동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청소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자체 사업 외 기간에는 일반
시민들의 행사를 위해서도 개방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제33차 국제청년야영 안내책자
1998



제36차 국제청년야영
2001

1971년 시작된 국제야영봉사는 1979년부터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청년야영(ICY)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8년까지 열렸다. 국제청년야영은 2011년부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 Camp)라는 새 이름으로 해외 국제자원활동의 국내 캠프 성격을 띠게 됐다.



IYC 글씨 접시

연도미상

국제청년야영(IYC)의 주제 글귀 “Peace in Mind”(마음의 평화)을 넣은 접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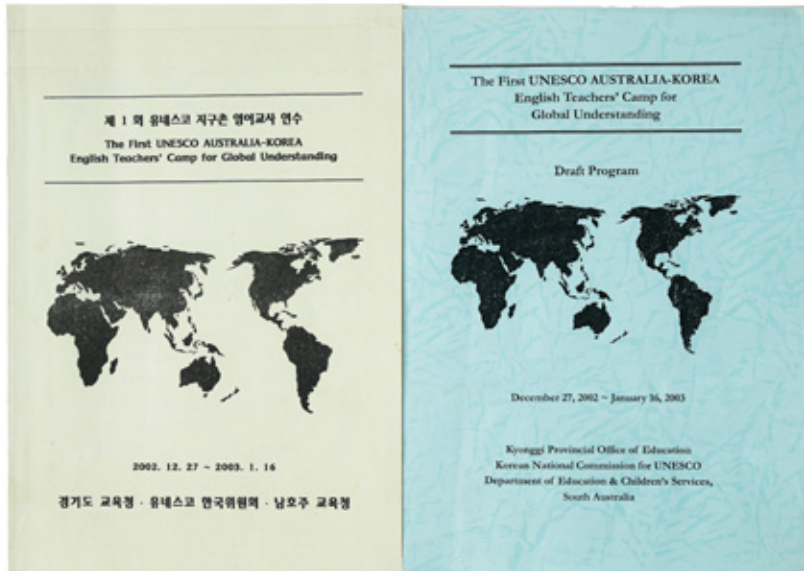
제42차 국제청년야영
2007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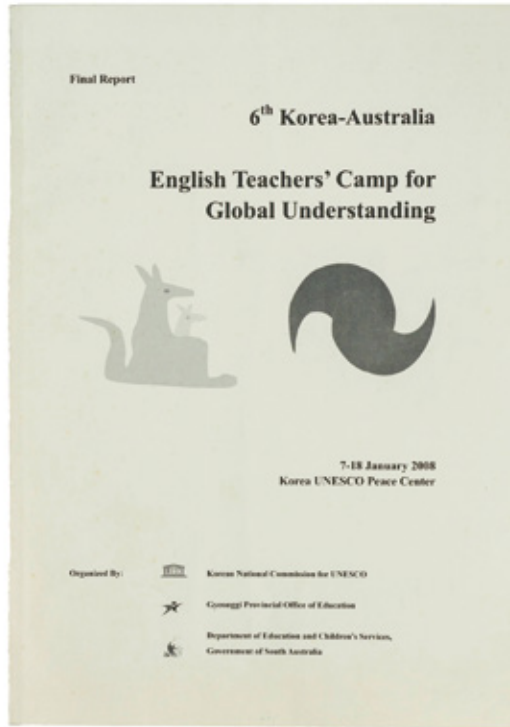
2002-2012

유네스코 청년원은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 교사 간 영어 교수 능력 향상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개최된 한·호 지구촌 이해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910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청 소속 교사 152명이 연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원에서 합숙하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제1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책자
2003**

제6회 한-호 지구촌이해
 영어교사연수
 결과보고서(영문)
 2008



제10회 한-호 지구촌이해
 영어교사연수 결과보고서
 2012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사진 오른쪽) 방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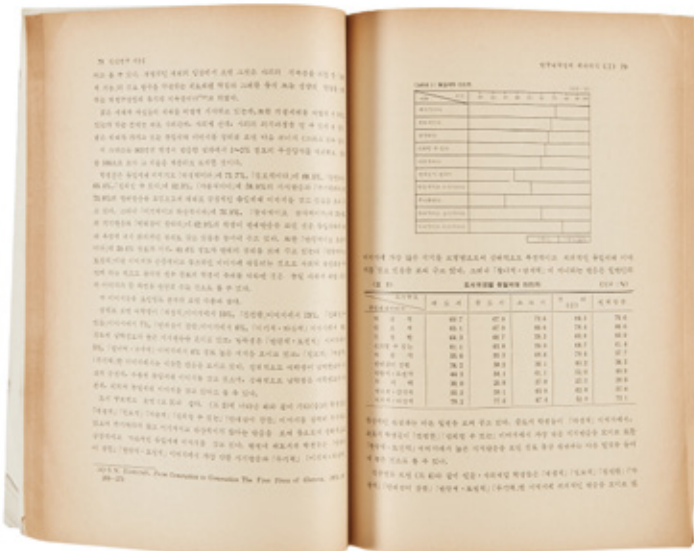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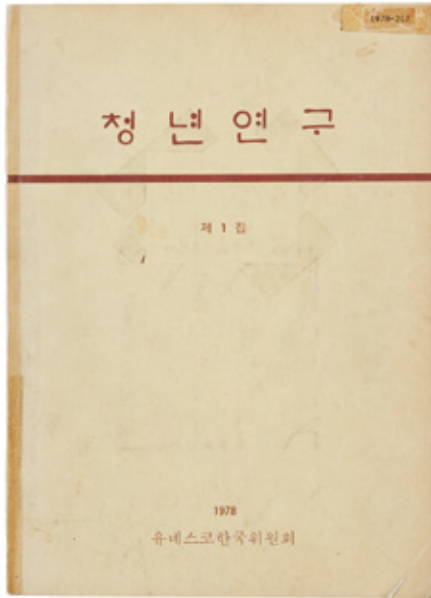
2004년 7월 30일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이 유네스코문화원을 찾았다.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행사 참석 후 기념식수 했다.

청년 연구와 청년 정보망의

초석을 닦다

유네스코 청년원이 1978년 창간되어 1994년까지 발간한 청년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분야 종합학술지이다.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 역사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청소년 활동가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 현상에 접근하고자 청년원지도교수와 원외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작업이 돋보였다. 창간 당시는 청소년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설립과 대학교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 훨씬 전으로, 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폭넓은 주제와 국내외를 망라하는 정보의 제공으로, 연구자, 청소년활동가들은 물론 정책수립담당자,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청소년정보교류망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INFOYOUTH)가 유네스코인도위원회 등과의 경합 끝에 유네스코 청년원에 개원하였다. 아태지역에서 유네스코와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의 청소년 관련 협력사업 수행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1995년 제1차 세계청소년정보교류망의 국내워크숍을 개최하고, 소식지인 'INFOYOUTH'를 창간한다. INFOYOUTH 사업은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관련 연구자들에게 국내외 청소년활동 정책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국제청소년 교류현황 보고서 발간, 국제기구 발간자료 번역 및 보급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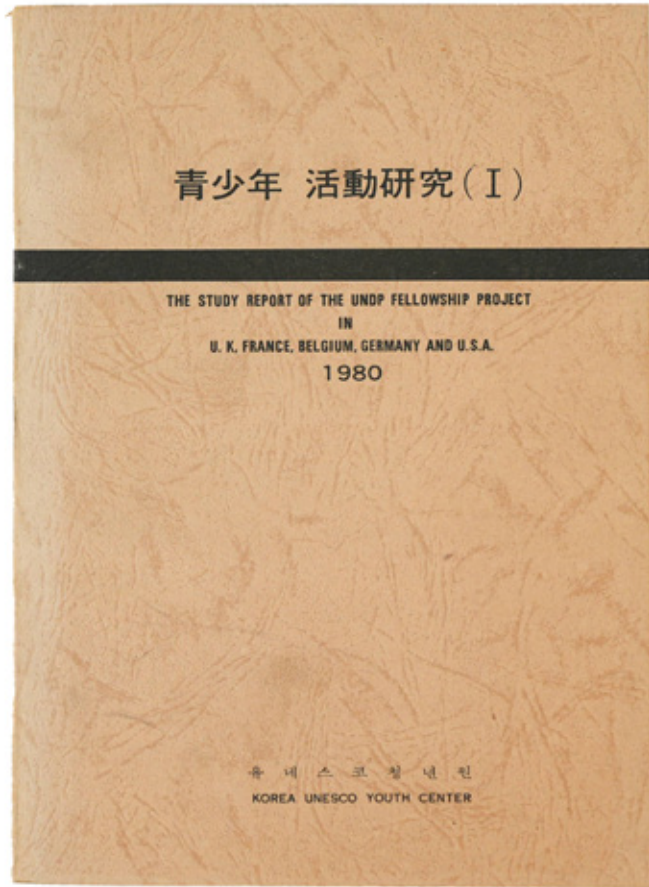
**청년연구 제1집
1978**

1978년에 창간되어 1994년까지 발간된, 국내 최초의 청소년연구 전문 종합학술지이다.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 역사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청소년 활동가들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활동연구 (1)

1980

1980년 청년원 간행
청소년 활동연구 1권.
유엔개발계획 펠로우십
프로젝트 연구보고서를
다뤘다.



INFOYOUTH

세계 청소년 정보네트워크 사업 출범

유네스코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발의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아래 시작된 '세계 청소년 정보 네트워크' (INFOYOUTH)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Youth Shaping the Future)의 욕구와 열망과 관심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교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아직은 출발에 불과하지만 금년 까지 국내 네트워크를 구성, 그리고 2000년에는 세계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청년원)가 이 네트워크 사업의 주체로 지정 받아 문화체육부의 지원하에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 사업의 국내 정보센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센터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금년도에 국내외의 청소년 관련 정보를 실은 분지 'INFOYOUTH'를 이번호를 창간호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간 해오하고 국내 청소년 단체, 기관,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국내 네트워크 핵심'을 개최하여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정보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작성, 통신망 활용을 위한 준비작업도 아울러 수행될 것이다.

INFOYOUTH란?

INFOYOUTH란 '청소년 정보 (Information on Youth)'를 줄인 말로서, 유네스코 제 3차 중기계획 (1990-95) 동원사업의 하나인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Youth Shaping the Future)' 사업 중 '세계 청소년 정보센터 및 정보서비스 (International Youth Clearing House and Information Service)' 사업의 약칭으로 고안 된 것이다. 따라서 INFOYOUTH는 '청소년 정보'라는 본래적인 뜻부터 '세계 청소년 정보센터 및 정보서비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축될 '세계 청소년 정보 네트워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INFOYOUTH 창간호
1995



INFOYOUTH 뉴스레터
1995



유네스코 청년원 청소년연구자료집(시리즈)
1998





자료로 본
유네스코청년원 20년사

1977~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료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20년사
1998

'평화의 문화'를 위한 젊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난 해년의 평화의 문화의 문화를 위하여 유네스코가 1998, 1999년, 세계 평화의 문화 해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생긴 평화의 이용으로 교육, 과학, 문화의 분야에서 노력할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새로운 전승의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평화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소중한 일이 될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주 제 : 민주주의와 관용 (Democracy and Toleration), 평화교육 (Education for Peace),
문화의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Free Flow of Information),
여성의 참여 (Women Participation in Decision and Participation)

대 상 : 대학원 및 대학생 (공통적으로 가능하며 학년별로는 제한)

형 식 : 논문 주제에 관련하여 '평화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안 및 연구를 논한 글의 경우 또는 '평화로
학생(A4용지 10~15매), (2점제)편지(A4 용지) 1매의 2000년 10월 15일까지
· 수필 (자유로운 형식으로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글로, 작문 20~30행으로 작성)
(분량은 A4용지 10매 (11포인트) 내외 분량)
(표지에 제목, 장명, 우편등록번호, 학교, 전공, 학년, 주소, 연락처 등기)

수 상 액 : 우수작 2편 (각 300만원), 기왕 4편 (각 50만원)
· 유망작 10편에 '평화의 문화' 해 기념품, 상장 및 출판권을 부여 (제1, 2등)
· 유망작에게는 유네스코 국제로 활동의 유망의 참여기회 부여

접 수 : 기 간 : 2000년 10월 15일
· 접수방법 : 우편 (E-mail / Fax) (일련 또는 Fax로 송부할 경우 E-mail로 보내주세요)
· 접수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사업팀
· 경기도, 고양시 호반동 유네스코 808-11호 407-4095
Tel : 0339-4338-9902, Fax : 0339-4338-9903
E-mail : youth@kswc.unesco.or.kr

· 발표 및 시상 : 2000년 11월 15일 (시상식 포함)

· Homepage (http://youth.unesco.or.kr)를 방문하시면 '평화의 문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년 UNESCO의 문화사업으로 채택되어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는 우리의 문화유산과 전통, 과학, 기술, 자원의 문화유산과 함께, 교육, 관용, 연대의 문화유산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 '평화의 문화' 대학생 논문공모 포스터
2000

세계시민을

키우다

2000년대 들어 유네스코가 관심을 가져 온 국제 문화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면서 유네스코 청년원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원으로 개편된다. 2006년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문화원 시기에는 한국·호주 지구촌이해 영어교사 연수,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원 시기였던 2004년 7월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이 문화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47개국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을 증진하고자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의해 2000년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문을 연 곳도 청년원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화, 인권, 환경, 빈곤퇴치 등 국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일본 도쿄에 있는 유엔대학(UNU)과 공동으로 UNU-KNCU 글로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은 청년원에 모여 석학들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03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연세대 새천년관과 유네스코 문화원에서 열린 UNU 글로벌 세미나 서울 세션에는 18개국 116명(외국 61명, 한국 55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하버드 엔칭연구소의 투 웨이밍(Tu Weiming) 박사,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히 신문 칼럼리스트, 광일천 ESCAP 연구원, 반 긴켈(J. A. van Ginkel) UNU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강연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지구촌평화마을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천시와 협력해 2008년 11월 지구촌평화마을(Global Peace Village)을 유네스코평화센터에 조성하고 문을 열었다. 지구촌평화마을에는 이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영어캠프가 정기적으로 열려 이천시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유네스코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와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의 유네스코총회(Model UNESCO Conference)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위 주최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열린 모의유네스코총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유네스코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 10층 /전화 (02) 568-5115(교533) /전송 (02) 539-3390

문서번호 : 유한본 990-267

시행일자 : 1999. 6. 9

수신 : 내부결재

참조 :

취급		사무총장
보존	1. 3. 5. 10. 영구	결재
본부장	김민	1999. 6. 09
팀장	김민	김민
기안	송종진	합조

제 목 : '99학년도 전국단위 특수분야(국제이해교육) 일반연수 연수대상자 추천 요청(안)

본위는 99학년도 전국단위 특수분야(국제이해교육) 일반연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수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연수종별 : 특수분야(국제이해교육) 일반연수
2. 연수목적 : 교사의 세계의식 함양과 국제이해교육 역량 강화
3. 연수과정 : (붙임 1) 참조
4. 연수기간 : '99. 8. 16 - '99. 8. 25(9박 10일, 75시간)(합숙)
5. 연수장소 :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이천시 소재)
6. 연수인원 : 70명
7. 추천요건 :
 - 국제이해교육 담당교사 및 국제이해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교사
 - 특히, 유네스코 협동학교(붙임 2 참조) 담당교사 및 국제이해교육 연구(시범) 학교 담당교사를 우선해서 추천
 - 50세 이하의 남녀교사(여교사 1인 이상 포함)
8. 추천인원 : (붙임 3) 참조
9. 참가비 : 1인당 참가비 15만원(여비제외)
 - 연수포기시 참가비 반환 불가
10. 추천기한 : 1999년 7월 15일까지
11. 추천양식 : (붙임 4)
12. 기타 사항 : 추천완료 후 각 기관에 통지

붙임 : 1. 연수교육과정표

2. 유네스코 협동학교 가입교 시도별 현황
3.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시도교육청별 추천
4.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참가자 추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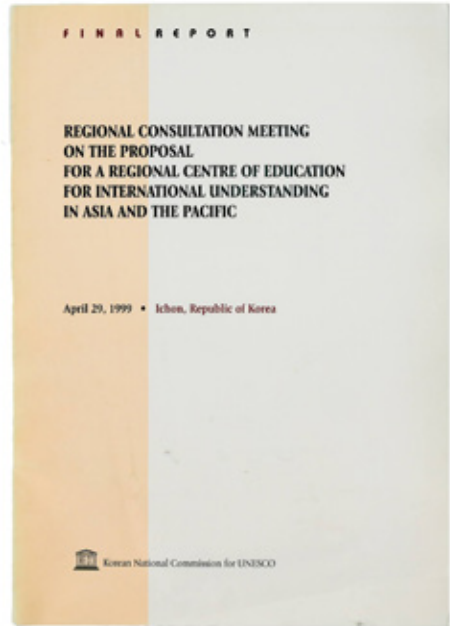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연수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1999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제안을 위한 지역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19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9년 4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제안을 위한 지역 검토회의를 청년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2000년 8월 25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청년원에서 문을 열었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개관 기념 국제심포지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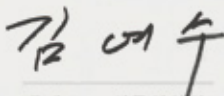
2000년 8월 25일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청년원에서 개관하였다. 같은 달 25일부터 사흘간 청년원에서 개관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공동개최에 관한 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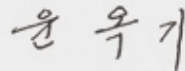
21세기 인류는 정보 통신기술의 놀랍고도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가 이웃인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은 이러한 혁명적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과 특히 교시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지구촌 시대에 더욱 더 그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영어교육과 문화간 교육을 접목하여 가장 효과적인 연수효과를 목표로 하는 지구촌 영어 교사 연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구촌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원어민 영어 교사와 함께하는 영어 교사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공동 실시한다. 이 영어교사 연수의 특징은 영어 소통능력 및 영어 교수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동시에 타 문화 및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이중의 교육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를 2002년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차년도인 2002년 겨울 방학에는 한·호 지구촌 영어 교사 연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한다. 단, 처기 년도의 연수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은 1차년도 한·호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를 공동 개최함에 있어 양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는 첨부한 약정서에 따른다.
- 4)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 부터 3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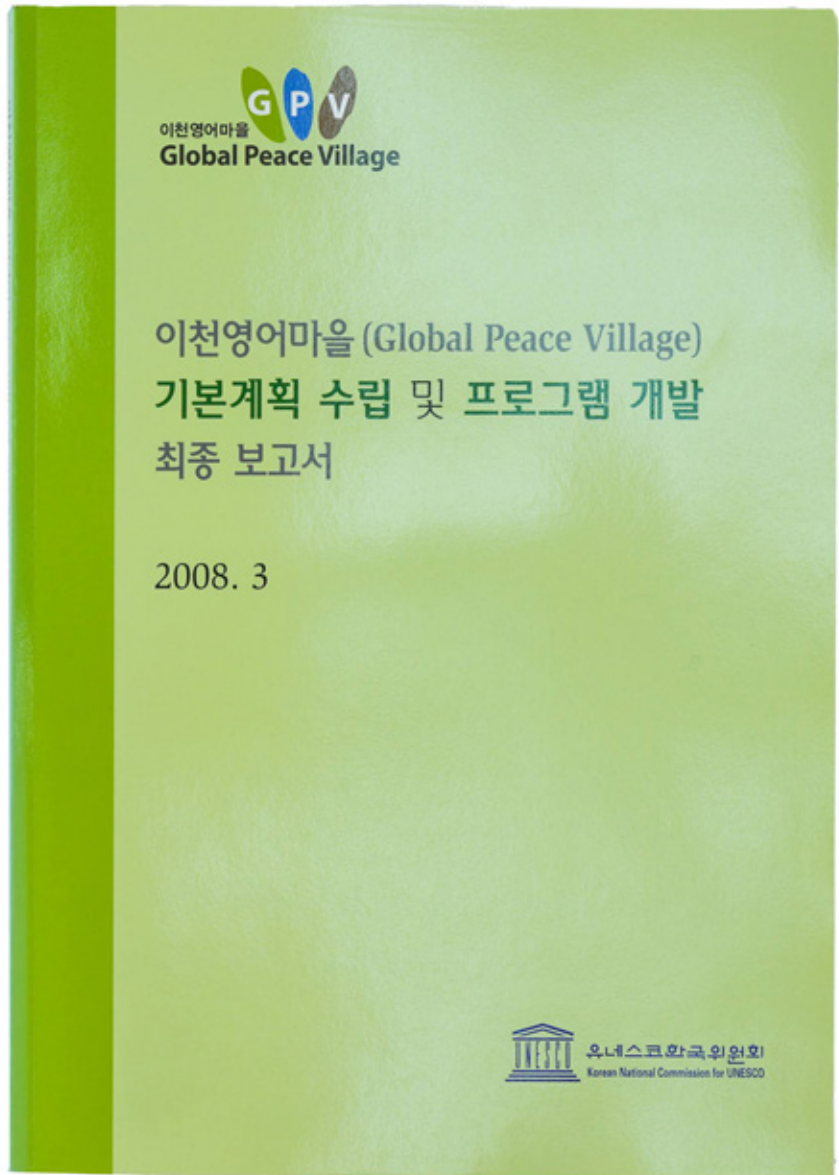
2002. 8.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여수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윤옥기




이천 영어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최종보고서
2008



Icheon Global Peace Village


이천영어마을 개원식



- 일 시 | 2008년 11월 14일 (금) 14:00
- 장 소 | 이천영어마을 (유네스코평화센터)
- 식 순 |

13:40-14:00	20'	식전 공연	장호현을 관악부
14:00-14:05	05'	내빈 소개	서혜자
14:05-14:10	05'	개식 및 국민외래	서혜자
14:10-14:15	05'	경과보고	이천시 기획경제담당관
14:15-14:25	10'	영어마을의 수혜 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	이천시장
14:25-14:35	10'	기념사	이천시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4:35-14:47	12'	축사	국회의원 서의정, 교육청 도예희 부교육감
14:47-14:50	03'	영어마을 소개	영어마을 원장
14:50		폐회	서혜자
14:50-14:55	05'	영어마을 현관 제막식	윤석 주요인사
14:55-15:00	05'	테이프 컷팅	윤석 주요인사
15:00-15:20	20'	시정 관람	윤석 주요인사
15:20-15:40	20'	다과회(구내식당)	참석자

행사장안내



- 행사장 이동 동선

1 지구촌교육관 앞뜰 (개원식) → 2 지구촌교육관 내부 (시정관람) → 3 학생관 (학생숙소) → 4 구내식당 (다과회)

GPV 이천영어마을 Icheon Global Peace Village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대곡리 866-1 유네스코평화센터
Tel. 031-637-9840 Fax. 031-637-9894
http://gpv.unesco.or.kr

이천영어마을 개원식 브로셔(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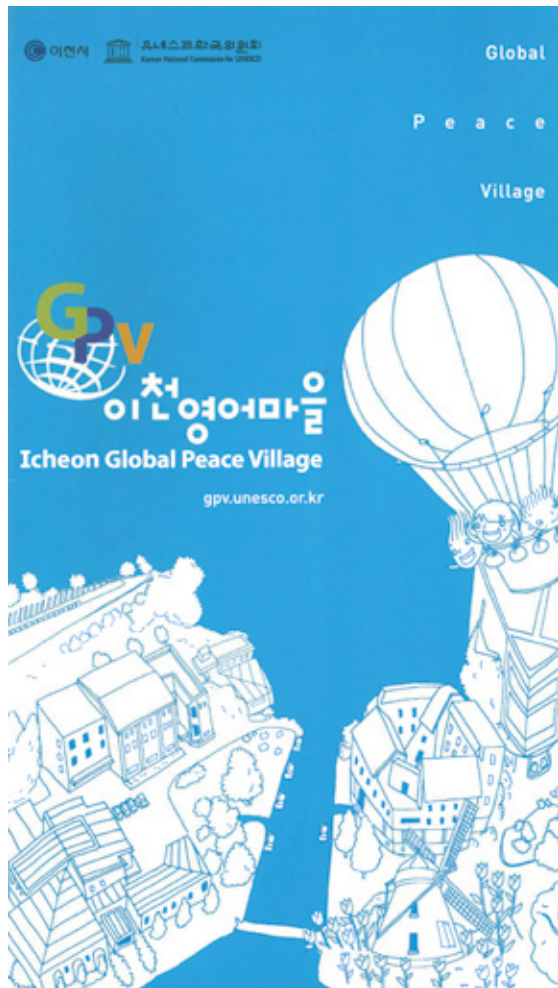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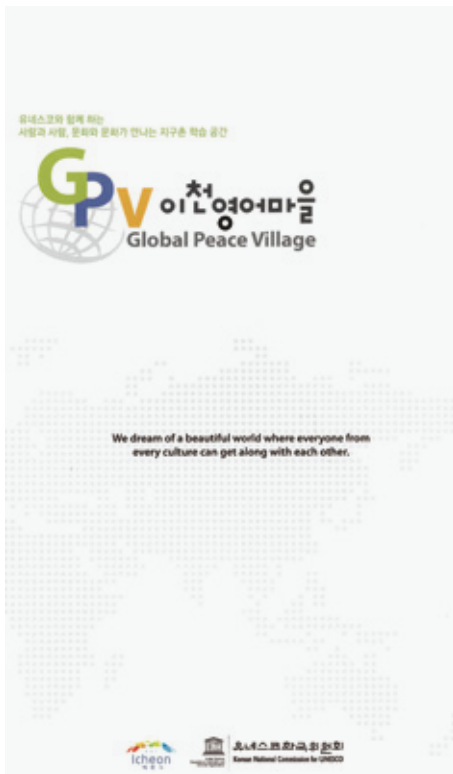
2006년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이천시가 체결한 지구촌 평화마을 조성 기본합의서에 따라 지구촌 평화마을(이천영어마을)이 2008년 11월 개원했다. 평화센터 교육관(1,813㎡)과 원어민 강사 숙소(325㎡)를 개축하고 학생용 숙소(1,427㎡)를 신축해 조성되었다.



**이천 영어마을 개원식
2008**



**이천 영어마을 개원식 축하공연
2008**



이천영어마을 소개책자
연도미상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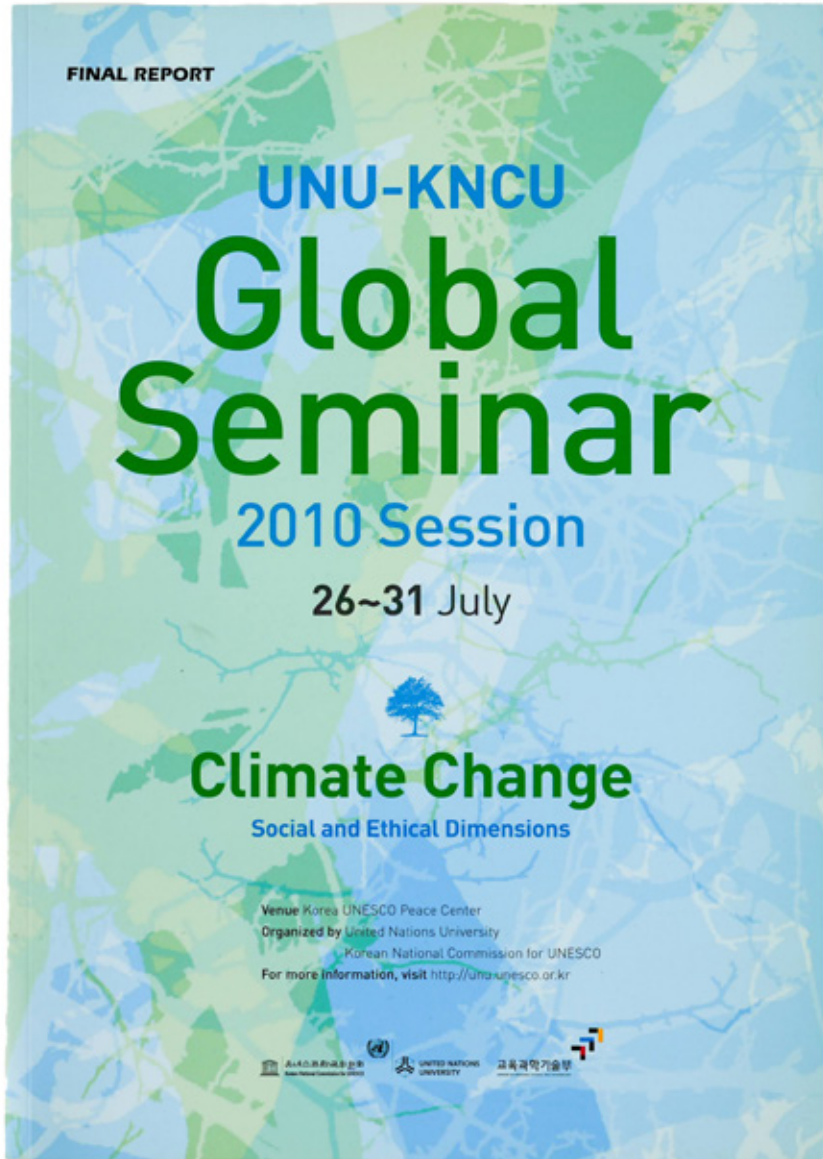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발간물(왼쪽: 기초발언문, 오른쪽: 결과보고서)
2010



브릿지 지역활동가 국내훈련

2010

브릿지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아프리카의 교육 소외지역에서 문해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사진은 2010년 당시 현지 파견을 앞두고 국내훈련 중인 브릿지 지역활동가들 모습



2010 UNU-KNCU 글로벌 세미나 결과보고서
2010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1기 발대식 및 워크숍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학생들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천 영어마을 수업 모습

2017

이천 영어마을의 영어수업 진행 모습. 이천시 소재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정규 프로그램, 토요일 하루 과정인 주말 프로그램, 9박 10일의 방학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천 영어마을 교재
2017



유네스코 중학생 세계시민캠프
2016



서울시 고등학생 세계시민캠프
2017

인터뷰

내가 기억하는 유네스코 청년원

* 청년원,
내 젊은 시절의
근원이
있는 곳

이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미래활동부장



Q1. 인터뷰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유네스코 학생회(이하 KUSA)에 가입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하는 법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KUSA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학교마다 ‘지회’가 존재했는데, 대학 1학년 때 KUSA 회원으로 들어왔고, 이후 유네스코학생협회 집행부에서 총무를 맡았습니다.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전공인 경영학을 살려 일반 회사에 들어갈까 하다가 자원봉사단체에 첫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역시도 KUSA 활동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에 유네스코회관 2층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가 개관할 당시 저는 창립 멤버로서 3년 정도 근무했고, 이후 자원봉사, 청소년 육성 등에 종사하며 청소년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젝트 활동 진흥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대학 1학년 때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유네스코 청년원에 대한 기억이 궁금합니다.

제가 89학번인데 유네스코 청년원에 처음 갔던 기억은 1989년 8월 15일 조국순례대행진 합류식입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은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이 몇 개의 코스로 나뉘어 열흘간 걷다가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마지막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합류장소가 이천 유네스코 청년원 삼거리예요. 이때 참가자들의 완주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지회에서 응원단이 모였는데, 저도 응원단으로 참여했어요. 유네스코학생회 단국대 지회에서는 1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응원단들도 합류식 전날 청년원 잔디밭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밤새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국순례대행진 참가한 학생들은 500명쯤 되었고 그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또 (응원하러) 왔어요.

처음 청년원에 갔을 때 ‘내가 전설로만 듣던 청년원에 드디어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네스코 청년원은 이를테면 메카처럼 우리의 근원이 있는 곳이라고나 할까요. 조국순례대행진의 기억, KUSA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KUSA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 KUSA는 여러 동아리를 가운데 하나지만, KUSA끼리 모이면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자긍심 같은 게 있기도 했고요. 선배들도 청년원과 관련한 무용

담을 자랑스럽게 전해주었고, 청년원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응원단으로 참가한 다음 해인 1990년 1월에는 유네스코학생회 단국대학교 지회 임원(부회장)을 맡게 되면서 회장단 연수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네스코 청년원에 갔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버스로 이천 터미널에 가서 이천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청년원 삼거리에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이천 버스터미널에서 걸어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청년원은 유네스코학생회를 비롯한 청년 지원 단체들에게 “공간” 자체로도 중요했지만 “정신”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권고에 의해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유네스코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을 한 학생들은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혼자면 독서, 둘이면 대화, 셋이면 협동, 넷이면 합창” 같은 새물결운동의 슬로건을 보면, 혼자면 독서라는 것이 혼자 실력을 쌓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청년이 미래 세대로서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한 역량을 쌓는다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청년원은 일종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음에도 유네스코 청년원이라는 일종의 울타리가 청년들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켰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원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은 없고, 1993년에 아르바이트로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사’를 만들 때 자료 정리하는 일을 도왔고, 자원봉사로 청년원에서 하는 연수나 행사를 지원했어요. 유네스코 학생협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조국순례대행진이나 IYC 같은 행사를 준비하면 여름에 한 두 달 정도 청년원에서 꼬박 지냈습니다. 청년원 C동 건물 1층에 있었는데, C동엔 청년원 지도교수 연구실과 직원 숙소,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인포유스(INFOYOUTH) 사업이 청년원에 들어오면서 자료실의 자료 정리를 하느라 청년원에서 겨울철에 서너 달 머물렀어요. 자료실에는 30~40개 정도의 서고가 있었을 정도로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년원에서 발간한 ‘청년연구’ 같은 정기 간행물, 유네스코에서 발송되는 청년 관련 잡지들과 발간물 등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자료들은 분류체계도 있고, 자료실 전담 직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교수, 학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및 관계자분들이 전국에서 자료 찾으러 이천 청년원까지 오셨어요.

유네스코와 관련된 일반 자료는 유네스코회관에,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자료는 이전 유네스코 청년원에 대부분 있었는데, 자료실을 정리할 때 자료를 이전할 만한 기관을 찾았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에 청소년학과가 있는 순천향대학에 자료 일부를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청년원에서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1990년대 중후반 청소년 기본법이 생기면서 본격 추진되었고, 청소년지도사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불문을 같은 게 있었어요. 유네스코 청년원 외에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1세대 청소년 지도자 분들은 거의가 청년원에서 연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1년에 3개 과정, (가을에 추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추수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한 과정 당 4박 5일 또는 5박 6일 일정이었어요. 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분야를 주제로 논문을 써야 했는데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실의 자료들을 참고했어요. 청년원 직원으로 계셨던 교수님들이 논문 지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제도들의 전신이 유네스코 청년원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 분야가 국가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만든 게 1983년도로 기억합니다. 이후 청소년 시설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민간 차원에서도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RCY) 같은 청소년 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야학 종사자, 교회, 성당 같은 종교 시설의 청소년반 지도자들, 아동 시설 관계자 등 청소년 분야 종사자들은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고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으로 체계화하고 묶어내는 작업을 유네스코 청년원이 시작했던 겁니다. 신부, 수녀, 스님들도 계셨을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 한데 모여 연수 받는 건 유네스코 청년원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청년원의 교육체계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예컨대 윈터스쿨이나 회장단 연수회), 다른 하나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 청년원의 지도자 연수 과정은 굉장히 유명했고요. 지도자 연수 과정 출신들은 청년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겁니다. 유네스코 청소년 지도자 모임인 '유청회'라는 모임이 있을 정도로 내부 결속력도 엄청났어요.

청년원과 관련해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1990년에 조국순례대행진(강원도 철암초교에서 집결해 태백산과 충북 제천을 넘어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코스)에 참가해 청년원에 도착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순례대행진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조국순례대행진의 합류 행사 전날 밤에 한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숙박할 때 한위 직원이셨던 고 강대근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 구령대 위에서 새물결운동을 주제로 강연하시던 모습입니다. 강대근 선생님 뒤로 조그만 백열등이 켜져 있었는데 행진으로 지치고 더운 여름밤이었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의 억양과 목소리, 실루엣이 생각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한껏 들떠서 합류식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응원단도 많이 와 있고, 사물놀이패가 중간에 공연하고, 조국순례대행진의 각 코스를 이끌었던 도정장들이 청년원 입구 삼거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포옹했는데,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짜릿한 순간의 장면이 아직까지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게 남아 있어요. 순례를 마친 학생들이 한데 모여 청년원으로 올라가고 다 같이 모여 광복절 기념식을 했어요. 행사를 마치고 모두 모자를 벗어 일제히 하늘로 던지는데,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1990년 8월 15일의 기억입니다.

Q3. 청년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기억은 어떠셨나요.

요즘 지어진 공공 시설물의 문제점은 시설을 짓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공간의 쓰임새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짓기 때문에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공간이었습니다. 동선을 보더라도 강의장에서 나오면 로비가 있어서 로비에서 전시나 리셉션, 콘서트를 열 수 있었습니다. 로비 바깥으로 나가면 분수대 옆에 공간이 있어서 야외 파티를 열 수도 있었어요. 쓰임을 생각하고 만든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원은 청년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였다는 기억이 있어요. 한마디로 ‘청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여기서 뭘 해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과 도전의식 같은 것이 샘솟는 공간이었습니다.

청년원 본관인 젊음의 집에는 작은 강의실과 큰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큰 강의실 2층에 방송조정실이 있는데, 그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IYC 행사를 하면 운영요원들은 방송조정실에서 강의실 조명을 켜고 또 행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행사가 끝날 때 틀곤 했습니다. 행사 기록사진을 사진인화용 필름카메라와 슬라이드용 카메라 등 두 대로 찍었어요. 카메라 두 대로 찍은 사진들을 행사가 끝나기 전에 서울로 가져 가서 인화해 슬라이드 마운트라는 케이스에 담아 청년원으로 다시 가져와 2층 방송조정실에 있는 상영기에 넣어, 행사 마지막 날에 노래와 함께 틀어 줬어요. 일종의 슬라이드 쇼를 한 거죠. 운영요원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공간이에요. 여름철엔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슬라이드 쇼를 틀어 주고 하면서 청년원 행사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공간은 젊음의 집 2층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IYC가 열릴 때면 행사 본부로 사용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늦게까지 회의하고 밤엔 청년원 순찰 돌고 아침엔 참가자들 일어나라고 기상시키고 체조시키고 했던 IYC 행사 본부였던 2층 소회의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그란 고정식 책상이 있고 밑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바닥에서 잠도 자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Q4. 국제청년야영(IYC)은 어떤 행사였나요?

IYC의 전신은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 IWC)였습니다. 국제야영봉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캠프로 변화하며, 그 이름이 IYC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청년 캠프의 효시와 같은 행사입니다. 해마다 모인 전 세계 청년들은 청년원에서 행사도 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로 나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국제 감각을 기르고 경험하는 기회였고, 여러 나라 청년들도 한국과 지역사회를 체험하는 캠프였습니다. 경쟁률도 꽤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어요. IYC 동문회가 결성되어 그 명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IYC와 조국순례대행진을 한위의 대표 청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원이 문을 닫는 것만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떤 것이든 시대적 소명에 따라 수명을 다해 사라지거나 혹은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로 전환되어가거나 하는 것은 순리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원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했지만, 정신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원은 유네스코 학생활동을 했던 학생, 청년원 교수, 직원들 마음의 고향이고, 나아가 한국 청소년활동을 태동시킨 발원지인 동시에, 청소년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공간으로서 공간에 담긴 정신은 조금씩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원이라는 공간 저변에는 청년과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등과 같이 청년원이 현장에 전파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늘 있었어요. 청년원이 버팀목 같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차범근 부자도

다녀간

청년들의

메카

안형균

전 유네스코평화센터 소장



Q1.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3년 6월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에 1~2년 정도 청년원 업무를 돕는 일을 하다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쯤 청년원 직원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청년원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굉장히 과묵하던 분이셨는데 편지를 보내 주셔서 청년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예산을 잘 때 엑셀로 모든 계산을 했는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주산을 잘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산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입사하기 유리했어요.

1983년 첫 입사 때 청년원에는 관리과와 연수과 등 두 개 부서가 있었고, 저는 관리과에서 회계 업무나 임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임대료 수입을 결산해 유네스코회관에 보고하고 유네스코회관에서 청년원 운영자금을 보내 주면 집행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관리과는 직원이 30명 정도 있었고, 청년원장님은 운전기사와 전용차가 있었어요. 연수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와 청소년 연수 프로그램이 1년에 90일 정도 운영되었고, 연수가 없는 기간에는 청년원 시설을 임대했어요. 저는 관리과에서 시설 임대 및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임대홍보 전단을 만들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나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관리과 직원 30명은 청년원에서 근무했고, 모두 정규직이었습니다. 전기 담당 3~4명, 기관실 담당 3~4명, 경비 7~8명, 식당의 주방장 2명, 청소 2명, 운전기사 1명, 사무실 행정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천, 성남 등지에서 출퇴근했고, 연수과 소속이던 청년원 지도교수 8명은 직원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8가구 중에서 한 두 가구가 비면 관리과 직원들이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1983년부터 36년 근무 후 2019년 6월에 퇴직했습니다. 1983년부터 민동석 사무총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천 평화센터에서 근무했고, 2013년부터 민동석 총장님 계실 때는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4년 간(경영지원실에서 6개월, 회관관리팀에서 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총장님이셨던 김광호 총장님 때 이천 평화센터로 돌아와 2년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Q2. 청년원 근무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이 거의 없었어요. 유네스코 청년원이 우리나라에서 청년 분야 연수원으로서는 거의 유일했어요. 당시에는 청년원하면 청년들의 메카라고 불렸습니다. 강대근, 전성민 씨가 지도교수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업계에서 그 분들을 모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원의 위상은 굉장했어요. 청년원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과 직원 30명에 연수와 직원까지 청년원에 많을 때에는 38명 정도였습니다. 청년원 분위기는 매우 젊었어요. 40대인 원장님을 제외하면 연령대도 대부분 20~30대였습니다. 잔디로 잘 조성된 청년원 축구장에 직원들은 모여 공을 찼고, 원장님들도 공 차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공주교대 교수를 역임한 이구재 원장님은 공 차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시로 직원들을 다 불러서 함께 공을 찼어요. 잔디 축구장이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서울 동대문 운동장 정도 가야 볼 수 있었어요. 차범근 축구교실도 청년원 잔디 축구장에서 진행했고,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청년원 잔디 축구장에 와서 공을 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원에 대통령도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1986년 식목일 때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해를 맞아 당시 대통령이 청년원에 기념식수를 하고, 청소년 지도자들과 식사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지원금을 받아, 그 지원금으로 단층 건물의 기존 식당 건축물을 헐고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도 경기도 여주를 찾았다가 유네스코 청년원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유네스코학생회가 주최한 ‘모시고 싶은 분’에서 강연하기 위해 청년원을 몇 차례 왔었고, 대우그룹 임원 연수를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진행한 적 있는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청년원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도 청년원을 방문했었고요. 청년원에서 삼성 신입직원 연수도 했었습니다. 삼성 연수원에서 인원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일부 신입직원 연수를 청년원에서 진행했어요. 한 번은 삼성 신입직원 연수 기간과 겹치는 시점에 정주영 회장이 대학생 KUSA 연수에 강연을 위해 청년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젊음의 집 출입구에 삼성 신입직원 연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삼성과 라이벌이던 정주영 회장이 불편할까봐 안내 표시를 잠시 떼는 일도 있었죠. 1강의실에서 삼성

신입직원 2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정주영 회장은 바로 옆 강의실에서 대학생 KUSA 연수 강연을 했어요. MBC 문화방송도 청년원에서 2박 3일 직원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Q3. 청년원에 남기고 싶은 말씀은?

운영관리 차원에서 30년 넘게 청년원 그리고 평화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큰 사고가 없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평화센터가 산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컸습니다. 배수로 청소와 관리에 신경 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천영어마을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어민 교사 6명, 행정직원 등 20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개원 후 10년간 이천의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거쳐 갔어요.

숙소 A, B동은 한 방에 8명을 수용하도록 설계했는데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연수원은 1실에 1~2명 단위로 설계한 반면, 청년원은 8명 수용도 가능한 공간이 있다 보니 8명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청년들의
마음에 뿌린
리더십, 봉사,
상호교류의
씨앗

김승윤
전 유네스코평화센터 원장



Q1. 청년원과의 만남은 어떠셨고 이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청년원과의 인연이 많은 편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33년간 재직하는 동안, 3~4번 정도 보직을 바꿔 가며 청년원(평화센터)에서 일했어요. 198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해 3년 정도 동안 유네스코회관에 있다가 1988년경 처음으로 청년원에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보직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지만 별천지 같았던 청년원이 무척 멋있게 보여서 그곳 근무를 자원했어요.

당시 청년원은 조직이 연수과와 협회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져 있었어요. 협회과는 유네스코학생회 중심의 활동을 담당했고, 연수과는 청년원 자체가 연수 시설인 만큼 연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이 연수과였습니다. 연수과엔 청소년 활동 전문인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이 일했었는데, 처음에 간사(사무 담당)로 있다가 석사 학위 취득 후에 지도교수가 되어서 총 3~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였습니다. 교육부 국고사업이었고 이른바 간판 사업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 단체 담당자나 교사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마치면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주었는데, 당시엔 그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지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시설이 없었는데, 청년원에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으니깐요. 구체적으로는 4개의 과정이 있었고, 1년에 4번을 와야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4번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또 전반기/후반기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고, ‘추수 과정’이라고 수료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청년원 연수과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유네스코회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회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가 회관 운영이 정상화 된 후 기획실로 옮겨 홍보 업무를 맡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년원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추진하시던 원장님(정두용)을 돕기 위해 다시 청년원으로 갔던 것이죠. 그때가 95년경인데, 지도교수 겸 연수 과장을 맡아서 청년원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 즈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청소년 분

야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조차 잘 형성되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네스코학생회를 만들어 유네스코활동의 파트너로 삼았고 전국적으로 일하는 청소년활동 지도자를 양성했으니깐요. 그 활동의 중심이 유네스코 청년원이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청소년 분야가 중요해져 체육청소년부라는 정부부처가 생기고 청소년개발원과 같은 전담기관이 설립되면서 유네스코 청년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청년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설립한 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시작하고 자격증까지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원의 간판 사업이었던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은 규모를 줄여 지속하다가 몇 년 후 없어지게 됩니다. 당시 원장님과 함께 청년원 시설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관련 주제를 연구, 교육하는 가칭 ‘유네스코 열린 대학’ 같은 것을 구상해보기도 했지만 많은 자원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청년원 시설 활용의 대안으로 ‘한국청년해외봉사단’(현재 KOICA에서 운영) 연수원과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사업이 먼저 추진되었는데, 한위가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을 창설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초기 파견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이 끝난 후 청년원은 봉사단 연수원으로 단순히 시설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한동안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을 청년원에 설립해서 운영하면 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로 한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년원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설 기구는 초대 이삼열 원장님과 직원들이 조직 발전을 위해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청년원 활용 방안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청년원 시설 활용이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 뒤로 김여수 총장님이 오셨을 때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빠져 나오면서, 다시 그 공간의 기능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청년원을 ‘유네스코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시기 한위가 경기도 교육청, 남호주 교육청과 협력해 영어 교사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연초 방학 때 10일 정도로 진행됐는데, 호주 교사들 한 20명 정도가 한국에 오면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영어 교사들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 프

로그래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프로그램 참여 교사들 중에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호주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이삼열 총장님이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을 마치고 한위에 사무총장으로 오시면서 시설에 다시금 변화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름을 ‘유네스코 문화원’에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바꾸고, 유네스코의 평화 이념에 맞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코이카 봉사단 연수,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유지하면서 탈북자 교육 같은 것을 새롭게 유치하자는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이카 봉사단은 자체 연수시설을 지어서 나가고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프로그램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이천시와 함께 추진하게 되면서 이 일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세 번째 근무는 이삼열 총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인사이동을 할 때 제가 자원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청년원(평화센터)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화센터 원장으로 가서 처음에 했던 일이 평화센터 입구에 간판석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삼열 총장님이 자 연석을 고집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적당한 돌을 구하여 설치해놓고 보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평화센터가 매각되면 이 간판석을 비롯한 많은 기념물들도 다 사라지게 될 운명인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년원 기공 기념석, 조국순례대행진 기념석, 새물결동산 기념석 등은 어떻게 될는지. 너무 크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회관 옥상 생태공원 같은 곳으로 옮겨 놓을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이 좀 썼는데, 어쨌든 저는 ‘지구촌 평화마을’(이천 영어마을)을 만드는 일을 총괄하여 진행했어요. 먼저 이천시와 협약(MOU)을 체결하고 설립계획(마스터플랜)을 짜서 발표하고, 시설 설계와 건축을 진행하고, 별도로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팀을 만들어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매우 바쁘게 한 3년을 보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원어민 선생님들까지 채용하여 첫 프로그램을 실시하니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거의 쓸모없었던 두 가지 시설인 대강당과 귀빈 숙소가 ‘지구촌평화마을’을 만들면서 재활용되었습니다. 500명 규모의 대강당은 거의 쓰이지 않아 썩어가고 있었는데, 구조를 바꾸어 리모델링하니 100여명이 다양한 교실에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지구촌교육관)으로 바뀌었고, 청년원 설립 초창기에 교육부 장관 등 귀빈이 와서 테니스를 치고 묵었다는 귀빈숙소는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숙소(상생관)는 이천시 예산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과거 테니스코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구촌 교육관은 한위 소유, 이천시 학생을 위한 숙소는 이천시 소유로 소유권을 정리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구촌 평화마을’을 만들 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3-4년 정도 일을 했고, 오픈할 때쯤 되니 한위 사무총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도 얼마 후에 유네스코회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다 은퇴하기 1년 전인가 민동석 총장님 계실 때 세계시민학교 일을 하면서 지구촌평화마을 원장을 겸해서 다시 이천에 가서 1년을 있었어요. 그렇게 총 4번 정도 이천에서 일을 했고, 전체 기간을 합치면 뭐 10년은 훨씬 넘을 거예요. 청년원이 변천한 과정 중 여러 번에 걸쳐 그곳에 근무했던 직원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연수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리를 맡아 계속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Q2. 청년원, 문화원(한·호주 교사 교류), 그리고 평화센터(이천영어마을)까지 근무하셨던 전체 기간을 회상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순간, 혹은 기록에 남겨두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원에서 청소년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 지식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했는데요. 4박 5일 간의 연수 과정이 끝나기 전날 밤 그 동안 분반활동 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축제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연수 과정 동안 거의 매일 밤 연수생들이 밤중에 지도교수들을 찾아와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수생 중에는 교사, 청소년단체 활동가, 스님, 수녀님, 원불교 교무님(정녀), 신부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해방구처럼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한·호 영어교사 연수에서는 한국교사들을 인솔하여 남호주(아들레이드)에 갔었는데, 교사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 등 여러 곳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호주 선생님들을 인솔하여 한국의 문화를 견학시켜주고 특히 비무장지대(DMZ) 땅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그들이 한국의 오랜 역사를 무척 부러워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평화센터 때에는 영어마을(지구촌평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들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가보았는데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산속에 영국의 전통 마을을 본떠 만들었다는 ‘브리티시 힐즈’를 방문했던 일도 생각납니다. 또 영어마을을 만들면서 이천시 담당자

들과 많이 싸워가면서 어렵게 설립했는데, 막상 운영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학생을 보내 주어야 할 교육청에서 협조적이지 않아 애를 먹었던 일이 생각 납니다. 할 수 없이 처음 운영할 때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교육생들을 유치하기도 했어요. 지구촌평화마을이 유네스코 이념에 딱 맞는 좋은 사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유네스코 활동 이념(평화, 환경, 문화)에 맞추어 영어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선 영어교사들에게 보여주니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많은 고심을 해서 건축, 공간 배치 등을 제안하여 설계에 반영시켰는데, 보람도 있었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Q3. 청년원의 전반적 변천 과정을 다 보셨는데 그때 이런 것을 했다면 더 빛날 수 있었을텐데 싶으신 것들,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원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위가 정치권력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위의 청소년 활동은 유명했고 한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한위의 주류 프로그램과 약간의 괴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활동 연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도 과도한 자원이 투입됐어요. 청년원 직원 수만 해도 20~30명은 됐을 거예요. 건축은 국고로 하고, 처음에는 부지도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사용료까지 지불했지요. 그래서 청년원은 경영합리화가 지속적인 화두였고 그것을 외부 재원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태준 총장 계실 때인가 청년원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 받았는데, 재산관리 입장에서 아주 유의미한 선택이었죠.

Q4. 혹시 청년원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거나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유네스코 들어오기 훨씬 전 얘기인데요. 유네스코 청년원을 지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연수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공화당 연수원(또는 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설도 있음)로 전용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도로 사정이 안 좋다보니 차도 빠지고 입지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살아남았다는 설이 있어요. 또 보통 대부분의 시설이 남향인데 청년원은 부지 자체가 북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 건물 설계를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원(평화센터) 관리를 할 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느꼈어요. 또 청년원 때문에 덕평 나들목(IC)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IC를 신설할 만한 위치이고 당시엔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다 되던 시절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개발 시대와 집단 연수, 대규모 청소년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Q5. 마지막으로 청년원 시설에 자료실이 되게 크게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1988년에 처음 청년원에 갔을 때 자료실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었어요.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보관해놓고 했는데, 처음엔 좁은 방에다 뒀다가 나중에 신관 건물이 증축되고 나서 거기 남는 방에 자료실을 크게 만들었어요. 청소년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연수 받는 중에 열람하고 빌려가기도 했어요. 일반 자료들 외에도 청소년 관련 석박사 논문을 복사해서 비치해뒀었어요. 그 자료들을 또 체계에 맞춰 분류해두곤 했습니다. 또 인포유스(INFOYOUTH)라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네스코본부에서 청소년 정보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일도 나중에 제가 했어요. 월드와이드웹(www) 넷스케이프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도 같고 청소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했어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마련되던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청년원에서 인터넷이 깔렸던 거죠. 광케이블은 아니지만 인터넷도 연결하고 해서 웹 프로그램이 딱 뜨니까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료실은 식당건물(신관)에 있었고 INFOYOUTH 사무실은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나가면서 장소가 비어서 C동 공간 일부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 내 청춘을
바친 곳,
영원한
역사가 되길

손훈석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



Q1.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7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부에서 자원활동 일을 하다가 1979년에 입사했습니다. KUSA 출신이다 보니 한위 청소년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마침 한위가 청년원을 만들고 직원을 뽑는다고 하기에 지원했고 청년원에 합류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청년원과 한위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청년원은 제 청춘을 바친 곳이니깐요. 건물도 겨우 3개 있고 주변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을 때부터 입사해 제 열정과 청춘을 바쳤으니,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애착이 있는 공간입니다. 청년원에서 했던 사업들과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발간한 ‘유네스코 청년원 20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히 안타까운 점은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설립 이후 원장으로 계셨던 분들, 지도교수로 일했던 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저랑 지금은 외국에 계시는 이철위 선생님밖에 없어요.

한위가 그렇듯 청년원은 외부의 압력 같은 걸 받지 않고 사업을 했었어요. 청소년 지도자 연수는 청소년 유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참가하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고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은 거의 독보적이었죠. 정부(문교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매우 적었고, 참가자들이 비용을 내기도 하고 한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과정을 진행했어요. 예산의 자세한 규모나 단위까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비중으로 따지자면 참가비가 40% 정도였고 나머지 60%는 외부강사 초빙 등을 위해 한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청년원에 계시는 지도교수 인력은 6명 정도 있었고 그 분들이 대체로 강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강사 분들을 초대해서 연수과정을 운영했어요. 지도교수는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복지학 등 전공이 다양했지만 ‘청소년 지도자 연수’다 보니 청소년 심리, 상담 기법 등의 과정은 전문가를 섭외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네스코 청년원은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민간 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원불교 교무님 등 성직자 분들도 지도자 연수를 함께 받았었던 거죠. 그 당시엔 어디 가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청년원은 개방되어 있었어요. 유네스코 이념에 누구에게도 구속 받지 않을 자유, 자발적 참여 같은 가치가 있었기에, 이를

표방해서 연수과정을 진행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권태준 총장님 임기 중에 청소년개발원이 생겼어요. 그때 개발원의 연구 인력들이 청년원에 와서 커리큘럼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청소년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짰고,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같은 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원은 자격증 같은 것은 안 주고 수료증만 줬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격증 제도라는 울타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를 일종의 노동자로 만들고 자격 검정 과정을 거쳐 양성하는 건 청소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원에 연수 과정이 없어지고 나서 저는 유네스코회관으로 발령 받았어요. 한위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도 했고, 김여수 사무총장님 오셨을 땐 제가 경영학 전공을 했으니까 관리팀장을 하라고 하셔서 회관 관리팀장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청년원이 문화원으로 개편되었고 이후에 문화원장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후배분들(조우진, 이선경, 서현숙)과 함께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청년원은 청소년 지도자 연수 뿐 아니라 대학생 연수도 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학생 160명 정도가 4박 5일 동안 연수를 받은 건데, 학생들에게 연수 기간 동안 ‘너희만 있는 게 아니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연수 마친 날 감정이 북받쳐 울던 학생들이 생각납니다. 연수 과정에는 장애 청소년들도 참여했었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참여해 청소년들과 함께 청년원에서 연수를 받은 것이죠. 그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자체도 없었고 ‘장애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이라고만 하지 ‘비장애인’ 용어 자체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계셨던 수녀님이 통합 교육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장애 학생들이 참가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선 인식이었던 거죠.

청소년 연수 과정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장애 학생들은 많게는 30명 정도였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교육 마치고 숙소에 가려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경사로로 돌아가야 하니까 연수 2일차가 되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휠체어를 밀어 준다

거나 장애 학생들이 계단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 시간엔 취미/선택활동으로 연극, 시화, 종이접기, 탈춤, 합창 등을 선택해서 장애인 학생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고, 연수 마지막 날에 모두 모여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연수기간 동안 친해진 학생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도 해 보기 좋았죠.

Q2. 청년원 공간에 대한 기억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추어지만 노래도 몇 개 만들었어요. “젊음아”라는 노래인데, 작곡은 제가 하고 작사는 고 강대근 원장님이 하셨어요. 밤에 숙소에서 나와서 하늘을 딱 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주변에 골프장도 생기고 했지만 그 당시엔 주변에 아무 것도 없기도 했고 다 트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밤에 달이나 별을 보면 감성이 차오르기도 하고 그 때 떠오르는 느낌으로 곡을 만들면 거기 오는 분들과 같이 부르고 그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들이 열 몇 곡 정도 되는데, 제가 만들고 연수생들과 직접 공유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좀 각별한 것 같아요.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사실 별과 달, 하늘을 보기에 청년원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길에서부터 1km 정도 들어와 아늑하게 산으로 둘러 싸여 있잖아요. 단점은 시설이 북향이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려진 방향이 남쪽이고 트인 게 북쪽이거든요. 또 물이 많이 안 나서 지하수를 엄청 깊게 두세 번을 팠었어요. 원래 지금 테니스코트가 있는 자리에 수영장을 계획했지만, 많은 물을 관리하는 일이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원에 있는 축구장은 잔디 관리를 엄청 잘 해서 여러 단체에서 탐내곤 했습니다. 청년원에 조경하는 분이 따로 있던 게 아니고 연수 과정 없을 때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청년원 나무도 제 손을 거친 것이 많습니다. 상징탑은 새로운 청년의 상징으로서, 나와 국가, 세계를 각각 상징합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은 1년에 4번 오는 일정이었는데 4번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16박 17일 동안 진행되는 연수 과정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연수 과정 중 하이라이트는 40km 행진 프로그램이었어요. 50여 명의 남녀 참가자들이 열정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 청년원에서 출발해 뒷산으로 해서 도로도 없는 산길을 걸어 이천 시내 가까이

까지 갔다 돌아 오는 코스였어요. 아침 9시에 나가면 밤 10시 쯤에서야 돌아 왔어요. 교장 승진을 앞둔 참가자의 경우 50대 중반도 계셨는데 낙오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서로 도우며 해냈던 기억이 있어요. 밤 10시 쯤이면 청년원 입구에서 영차, 힘 내자, 다 왔다는 탄성이 들렸어요. 연수 끝나고 설문을 받아 보면 “40km 행진이 참 기억에 남는다”,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등 40km 행진이 평가도 좋았어요.

*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세계를 향한
젊음의 열정

이승환
전 유네스코문화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한 것은 1978년 5월이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청년원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유네스코회관 7층에 한위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 쪽을 청년원 관련 부서가 사용했었고 나머지는 교육부, 과학부, 문화부, 기획실, 홍보부, 행정부 등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땐 과학부로 들어와서, 자연과학 쪽 사업을 했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제 일을 하느라 큰 관심이 없었죠.

당시 유네스코 사업은 교육, 과학, 문화 중심이었고, 청년 사업은 부각이 덜 되었습니다. 1977년에 청년원을 만들었을 때 당시 김규택 사무총장은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문교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이전에 청년원을 세울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도교수들과 더불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택 등을 지어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회관에 근무하던 기간에만 하더라도 청년 사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할 때 청년원에 가보았는데, 잔디밭도 있고 아주 좋았죠. 당시에 눈에 띄었던 사업은 조국순례대행진 정도였고,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종교계, 교육계 등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나 주된 고민 사항은 무엇이고,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배우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 양성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을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청소년 사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개 어른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유네스코 청년원의 위상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엔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얼마 안 돼 중단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재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도교수, 행정, 관리 등에 20여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유네스코회관 건물도 한일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받은 뒤였고, 유네스코쿠폰 수수료 수입이 컸던 때였기 때문에 청년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쿠폰은 개발도상국들이 교육,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비율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상당히 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유네스코쿠폰 수입이 1980년대 들어 줄어 들었고, 청년원이 한위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럼 유네스코회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년 사업이 유네스코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위 내부에 청년원에 대한 의견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78년에 한위에 들어 와서 문화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10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약 2년 간 유네스코 문화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사무총장들이 새로 오면 이천 (청년원) 시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관 내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부서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가니까 청년원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유네스코쿠폰 수입도 줄면서 예산 짜기가 힘들어졌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차인석 사무총장님 계실 때 청년원 식당을 용역으로 맡기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저는 기획실장이었기에 전체 예산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때 청년원 식당 직원은 정규직이었는데,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면 돈이 크게 절약될 수 있었지만 청년원 쪽에서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인석 사무총장께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내리셨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청년원의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예산의 기획 및 관리의 차원에서 바라봤던 거죠.

1996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계셨던 권태준 총장님 역시 청년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권태준 총장님은 이미 몇몇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도 생기고 관련 연구기관도 생겼으니 청년원에서 하는 국내사업, 특히 청소년 지도자 연수과정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신, 청소년 사업 중에서도 국제적 사업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원에서 일하던 연구 인력은 모두 유네스코회관으로 오고, 행정과 관리하던 사람들만 남아 외국 청소년 관련 단체 조사 및 자료집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인포유스(INFOYOUTH) 사업들을 청년원에서 하면서 청년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화 사업을 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러다보니 계속 진행되었던 핵심 사업이 중단되게 된거죠. 국제 사업에 집중하면서, 인터내셔널 유스 캠프(IYC)를 연계시키는 일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무슨 캠프가 있다 해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웠는데, 유네스코 청년원이라는 믿을만한 단체에서 보낸다고 하면 캠프

프 참가자 모집이 쉬웠어요. 그런 사업에 참여했던 것이 청년원의 국제화로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매해 여름에 청년원 IYC 담당자가 활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참가자들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참가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할 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덕분에 국제 캠프 연맹 같은 곳에서도 발언권이 보다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청년원은 국제 청년 캠프 뿐만 아니라 환경 캠프, 인권 캠프 등과 같은 작은 캠프들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사업 국제화의 봄이라는 흐름에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역량도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도 있었던 시기였으니까요. 청년원의 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과제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1995년도 1월에 만들어졌고, 5월에 만들어진 교육개혁안 역시 중요 내용이 세계화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도 그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활용하자고 해서 정부가 유네스코와 교육협력양해각서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국제이해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해서 199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국제이해교육센터로 지정했습니다. 1997년 4월에는 국제이해교육 진흥을 위해 청년원을 국제이해교육센터로 활용하자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향후 지역센터로, 그리고 국제센터로까지 키워내자는 발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생각을 정부에서 했던 것이죠.

제2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이명현 교육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에 국제이해교육센터와 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를 아시아 지역 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태준 사무총장도 취임 후 유네스코총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콜린 파워(Colin Power)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ADG)를 만나 방안을 논의한 결과 타당성 조사연구(feasibility study), 즉 국제 교육 역량 및 시설 등과 관련된 연구를 요청 받았습니. 저는 당시 교육팀장이었는데, 이 조사연구를 지원하였고 이 조사연구에서는 한국의 청년원 시설이 좋다는 점, 한국의 국제이해교육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어 오히려 국제 이해를 하는 데 유용성이 크다는 점 등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지역센터를 수립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다루어졌습니

다. 영국 런던대학의 Jagdish Gundara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Toh Swee-Hin 교수 두 분과 강순원 교수, 김현덕 교수 두 분이 참여해서 타당성 검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청년원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10억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2인 1실 등 준 호텔급으로 방을 구성하고, 회의실이나 전시실도 만들어 여러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 리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팀장이던 저는 청년원 시설 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아마 기획실이나 총무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증을 마친 후 1999년 제30차 유네스코총회에서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교육센터를 세운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이를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채택했는데 제일 처음에 프랑스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역시 예산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예산은 전부 우리가 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사전에 세미나를 수차례 열었고 지지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서구 국가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국제협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역할을 협의도 없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시 콜린 파워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ADG)가 적극적이고 유네스코 교육분과위원회 의장(말레이시아 국적)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반대에도 결국 채택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설치의 우리나라 국제 협력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는 서구에서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있는 정도였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다. 일례로, 당시 한국에 국제기구로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있었지만 한국은 의사결정의 주요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원 리모델링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이해교육연수 과정을 거기서 개최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여수 총장님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하셨는데, 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보다 더 포괄적인 이

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청년원에서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를 문화원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문화원’에 맞는 사업은 없었고, 제가 청소년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문화원으로서 무슨 사업을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IYC, 인포유스 사업도 문화원 관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원에 가 있었을 때, 저의 주요 임무는 예산이 부담되니까 적자를 줄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산이 인건비까지 해서 6~7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있는 직원들을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 직원이 나가면 나간 직원 수만큼 추가로 뽑지 않고 용역을 주는 등 노력해서 인건비를 약 3명분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문화원에 갔을 때 이야기한 것은, 계속 적자가 많아지면 갑자기 문화원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줄여 나가고 합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김여수 총장님은 시설 활용을 위해 영어연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도 문화원이 비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소년 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을 비롯한 상당수 직원들이 그것은 민간이나 상업 활동이지 우리가 그걸 왜 하냐는 반대가 컸었습니다. 제가 문화원장이 되면서 영어연수 사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한위의 일과 시설 활용의 문제는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반대가 많았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라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제안을 받은 사업은 아동 교육 사업이었는데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준비 과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호주 영어교사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겨울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아시아 연구를 하는 호주 초등교사 10명 정도를 한국에 모셔와 3주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홈스테이도 한 주간 진행했었습니다. 연수 참가비는 60만원씩 받았습니. 보통 교육부에서 영어 연수 3주동안 진행하면 12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의 딱 절반이 되더라고요. 당시 영어 교사연수를 하면 예산의 반은 생활하는 것에, 나머지 반은 선생님들 수당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호주 교사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호주 교사들이 한국 교사들과의 교류와 한국 문화 체험 등을 굉장히 좋아해 꽤나 성공적으

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도 1인당 30만원 정도 받아 예산을 2억 원쯤 줄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당시 문화원 시설이 완전히 공실인 기간에 이 연수로 시설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그것이 큰 돈은 아닐지는 몰라도 한 번 줄이면 그만큼 또 계속 줄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호 교사 연수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발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비어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냈고 사업의 의미도 있었으니 사업 기획 및 운영 차원에서는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01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문화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김여수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한위 사업본부장을 하라고 하셔서 문화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호 교사 연수의 경우 한국 교사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호주 교사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한복, 다른 사람들은 한식,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가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교사들 모두 교사로서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애환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호주 교사들은 단지 영어만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러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호주 교사들에게는 ‘한국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 가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화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한·호 교사 모두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강화 뿐만 아니라 자긍심 강화 등의 차원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좋았지만,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공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 그동안 많은 연수를 진행해온 경험 많은 기존 청년원 직원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걱정하면서 할 수는 없어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원에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었지만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또 유네스코회관에 왔다 갔다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원은 이삼열 총장이 온 뒤로는 평화센터로 바뀌었고, 이천영어마을이 생기기까지는 한·호 교사 연수 등이 청년원 유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계 있어 청년원이 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원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원의 직원들이나 청년 사업의 수준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자발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프

로그래를 진행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원 출신 분들이 청소년 쪽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원래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이 유네스코 청년원에 들어가기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발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원을 만들었을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한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을 가진 부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라는 게 그 나라에 종속이 된다고 하면 진정한 국제기구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카테고리2센터가 유네스코 직속기구인 카테고리1센터가 아닌 유네스코 협력기구이지만 독립된 이사회를 갖고 법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만들어졌고 2003년에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APCEIU를 비롯한 카테고리2센터들은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이사회를 지닌 독립법인화를 요구받았고 그래서 노력한 결과 독립법인이 되었습니다. 독립법인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독립성을 지게 되면 자율성 확보와 예산 확보 등에 있어 훨씬 좋은 입장을 지니게 되지요.

문화원에서 중요한 사업은 한·호 교사 연수를 포함한 국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흐름 안에서 50년 가까이 된 시설인데, 청년원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매각된다는 것에 대한 감상도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사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와다 하루키 선생도 초청해서 그 분이 며칠 평화센터에서 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원이 그런 활동을 안 했으면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공간이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면서, 외국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청년원이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청년야영(IYC) 외에도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 APCEIU 등에서도 청년원을 활용하게 되면서 참가자의 다양성, 지평이 확장되었고 문화원 활동들이 한층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원 당시엔 국내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를 벗어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다웠던
보금자리

한미현
전 유네스코 청년원 직원



Q1. 청년원에 처음 근무하시게 된 연도 및 근무하셨던 기간 등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8년도에 유네스코 청년원 운영 부서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어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 명동 유네스코회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Q2. 처음 입사하셨을 때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행정 업무, 특히 임대 및 대관 업무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관이 주가 아니었고, 청소년이나 청소년 지도자 연수 사업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청년야영(IYC) 사업과 같은 국제 청년 사업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관보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자체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주로 일반 시설 관리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이나 운영은 연수과에서 많이 담당을 했었죠. 특히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했는데, 예산의 일부를 유네스코회관에서 받아 와서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बैं킹과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는 부서장들이 유네스코회관으로 출퇴근하면서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 인터넷 बैं킹이 되었을 때에는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출금을 해와서 현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원에 있었던 직원들의 월급 출납, 그리고 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했었습니다.

Q3. 처음 입사하셨을 때 지금의 평화센터의 모습과 많이 달랐었나요?

지금 평화센터의 식당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식당 건물에 예전에는 단층으로 약간 한옥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 식당 건물을 1988년에 새로 준공했습니다. 준공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준공식은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옆에서 보기만 했었어요.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외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커팅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은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Q4. 1988년부터 2017년까지 29년 동안 평화센터에서 근무하셨는데,
평화센터가 매각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의 감회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아쉬웠죠. 유네스코회관에 온 지 얼마 안돼서 그 소식을 접했는데, 거의 30년을 근무했으니까 아쉬운 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었으니까요. 학교로 치면 돌아갈 모교가 없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원에서 강대근 원장님께 주례를 맡기고 사내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이천 영어마을도 설립되어 20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었죠. 청년원에 근무하시던 분과 1994년도에 예전에 국제회의실로 사용을 했던 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원이 없어지는 것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직장생활도 시작을 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포함해서 총 3번의 결혼식이 청년원에서 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외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아마 강당에서 결혼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결혼식의 풍경은 건물들도 오래되어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원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장소를 거기로 택했습니다. 청년원에 근무하시던 직원분들도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Q5. 개인적으로 청년원과 관련된 또 다른 추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입사하기 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청년원으로 소풍을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1969년생이니까 초등학교를 1970년대에 다녔는데, 청년원 바로 아랫 동네에 있는 매곡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부터 청년원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소풍은 초등학교 3~4학년 때 갔던 것 같습니다. 소풍을 갈 때 학교에서 진입로 입구까지 2km 정도를 걸어 갔고, 진입로를 1km 걸어 가서 그때 보았던 넓은 잔디밭이나 운동장이 기억에 납니다. 잔디밭에 둘러앉아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일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코스였습니다. 학교에서 짐까지 가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일 때 기억이 또 있는데, 청년원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매곡초등학교에 와서 공연을 한다가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구경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KUSA 같은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근무를 할 때는 KUSA의 조국순례

대행진이 열리던 때였는데, 전국에서 다 모이면 1,000명 이상 모였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조국순례대행진 참가 학생들이 동네를 지날 때 주민들이 나와서 물과 음료수를 나눠 주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교 시절에는 제가 다니던 매곡교회에서 수련회를 청년원에서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Q6. 매곡리에 사셨었는데, 매곡리 주민들의 청년원에 대한 기억은 어떠한가요?

도로 내고, 나무 심고, 잔디 심는 등등 유네스코 청년원 조성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때 동네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매곡리 주민은 70가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한 학년에 1학급이 있었는데 한 학년에 약 40명씩 6학년, 총 240명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 지금은 6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원은 매곡리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곳이었어요. 매곡리에 그렇게 큰 시설이 주변에 없었고 이천시 전체에도 유네스코 청년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주변 지역에 취직하라는 부모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청년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청년원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매곡리 주민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것 같아요.

Q7. 청년원-문화원-평화센터에 거의 30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제일 바쁘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1990년대가 가장 바빴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줄이고 청년원을 외부 대관을 주기 시작했는데, 대관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대관 홍보는 별도로 많이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대관 수요가 많았습니다. 기업체 연수도 많이 진행하였는데, 대우자동차 신입사원 연수, 삼성 신입사원 연수 등도 청년원에서 열렸어요. 청년원 대관 홍보는 굵직한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연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한 번 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진행했습니다. 교육 일정은 외부에서 소화하고 숙박을 청년원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

니다. 그러면서 청년원이 큰 규모의 직원 연수를 하기에 좋다는 소문이 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축협에서도 신입 직원 연수를 청년원에서 했었고 지역의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는 교회 수련회 하러 청년원에 많이 왔었습니다.

Q8. 근무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 차가 다닐 수 없게 된 때가 기억이 납니다. 폭설로 잔디밭에 눈이 성인 하반신 높이까지 왔었습니다. 비가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이 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의 영어마을 숙소가 원래는 테니스장이었는데 산사태로 뭉개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 고라니와 토끼가 잔디 운동장에 뛰어 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청년원을 조성할 때 진입로 주변에 작은 잣나무를 심었는데, 잣나무가 자라서 잣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잣 수확을 하지는 않아 청설모들이 잣을 먹는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떨어진 잣을 주워 술을 담가 먹었던 얘기도 들었어요. 또 운동장 주변 나무들은 벚나무예요. 봄에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벚나무는 잣나무 심을 때 다같이 심었다고 들었어요. 식당 뒤편 경사로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장관이었는데 특히 가을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봄에는 벚꽃 피고, 여름에는 정말 푸르른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온 뒤 풍경도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청년원의 사계절은 모두 다 아름다웠습니다.

청년원에서 근무하면서 즐거웠습니다. 1990년대에는 청년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0명이 될 정도로 직원도 많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테니스도 배웠고, 조성옥 총장님이 청년원 오셨을 때 같이 테니스 쳤던 기억도 납니다. 또한 볼링 동호회도 있어서 청년원 직원들 다같이 볼링 게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원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인력이 줄면서 관리가 안 되고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인터넷 बैं킹이 도입되기 전에는 월급날에 월급을 다 배분해서 봉투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그때가 힘들기는 했지만 월급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 내 삶과 추억이
깃든 곳,
아름다운
작별이 되길

전명철
유네스코평화센터 관리소장



Q1. 평화센터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시게 되었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1983년도 8월 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해서 2020년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유네스코평화센터 마지막 정리에 앞서 시설 관리를 위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학교 졸업하고 아는 분 소개로 청년원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전기를 전공해서 전기실에 근무하며 전기 일을 맡았습니다. 방송 부분, 또 시스템 설치도 담당했고, 전화 같은 통신 부분도 담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인터넷 설치, 통신 쪽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쪽에 일하다 보니까 소방 안전 관리 업무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원 근무 인력 규모가 줄고 직원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다보니 나중에는 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뿐 아니라 기계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 냉방, 공조 시스템, 환기, 가스 관리도 했습니다. 가스는 보통 LPG 저장소가 있는데, 식당 쪽에 있는 가스 저장고의 안전관리자 임무도 맡아 했습니다. 1999년부터 통합 관리가 되면서 용역까지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평화센터 조경을 관리하는 일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기 전공이기 때문에 많은 잔디와 수목, 조경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조경기사 자격증을 따서 수목과 잔디를 관리했어요.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종합적으로 전공이 아닌 일들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청년원이 잘 될 때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 과정,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들, 외부 임대 등 하루에 두 세 팀이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쁘지만 보람도 있고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밤에 학생들이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에 둘러 앉아 캠프 파이어를 하면, 떨감 준비해서 갖다 놓고, 불 놓아 주고, 피어 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평화센터가 대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게 되자 평화센터에 인적이 끊기니 산 속이라고 그런지 야생 동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들개, 들고양이, 청설모, 멧돼지, 고라니들이 밤에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Q2. 유네스코평화센터와 작별할 때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이곳에서, 일을 하며 참 많은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일한 곳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무리 잘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일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일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평화센터가 잘 유지 되었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마지막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평화센터와 작별하는 날, 여기 매곡리 마을 주민들에게 한위 직원들이 마지막 고별인사를 한 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 되면 좋겠고, 평화센터가 잘 마무리되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청년원에
뿌리내린
한국 청년들의
정신

윤정배
경상대 명예교수,
전 KUSA 14기 지도교수 / 전 KUSA 총동문회장



1977년 서울공대 KUSA 회원이 된 저는 1978년 제19회 회장단 연수회에 참가하면서 청년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회장단 연수회에서 있었던 ‘청년원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책도 접하고 하면서 의식이 확장되었습니다. 회장단 연수회에는 전국 55개 KUSA 회장단, 협회 임원까지 총 150명이었고, 초청 선배로 참가한 1980년 학생 지도자 교육 과정에는 전국 KUSA 회원 150명, 1978년 참가한 5회 조국순례대행진에는 56개 대학, 1,2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청년원은 나와 청년들에게 ‘만남과 눈뜸’의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나’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 속에 막연한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했고, 이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새물결운동’은 KUSA의 정신적 출발점이자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운동의 의미는 ‘새물결 현장’에서 밝히고 있고, 5가지의 ‘실천강령’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78년 여름에 열린 제5회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하면서 청년원은 ‘고향’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다보니, 청년원의 디자인과 거기에 담긴 스토리, 콘텐츠들이 제겐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980~1990년대 청년원에서 조국순례대행진 합류식 행사와 함께 지도교수 협의회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저는 지도교수를 맡아 강원대 박한설, 동덕여대 김운배 교수님과 함께 지도교수의 애환을 나누곤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청년원이 출범하기 전 KUSA 활동의 중심지는 유네스코회관이었으나, 청년원이 설립되고부터는 청년원이 KUSA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무엇보다 청년원은 조국순례대행진의 마지막 합류식 장소여서 전국에서 KUSA인들이 모이고, 고생한 순례자들을 축하하고 함께 ‘축제를 열며 하나가 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의 합류식 전통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KUSA 총동문회의 ‘새물결 한마당’ 행사로 이어져 청년원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청년원은 그 시절 KUSA인에게는 “함께 가는 길-마침내 하나가 되다”는 슬로건처럼 모든 KUSA인의 만남은 언제나 “그 한 곳, 청년원, 우리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의 상징이 된 것처럼, 청년원은 KUSA 청년운동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정신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저 또한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조국순례대행진입니다. 이 대행진은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여정이었으며, KUSA와 조국순례대행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당시 조국순례대행진은 단순한 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대규모의 청년 순례였고, ‘국정교과서’와 ‘대한뉴스’에서 다뤄질 만큼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은 유네스코와 KUSA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야 할 유산이자 우리 삶의 품격을 드높이는 가치였습니다. 이 대행진의 중심에는 “마음으로부터의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활동을 넘어, 인류 전체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품격’과 연결된 것이었기에 조국순례대행진은 KUSA인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총동문회는 2024년 4월 청년원을 방문하여 ‘청년원 기억 아카이빙’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와 청년원, KUSA에 담긴 의미들을 되돌아 볼 기회였습니다. 청년원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이었던 당시 우리나라가 청년 훈련의 기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을 때, 청년원을 건립해 이를 체계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KUSA는 청년원을 통하여 전국적인 학생단체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원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자 프로그램의 기초를 세운 창립자(founder)입니다. 청년원이 수행한 성공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겪어온 세대가 볼 때 한위가 청년원을 만들고 청년들을 훈련한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원이 수행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수많은 스토리와 콘텐츠들이 청년원에 녹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대 사무총장

유네스코 청년원 역대 원장

유네스코 청년원 주요연혁

책자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사진으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유네스코 청년원 관계 자료목록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대 사무총장

1대	정대위	<u>1954.1.30 - 1956.7.19</u>
2대	장내원	<u>1956.7.20 - 1962.4.17</u>
3대	김성일	<u>1962.4.18 - 1962.10.17</u>
4대	조민하	<u>1962.10.18 - 1966.12.17</u>
5대	박노태	<u>1966.12.18 - 1969.2.23</u>
6대	김경수	<u>1969.2.24 - 1973.2.24</u>
7, 8대	김규택	<u>1973.2.25 - 1980.11.14</u>
9대	박봉식	<u>1980.11.15 - 1984.11.14</u>
10, 11대	조성옥	<u>1984.11.15 - 1990.6.4</u>
12대	김영식	<u>1990.6.12 - 1991.4.6</u>
13대	정희채	<u>1991.5.6 - 1993.7.21</u>
14대	차인석	<u>1993.8.9 - 1996.10.9</u>
15대	권태준	<u>1996.10.10 - 2000.10.9</u>
16대	김여수	<u>2000.10.10 - 2004.10.9</u>
17대	이삼열	<u>2004.10.22 - 2008.10.21</u>
18대	전택수	<u>2008.10.22 - 2012.10.21</u>
19대	민동석	<u>2012.10.29 - 2016.10.28</u>
20대	김광호	<u>2016.12.26 - 2020.12.25</u>
21대	한경구	<u>2020.12.26 - 2024.12.25</u>

(2) 유네스코 청년원 역대 원장

	근무기간	성명	비고
❶ 청년원 시기	1973. 11. 1 - 1974. 1. 16	이기덕	청소년부장
	1974. 1. 17 - 1977. 7. 24	김진원	
	1977. 7. 25 - 1981. 5. 24	이구재	
	1981. 5. 25 - 1985. 2. 21	김진원	
	1985. 2. 22 - 1986. 11. 20	권오균	
	1986. 11. 26 - 1988. 3. 30	장윤수	
	1988. 3. 31 - 1989. 5. 29	김진원	
	1990. 11. 5 - 1994. 11. 11	강대근	
	1994. 11. 12 - 1996. 3. 25	정두용	
1996. 3. 26 - 2001. 9. 30	강대근		
❷ 문화원 시기	2001. 10. 1 - 2003. 7. 9	이승환	
	2003. 7. 10 - 2005. 3. 31	강대근	
	2005. 4. 1 - 2006. 5. 15	손춘석	
❸ 평화센터 시기	2006. 5. 16 - 2009. 11. 15	김승윤	
	2009. 11. 16 - 2011. 7. 15	허 권	
	2011. 7. 16 - 2015. 12. 31	황태학	
	2016. 1. 1 - 2019. 3. 31	안형균	
	2019. 4. 1 - 2020. 7. 11	황태학	
	2020. 7. 12 - 2023. 12. 31	윤병순	미래혁신본부장

(3) 유네스코 청년원 주요 연혁

<u>1974.3</u>	유네스코 청년 종합수련장(Youth Ground) 건립을 위한 국유임야 대부·허가 신청
<u>1974.8.1</u>	부지 조성공사 기공식
<u>1975.12</u>	본관, 숙소 A·B동 및 식당 완공(연건평 1,050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소년부를 청년원으로 개편
<u>1976.12</u>	연수관(숙소 C동) 및 대강당 완공
<u>1977.7</u>	각종 시설 보완 및 조경 사업 착수
<u>1977.7.18</u>	유네스코 청년원 개원
<u>1977.7.18-23</u>	대학생 연수과정 개설(유네스코학생회 임원단 대상)
<u>1977.10</u>	한국 사회교육지도자 협의회 개최
<u>1978.4</u>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단기과정) 개최
<u>1978.9.28-10.1</u>	청소년 연수과정 개설(제1차 청소년 연수과정에 서울청소년회관 부설 고등공민학교생 137명 참가)
<u>1978.12</u>	‘청년연구’ 제1집 발간
<u>1979.4</u>	제1기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개설
<u>1979.6.11-16</u>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개설, 제1기 제1과정 운영(33명 참가)
<u>1980.3</u>	지도교수 해외연수 실시(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동남아)

<u>1980.8</u>	외국 청소년 연수 실시(사우디아라비아)
<u>1981.3</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교재 발간
<u>1981.8.16-9.13</u>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지도자 방한 연수(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지도자 110명, 한국 청소년지도자 36명 참가)
<u>1981.11</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육성 대책 세미나 개최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초과정(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실시
<u>1982.3.20</u>	아마두 마타르 음보 유네스코사무총장 방문
<u>1982.8.5-18</u>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 방한 연수(사우디 청소년 및 지도자 46명 참가)
<u>1982.11</u>	청소년 정책 세미나 개최
<u>1983.9.6-10</u>	근로청소년 문화활동 연수과정 운영(근로청소년 85명 참가)
<u>1983.10</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 통합과정 실시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교재(청소년과 함께) 개편
<u>1983.11</u>	청소년과 환경에 관한 세미나 개최
<u>1984.4</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자를 위한 추수과정 실시
<u>1984.10</u>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연수 개최
<u>1985.7</u>	미국 위스콘신 국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하계 영어교육 과정 개최(미국인 강사 9명, 국내 중학교 교사 80명 참가)
<u>1985.1</u>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 특별 연수 과정 개최(아태지역 8개국 청소년 지도자 20명 참가)
<u>1985.10.7-21</u>	세계 청소년의 해 기념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 특별훈련과정(정부 대표 및 청소년단체 대표 등 20명 참가)
<u>1985.12</u>	청소년 관계 문헌목록집 발간

<u>1986.7.1-14</u>	재외 교포학생 하계학교 개최(1회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파라과이, 독일 재외교포 청년 163명 참가)
<u>1986.10.13-23</u>	평화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관한 아태지역 청소년전문가회의(아태지역 청소년정책 담당자 등 25명 참가)
<u>1986.12</u>	부탄 청소년지도자 육성 지원
<u>1987.7.1-14</u>	재외 교포학생 하계학교 개최(2회 미국, 캐나다, 페루 재외교포 청년 162명 참가)
<u>1988.6.24-7.7</u>	재외 교포학생 하계학교 개최(3회 해외 교포 청년 200명 참가)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창설(3회 실시)
<u>1990.10</u>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기초)과정
<u>1991.10</u>	한국·말레이시아 청소년지도자 교환계획 협약 조인 및 실시
<u>1992.10</u>	국제 청소년광장 개최 (24개국 청소년 및 지도자)
<u>1993.3</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과정 교재(청소년과 함께) 개편
<u>1994.9</u>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 제 1 기 전문과정 개설
<u>1994.10.4-8</u>	아태지역 청소년단체 자문회의(아태지역 29개 단체 44명 참가)
<u>1994.11</u>	청년연구 17집 발간으로 발간 종료(1978-1994 연간 총 17집 발간)
<u>1994.12</u>	제1기 청소년 자원활동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
<u>1995.3.10</u>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 1차 국내 워크숍(20개 청소년단체 27명 참가)
<u>1995.5</u>	뉴스레터 'INFOYOUTH' 창간
<u>1995.12</u>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국제이해교육센터로 지정
<u>1996.9</u>	청소년관계 학위논문 목록집(1958-1994)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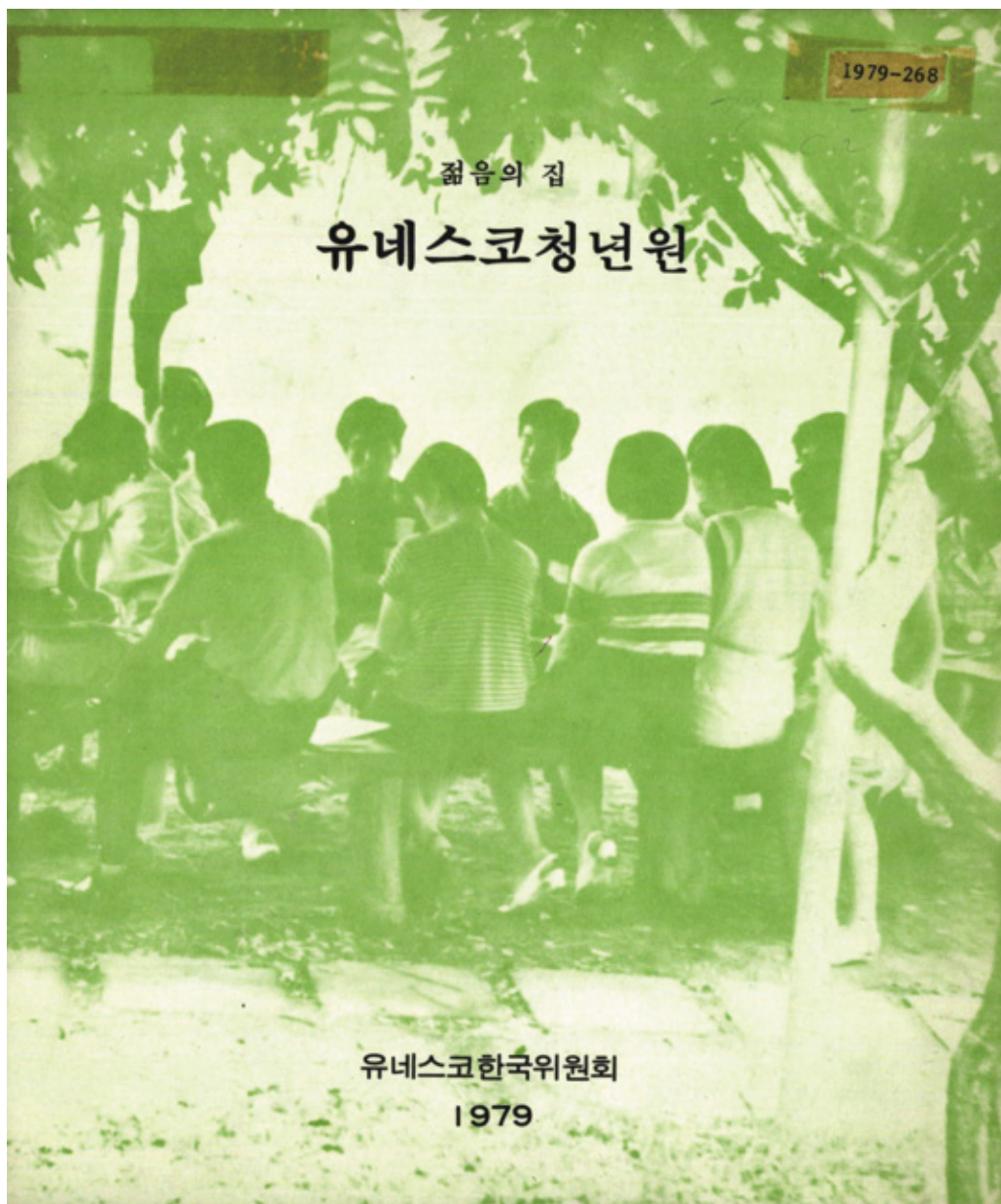
<u>1996.10.8-11</u>	제50차 청소년 연수과정(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110명 참가)을 끝으로 한국 청소년 연수과정 종료(총 50회 누적 수료생 7,063명)
<u>1995.10.20-21</u>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 2차 국내 워크숍(11개 청소년단체 23명 참가)
<u>1997.5.26-29</u>	세계청소년정보망(INFOYOUTH)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15개국 전문가 27명 참가)
<u>1997.8.18-27</u>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실시(전국 초중등 교사 40명)
<u>1997.10.20-24</u>	제29기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 제4과정(59명 참가)을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 종료(총 112회 누적 수료생 6,763명)
<u>1997.12</u>	아태지역 청소년단체 목록집(18개국 71개 단체 수록) 발간
<u>1998.8.17-26</u>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실시(전국 초중등 교사 70명)
<u>1999.8.16-25</u>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실시(전국 초중등 교사 70명)
<u>2000.8.14-23</u>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실시(전국 초중등 교사 70명)
<u>2000.8.25</u>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개원
<u>2001.10.1</u>	‘유네스코 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u>2003.7.1-7.5</u>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Global Seminar Seoul Session) 개최(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18개국 청년 160명 참가)
<u>2003.8.17-20</u>	브릿지사업 아프리카 청년 초청 프로그램
<u>2003.12.27-1.21</u>	한국-호주 지구촌이해 영어교사 연수 개설(제1회 연수에 호주 및 경기도 초중등 영어교사 97명 참가)
<u>2004.1.5-1.17</u>	제2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호주 및 경기도 초·중등 영어교사 115명 참가)
<u>2004.6.21-7.11</u>	제4차 아태지역 교원연수 개최(아태지역 교사 34명 참가)
<u>2004.7.13-9.7</u>	제39차 국제청년야영 개최(14개국 93명 참가)
<u>2004.7.29-8.2</u>	교원 직무연수 심화 과정 개최(국제이해교육 교사 33명 참가)

<u>2004.7.30</u>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사무총장 방문
<u>2005.1.3-1.15</u>	제3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호주 및 경기도 초·중등 영어교사 118명 참가)
<u>2005.8.11-8.22</u>	제40차 국제청년캠프 개최(21개국 107명 청년, 대학(원)생 참가)
<u>2005.12.17-12.18</u>	유네스코학교 교사총회 개최(유네스코학교 담당 교사 50명 참가)
<u>2006.1.2-1.14</u>	제4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호주 및 경기도 초중등 영어교사 118명 참가)
<u>2006.8.3-8.13</u>	제41차 국제청년캠프 개최(26개국 청년·대학생 105명 참가)
<u>2006.5</u>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명칭 변경
<u>2006.9.16</u>	지구촌 평화마을 조성 기본합의서 체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천시)
<u>2007.8.9-8.19</u>	제42차 국제청년캠프 개최(20개국 127명 참가)
<u>2008.5.15</u>	지구촌평화마을(Global Peace Village 이천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공동협력 협약서 및 지구촌평화마을(이천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체결(이천시청)
<u>2008.8.7-8.17</u>	제43차 국제청년캠프 개최
<u>2008.8.25-8.29</u>	UNU-KNCU 글로벌 세미나(한·중·일·몽골 동북아 4개국 및 기타 3개국 청년·대학생 98명 참가)
<u>2008.11.14</u>	지구촌평화마을(Global Peace Village 이천영어마을) 개원(대강당 및 원어민 숙소 리모델링, 상생관 신축)
<u>2009.10.24-10.27</u>	아태지역 유네스코협동학교 ESD & MDGs 포럼 개최(ESD & MDGs, 전문가, 국내 협동학교 교사 50여 명 등 총 100여 명 참가)
<u>2010.7.16-18</u>	제1회 모의 유네스코총회 개최(전국 고교생 80명 참가)
<u>2010.8.13-8.15</u>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전국 유네스코학교 중·고교생 46명 참가)
<u>2010.11.12-11.14</u>	청소년 세계시민선언문 채택(전국 유네스코학교 교사, 학생 100명 참가)

<u>2011.1.10-2012.1.20</u>	제9회 한국-호주 지구촌이해 영어교사 연수(남호주교육청 소속 교사 14명, 한국인 교사 51명 참가)를 끝으로 사업종료(총 10회 907명 수료)
<u>2011.6.27-7.2</u>	UNU-KNCU 글로벌 세미나(한·중·일·몽골 동북아 4개국 및 기타 3개국 청년·대학생 80명 참가)
<u>2011.8.22-8.26</u>	제5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개최(아시아 22개국 청년활동가 및 청년 분야 관계자 등 70여 명 참가)
<u>2012.6.10-6.12</u>	2012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전국 45개 유네스코학교 고교생 90명 참가)
<u>2012.8.24-10.28</u>	제8회 모의 유네스코총회 개최(전국 고교생 80명 참가)
<u>2012.10.15-10.18</u>	유네스코 브릿지 1기 지역활동가 귀국 및 귀국훈련 실시
<u>2012.11.9-11.11</u>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개최. 전국 47개 ASPnet 고등학교 학생 및 중·고 교사 등 130명 참가
<u>2013.5.24-25</u>	유네스코 대학생 볼론티어 1기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전국 대학생 28팀 80명 참가)
<u>2013.6.8-6.9</u>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 중·고교생 50여 명 참가
<u>2013.8.7-8.11</u>	유네스코 키즈 여름캠프 개최(전국 초등생 80명 참가)
<u>2013.11.9-11.10</u>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개최. 고교생 60명, 교사 5명 참가
<u>2014.7.21-7.22</u>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Đ) 한마당 개최
<u>2015.6.25</u>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발대식 및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대학생 80명 참가)
<u>2016.5.13-5.14</u>	유네스코 대학생 볼론티어 발대식(대학생 80명 참가)
<u>2016.8.3-8.9</u>	유네스코 세계시민캠프 개최 학생, 교직원 100명 참가
<u>2016.8.7-8.10</u>	2016 모의 유네스코총회 개최(전국 유네스코학교 고교생 68명 참가)
<u>2016.11.4-11.19</u>	유네스코 중학생 세계시민캠프 개최(인천교육청 관할 중학생 161명 참가)
<u>2017.1.23-1.25</u>	고등학생 세계시민캠프 개최(서울교육청 관할 고교생 85명 참가)
<u>2017.6.9-6.11</u>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전국 고교생 60명 참가)

<u>2017.6.29-6.30</u>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워크숍 개최(대학생 100명 참가)
<u>2018.6.8-6.10</u>	2018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개최(전국 유네스코학교 고교생 60명 참가)
<u>2022.12.31</u>	이천영어마을 위수탁계약 종료

(4) 책자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젊음의 집 유네스코 청년원
1979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심신을 연마할
활기찬 젊음의 터전

유네스코대학생수련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

전립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 확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회 구조가 크게 변용되었으며 경제,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는 고도로 진보된 단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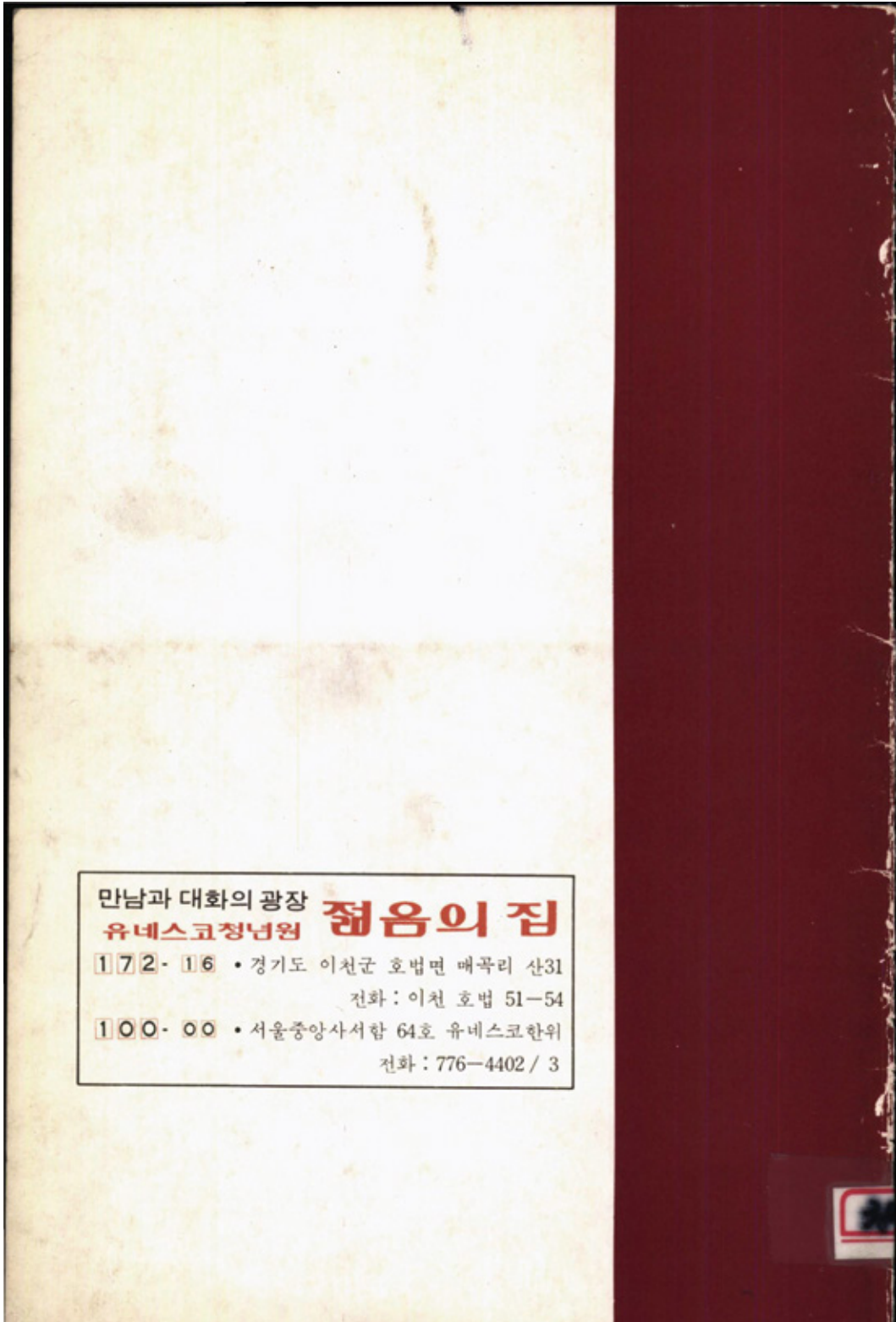
교육기관이 크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전 "사회적 용어"를 지치지 않고서 일하게 되었다. 경제적 필요의 욕구로 인종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후에 "사적의 문제"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변화속에서 청소년의 결핵유형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재구성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지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5년부터 이러한 국내외 필요성에 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관한 연구, 청소년단체활동의 진흥, 계획적 교육과정, 청소년들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유네스코 총회(제13회)가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및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 제공 갖추어 위한 단계적 조치였다.

유네스코 청년원
젊음의 집
1982
1982년에
발간한 유네스코
청년원 소개 책자



만남과 대화의 광장
유네스코청년원 **젊음의 집**
172-116 •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배곡리 산31
전화: 이천 호법 51-54
100-000 • 서울중앙사서함 64호 유네스코한위
전화: 776-4402 / 3

유네스코청년원

UNESCO YOUTH CENTER

정음 이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유네스코청년원 전경 ●

유네스코청년원은 “새 청년상의 창조”를 목표로 청년들의 자기수련을 도모하고 각종 청소년 활동을 위해 봉사하며 연구활동과 관련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산하기구입니다.



유네스코청년원

UNESCO YOUTH CENTER

점음이



연혁 / 활동목표 / 연수사업 / 시설 / 부속사업 / 전망 / 기구 / 생활안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혁

유네스코 청년원은 모든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가는 곳입니다. 명예로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집”이라 불리어지는 유네스코청년원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65년이래 한국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여 온 이래 보다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청소년문제 전문회의(1965년)를 개최하고 그 후 교외교육의 시범사업으로 유네스코학생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최하여 왔으며, 국제야영봉사활동, 연합봉사활동, 한·일학생교환계획등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교외활동 지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활동해 온 유네스코학생협회는 전국 62개 대학(교)에 유네스코학생회(KUSA)를 갖게되어 약 8,000여명의 회원을 포용하는 학생단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학생활동 지도의 경험을 통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전인적인 교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기구의 확충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어 지난 10여년의 경험과 토대로 1974년 8월 1일에 유네스코 청년원의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문을 열었다.

● 지난 15년간의 주요활동 기록을 보면

- 1965. 5 청소년문제 연구협의회 개최
- 6 제1회 유네스코학생활동 지도교수협의회 개최
- 7 사무국내에 청소년활동 전담부서 (운영부) 신설
- 제1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개최
- 10 서울시내 13개 대학 (교)에 유네스코학생회조직
- 1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결성
- 1966. 8 제1회 국제야영봉사활동 개최
- 제1회 한·일학생교환계획 실시
- 1967. 6 운영부를 청소년부로 개편
- 9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위원회 설치
- 11 제 1년차 새물결운동 전국대회 및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결성
- 12 「보람있는 대학생」 발간
- 1969. 7 전국 대학생연합봉사활동 개최
- 12 청년문화제 개최
- 1970. 2 「학생문제연구」 발간
- 11 아시아지역 청소년지도자회의 개최
- 1974. 2 전국 대학신문 기자연수회 개최
- 8 유네스코 청년원 기공
-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개최
- 1975. 12 본관 및 숙소2동, 식당을 완공
- 청소년부를 청년원으로 개편
- 1976. 12 연수관과 대강당을 완공
- 1977. 7 대학생연수과정 개설
- 1978. 4 청소년지도자연수과정 개설
- 9 청소년연수과정 개설
- 1979. 1 「청년연구」지 발간
- 1980. 1 교수해외 연수실시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동남아)
- 1981. 11 청소년활동지도자 육성을 위한 대책 세미나 개최

● 청년원 상징마크 ●



활동목표

유네스코청년원은 전문 연수기구로서 한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 스스로 그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가게 하는 젊음의 광장이다. 또한 청소년 관계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한국의 청소년 활동에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 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 청년상의 창조”를 목표로 실시되는 연수과정은 아래의 세가지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

- 국가관이 투철한 청년
 - 민족적 긍지를 지닌 청년
 -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 승공통일하는 청년
- 자주 개척적 기상의 청년
 - 탐구하는 청년
 - 주체성 있는 청년
 - 진취성 있는 청년
- 도의를 구현하는 청년
 - 정의를 실현하는 청년
 - 협동하는 청년
 - 질서를 존중하는 청년.
- 세계를 바라보는 청년
 -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청년
 - 세계속의 한국을 이해하는 청년
 - 세계로 나아 가는 청년

이러한 목표는 젊은이들이 자발적 참여와 만남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 이끌어낸 다짐 속에서 성취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유네스코청년원은 “젊은이와 더불어”라는 유네스코 청소년 활동의 기본자세를 갖고 젊은이와함께 새로운 청년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네스코청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며,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훈련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 대학생연수과정

“새 청년상의 창조”를 목표로 청년의 좌표를 설정하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설계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주체적인 자아의 발견과 성취의욕을 통하여 새로운 청년상을 모색해 보는 과정으로 본과정(4박 5일), 단기과정(1박 2일), 특별과정(2박 3일)으로 나누어진다.

● 청소년연수과정

이 과정은 교외청소년과 취업청소년을 위한 전문과정으로서 근로청소년, 농촌청소년등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본과정으로 실시된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창조적인 직업윤리를 일깨우고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면서 소속된 집단이나 지역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이다.

● 청소년지도자연수과정

이 과정은 현재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청소년 활동에 뜻이 있는 지도자를 위한 과정이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수행방법, 청소년지도의 효과적인 방법등을 연구 검토하면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본과정(4박 5일 4개과정)과 기초과정(4박 5일)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유네스코청년원은 특별훈련과정으로 사회성개발훈련을 실시하며, 국제활동 연수과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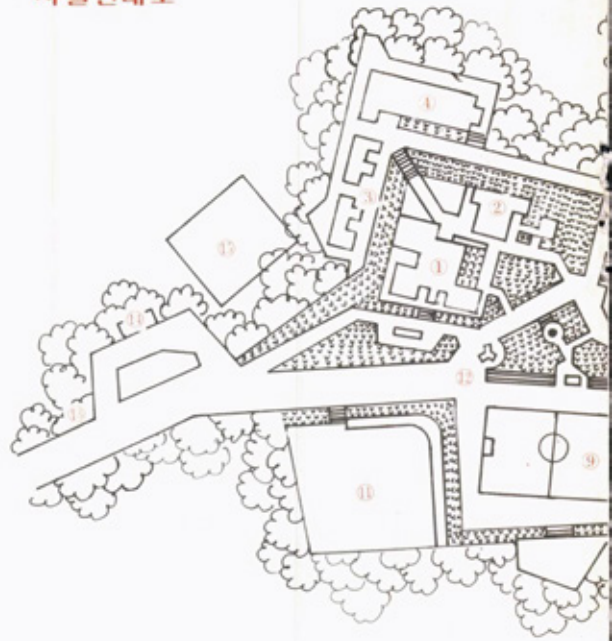
연수사업

연수사업은 유네스코 청년원의 중점사업이다. 1977년 대학생연수과정을 개설한이래 근로청소년, 농촌청소년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사회교육 지도자의 세미나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전문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시 설

유네스코 청년원은 내일을 이끌어갈 모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는 만남과 대화의 광장입니다.

시설안내도



- ① 본관-강의실 / 회의실 / 방송실 / 부속실 / 자료실
- ② 식당 - 연수생식당 / 직원식당 / 매점
- ③ 제 1·2 연수생 숙소
- ④ 연수관 - 연수실 / 제 3 연수생 숙소 / 교수연구실
- ⑤ 대강당 / 제 2 강의실
- ⑥ 별관
- ⑦ 정구장

소재지 : 경

- 영동고속도로

서 6 km 입

- 이천읍에서



- ⑧ 제 1아영장
- ⑨ 축구장
- ⑩ 배구장
- ⑪ 야외집회장
- ⑫ 기념탑
- ⑬ 수위실
- ⑭ 주차장
- ⑮ 제 2아영장 (예정)

기도 이천군 호법면 매곡리 산 31번지
 도로 덕평인터체인지 (용인-이천간)에
 있다.

남서로 16km 입니다.

연수시설 : 대강당 (400명 수용) / 제 1 강의실 (160명 수용) / 회의실 (60명 수용) / 연수실 (30명 수용, 6실) / 제 2 강의실 (160명 수용)

숙박시설 : 제 1, 제 2 연수생 숙소 (8인용-24실, 192명 수용) / 제 3 연수생 숙소 (16인용-10실, 160명 수용) / 교수용 숙소 (6인용-5실, 30명 수용)

관리후생시설 : 사무실 3실 / 자료실 1실 / 행사 준비실 1실 / 식당 (150명 수용, 식당, 주방 및 직원 식당)

체육시설 : 축구장 1면 (잔디, 110m x 65m) 배구장 2면 / 정구장 2면 / 보조 운동장 1면

야영시설 : 천막촌 / 야외집회장 / 야외취사장 / 야외화장실

기타 : 별관 / 관리인숙소 / 직원숙소

규모 : 부지면적-83,249 평 건축면적-2,785 평



부속사업

유네스코의 이념과 새 물결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눈으로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슴에는 조국을 품으며,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대화·협동·탐구·실천의 새청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전개를 해 나갈 것이다.

유네스코청년원은 연수사업 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사업 - 청소년관계문헌 조사연구 (1978 - 1980)
해방 이후 1976년까지의 관계문헌 약 8000건 카드화 완료 / "한국 대학생의 세대의식 조사연구" (1978) - 전국 21개대학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완료, / "한국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조사연구(1983예정) / 청소년환경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을 위한 지도 (Youth Map) 제작 (1979) / 청소년활동지도자 육성 방안 연구 (1981) / 청소년활동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연구 (1982년 예정)
- 출판사업 - 「청년연구지」(연보)발간/각종자료집 및 보고서 발간/청년문고제작보급 (예정)/연수교재 및 독서자료 발간
- 협력사업 - 청소년지도자 협의회 개최 / 청소년단체 연수 지원 (시설 및 지도력 제공) / 관계기관단체의 위탁사업수행
- 유네스코클럽 지도육성사업 -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개최 / 유네스코 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 개최 / 조국순례대행진 개최 / 국제야영봉사활동 실시 / 청소년학생국제교류사업 / 유네스코학생회 순회 지도 / 유네스코 지방협회 육성 및 지원
- 특별프로그램 개발사업 - 국가관·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창조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 국제활동연수 프로그램 / 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 사후지도사업 - 재훈련과정 실시 / 출장지도

전 망

유네스코는 청소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력의 원천으로서 보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청소년들의 사회발전과 평화정책의 동반자로서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청소년연수의 중추적 역할 수행

유네스코청년원은 앞으로 연수인원을 확대하고 연수계층을 다양화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국제활동연수회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국제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장차 이 분야에 훈련된 인원을 공급하여 민간외교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며, 청소년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성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소년관계 연구의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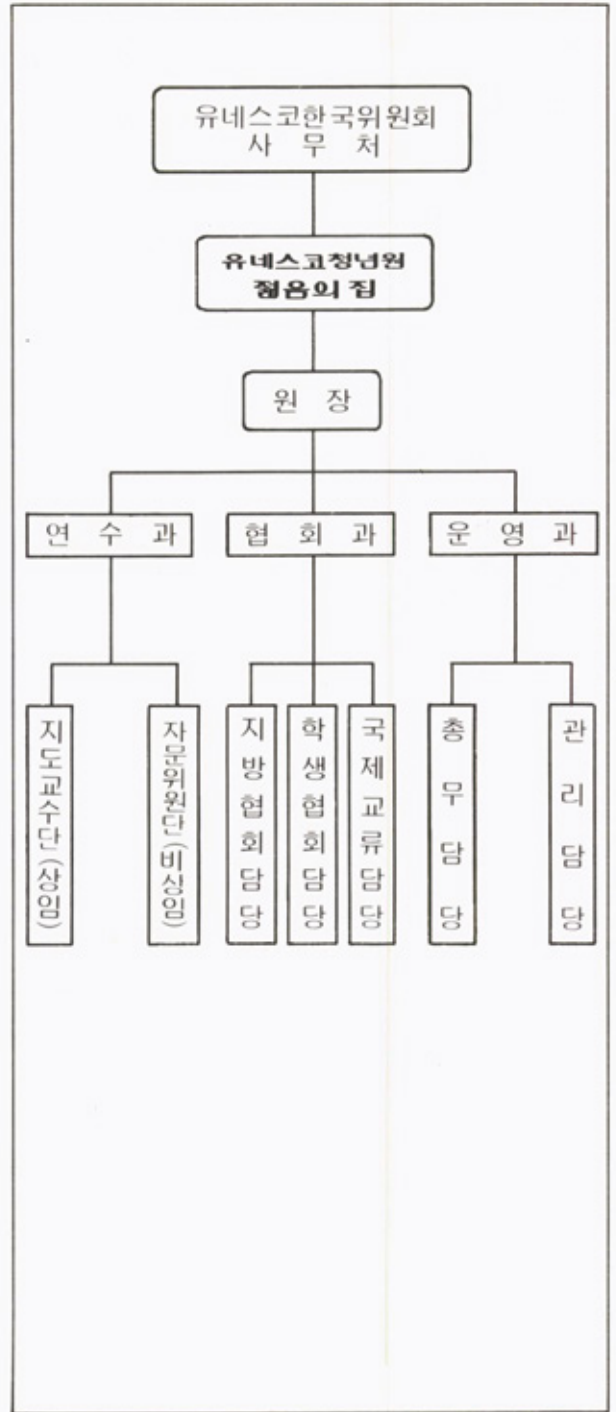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청소년관계 연구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청소년관계 문헌조사를 계속하고, 한국대학생의 세대의식 조사 연구와 청소년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관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청소년관계 연구를 위한 정보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관련청소년단체 (국내, 국외)와의 협력 촉진

국내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연구 토의하며, 나아가 세계 각국의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보다 원활한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폭넓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 구

유네스코청년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의 한 기구로서, 연구와 연수를 전담하는 연수과와 유네스코를 홍보하는 협회과, 그리고 유네스코 청년원의 효과적인 유지와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과로 나누어져 있다.



생활안내

- 연수기간 중에는 되도록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잘 지켜 연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원 내에서는 음주를 금하여 주십시오.
- 모든 활동은 22시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등시간은 23시입니다.
- 연수기간 중에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연수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 연수기간 중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생활하여 주십시오.

- 담배는 재떨이가 준비된 곳에서만 피우시고 공용시설을 청결히 사용해 주십시오.
- 숙소를 깨끗이 사용하고 화재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세탁물의 건조는 침실안이나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완전히 태워주십시오.
- 모든 시설을 사용하신 후에는 사용하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 간단한 구급약품이 행사본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즉시 행사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 매점은 식당안에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필수품과 간식 및 음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점은 식사시간에만 운영됩니다.
- 목욕은 정해진 시간에 각 숙소의 샤워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방송실에서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 드릴 수 있습니다.
- 청년원 주위에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청년원이 보유한 필름을 원하시면 상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각종 체육기구가 행사본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꼭 반납해 주십시오.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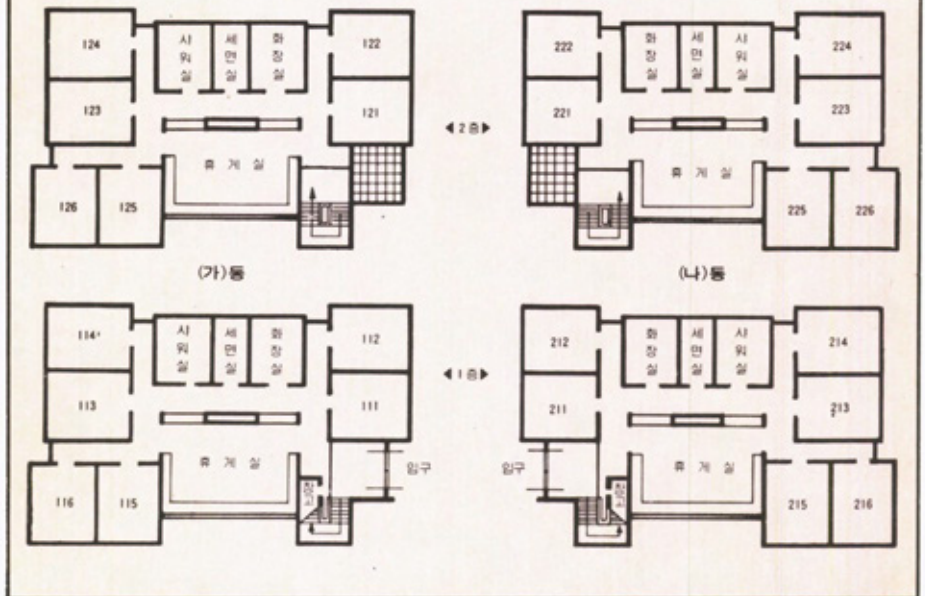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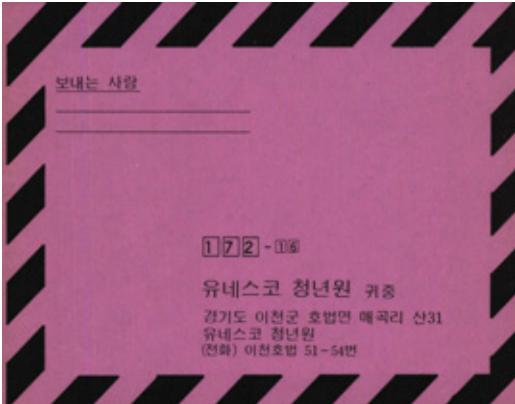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 청년원을 이용하는 단체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원 교수들의 강의
- 실내협동훈련을 비롯한 각종 실습 프로그램
- 야외협동훈련 (오리엔티어링)
- 청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슬라이드, 영화필름 등의 상영.
- 명상의 시간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 연수생 숙소 배치도





유네스코청년원 사용 신청방법

유네스코청년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1. 사용코자 하시는 분은 유네스코청년원 시설 유네스코청년원 청년원 협회과 사무실 또는 이전 소재 청년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용일자에 관한 신청편지를 거쳐 주셔야 합니다.
2. 사용일자가 가능하실 때에는 영지의 사용 신청서와 예산 사용료의 10분의 1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숙식에 관한 사항은 청년원 연수과 교수나 문영과 직원과 협의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4.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청년원 도착 즉시 상세한 연수계획서 제출과 청년원 시설 안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유네스코청년원 사용신청서

행 사 명			
사용일시	198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총 명	(남)	(여)
사용시설			
주요사항			

다음과 같이 귀 청년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신청단체명
 *단체주소 전화
 *단체대표성명 신청인 인

유네스코청년원 시설사용료

(82년도 1월 1일 기준)

단위 단가는 본 청년원내 시설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구 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82년도		
	강의실 (학생) 기본	500	1인당 식음료	
	및숙소	1,000	기본료는 정남에 한함	
	강의실 (일반) 기본	1,000	=	=
	및숙소	2,500	=	=
사 설 명	숙구침	전 권	150,000	방의 크기차 상대할 경우
	관 권	30,000	연수회 표시 상대할 경우	
사 용 료	장구침	1 인	8,000	
	1 인	15,000		
	화 의 실		50,000	
	대 관 실		80,000	
냉방비	화의실		5,000	1시간당 비용
	대관실		15,000	=
	난 방 비		36,500	=
식 비	학 생		1,000	1인당 최저 단가임
	방 만		1,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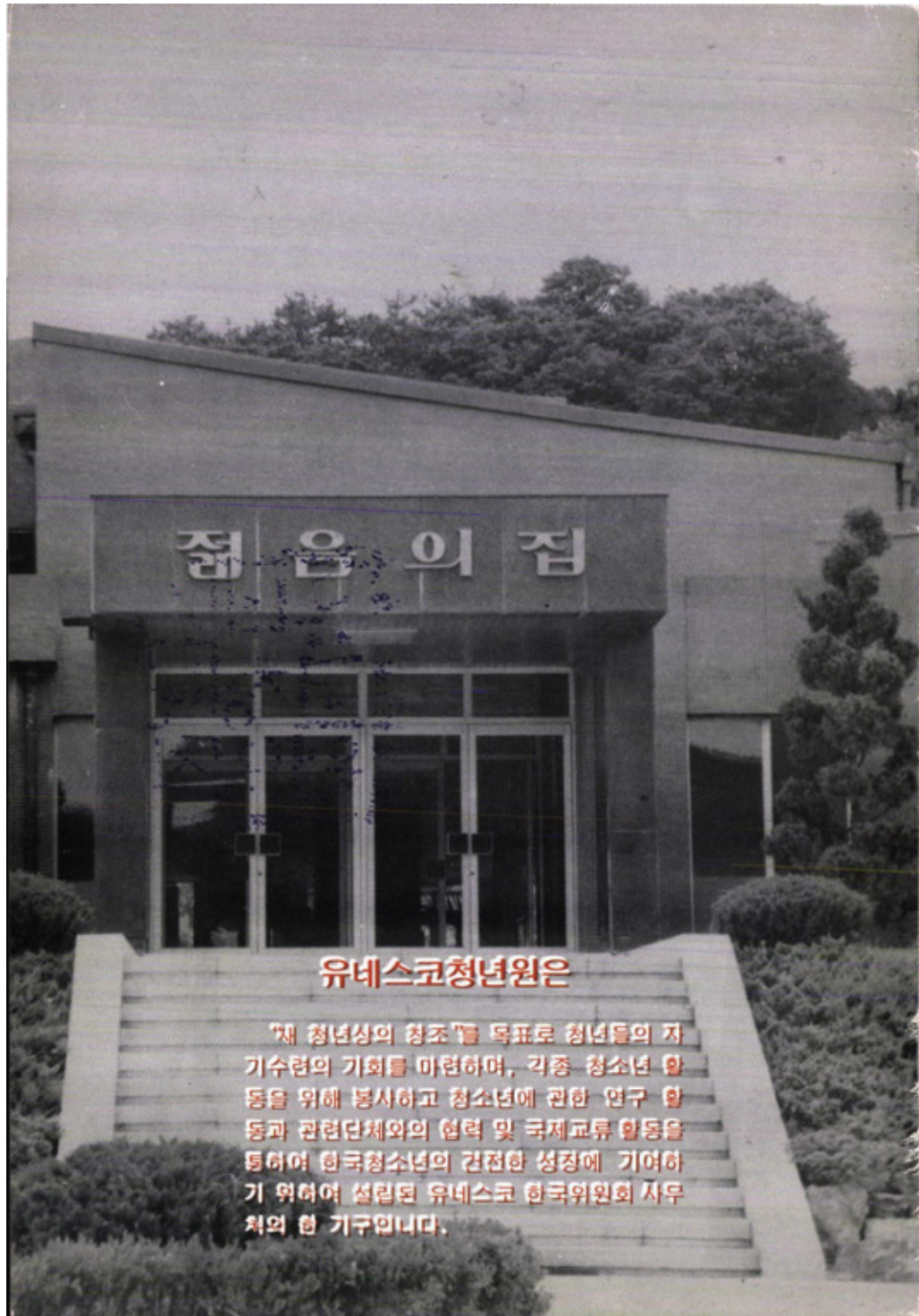


젊음의 집 **유네스코청년원**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매곡리 전화 · 이천호법 51-54
서울 중앙사서함 64호 전화 776. 4402-3

유네스코청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점음의 집

유네스코청년원은

"새 청년상의 창조"를 목표로 청년들의 자기수련의 기회를 마련하며, 각종 청소년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청소년에 관한 연구 활동과 관련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의 한 기구입니다.



1. 설립의 뜻

'젊음의 집'이라 불리워지는 유네스코 청년원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65년부터 한국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여 온 이래 보다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청소년 문제 전문가 회의(1965년)를 개최하고 그 후 교외교육의 시범사업으로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최하여 왔으며, 국제야영 봉사활동, 연합봉사활동, 한·일학생교환계획등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교외활동 지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활동해 온 유네스코 학생협회는 전국 62개 대학(교)에 유네스코 학생회(KUSA)를 갖게 되어 약 8,000여명의 회원을 포용하는 학생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활동 지도의 경험을 통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전인적인 교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기구의 확충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어 1974년 8월 1일에 유네스코 청년원의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2. 주요활동

- 1965. 5 청소년 문제 연구협의회 개최
- 6 제 1회 유네스코 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 개최
- 7 사무국내에 청소년활동 전담부서(운영부)신설
- 제 1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개최
- 10 서울시내 13개 대학(교)에 유네스코 학생회 조직
- 12 한국 청소년 단체협의회 결성
- 1966. 8 제 1회 국제야영봉사활동 개최
- 제 1회 한·일학생교환제회 개최
- 1967. 6 운영부를 청소년부로 개편
- 9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위원회 설치
- 11 제 1년차 새물결운동 전국대회 및 한국유네스코 학생협회 결성
- 12 '보람있는 대학생' 발간
- 1969. 7 전국 대학생연합봉사 개최
- 12 청년문화제 개최
- 1970. 2 '학생문제 연구' 발간
- 11 아시아지역 청소년지도자회의 개최
- 1974. 2 전국 대학신문 기자연수회 개최
- 8 유네스코 청년원 기공
- 제 1회 조국순례 대행진 개최
- 1975. 12 본관 및 숙소 2동, 식당을 완공
- 청소년부를 청년원으로 개편
- 1976. 12 연수관과 대강당을 완공
- 1977. 7 대학생연수과정 개설
- 1978. 4 청소년지도자연수과정 개설
- 9 청소년연수과정 개설
- 1979. 1 '청년연구' 지 창간
- 1980. 1 교수해외연수 실시(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동남아)
- 8 외국청소년 연수 실시(사우디아라비아)
- 1981. 11 청소년활동지도자 육성대책 세미나 개최
- 8 한·일문화 비교 연구 청년야영 개최
- 1982. 11 청소년정책세미나 개최
- 1983. 10 한국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 통합 과정 실시
- 1984. 10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연수 실시

3. 새 청년상의 창조

유네스코 청년원의 모든 활동은 '새 청년상의 창조'를 목표로 아래의 세가지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 자주 개혁적 기상의 청년 탐구하는 청년
주체성 있는 청년
진취성 있는 청년
- 도의를 구현하는 청년 정의를 실현하는 청년
협동하는 청년
질서를 존중하는 청년
- 국가관이 투철한 청년 민족적 긍지를 지닌 청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승공통일하는 청년
- 세계를 바라보는 청년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청년
세계속의 한국을 이해하는 청년
세계로 나아가는 청년

이러한 목표는 젊은이들이 자발적 참여와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 이끌어 낸 다짐 속에서 성취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청년원은 '젊은이와 더불어' 라는 유네스코 청소년 활동의 기본자세를 갖고 젊은이와 함께 새로운 청년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네스코 청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며,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훈련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기 구

유네스코 청년원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한 기구로서 학생활동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협회과**와 연수와 연구를 담당하는 **연수과**, 그리고 유네스코 청년원 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시설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과**가 있습니다.

5. 사 업

연수사업-한국청소년 활동지도자 연수과정(본과정 및 통합과정)

근로 청소년 연수과정

대학생 연수과정

위탁 연수과정

연구사업-청소년 문제연구 / 청소년 연수과정의 개발과 연구 / 지도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연구 / 청소년 관계문헌 조사연구 /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출판사업- '청년연구' 발간 / 청소년활동지도자 연수교재 발간 / 독서자료 발간 / 각종 자료집 및 보고서 발간 / 청소년관계 문헌목록집 발간

협력사업-청소년 단체 연수 지원(시설 및 지도력 제공) / 관계기관단체의 위탁연수 수행 / 청소년 지도자간의 협력체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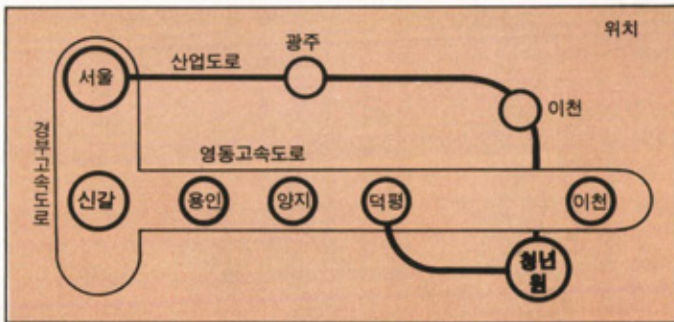
유네스코 클럽지도 육성사업-유네스코 학생활동지도교수 협의회 개최 /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개최 / 조국순례대행진 개최 / 국제청년 야영활동 / 한·일문화비교연구 청년캠프 개최 / 청소년·학생 국제교류 사업 / 유네스코 학생회 순회지도 /

특별프로그램개발사업-국가관,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창조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국제활동 연수프로그램 / 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

사후지도사업-추수 지도과정실시 / 현지 방문지도

6. 시설현황

- 연수시설
- 협동의 집 (400명 수용 대강당)
 - 제 1 강의실 (160명 수용)
 - 제 2 강의실 (100명 수용)
 - 세미나실 (80명 수용)
 - 토의실 (30명 수용, 6실)
- 숙박시설
- 자각의 집, 대화의 집 (8인용, 24실)
 - 창조의 집 (16인용, 10실)
 - 지도자용 숙소 (4인용 3실)
- 체육시설
- 행사진행실 1실
 - 식당 (150명 수용)
 - 사무실 5실 (응접실 2, 원장, 연수과, 운영과, 상황실)
 - 자료실 (청소년정보센터)
 - 경비실
- 관리·식당시설
- 축구장 (잔디 110m × 65m)
 - 배구장 (2면)
 - 정구장 (2면)
 - 농구장 (1면)
 - 보조운동장 (1면)
- 야영시설
- 천막촌 / 야외집회장 / 야외 취사장 / 야외 화장실
- 기타
- 별관 / 관리인숙소 / 교수아파트 2동 / 산책로







7. 전 망

○청소년 연수의 증추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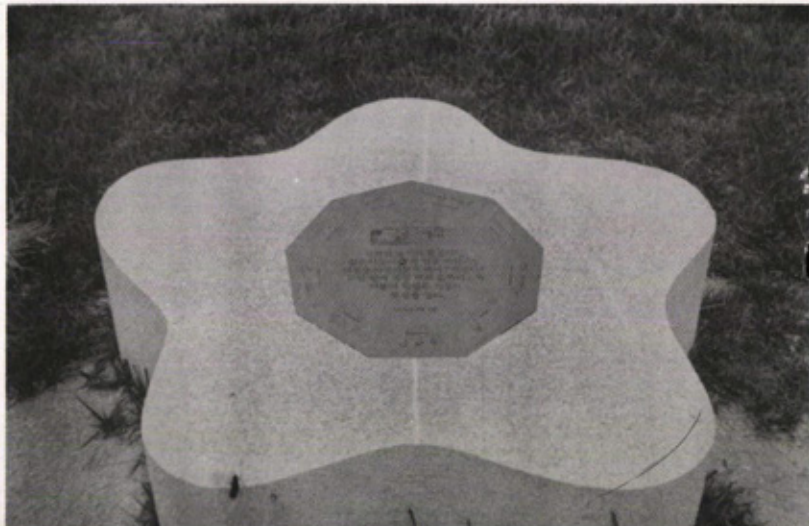
유네스코 청년원은 앞으로 연수인원을 확대하고 연수 계층을 다양화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지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 과정을 강화하여 자격취득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청소년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성 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관계 연구의 발전에 기여

지금까지의 청소년관계 연구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청소년관계 문헌조사를 계속하고, 한국대학생의 세대의식 조사 연구와 청소년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관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청소년관계 연구를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관련 청소년 단체(국내, 국외)와의 협력 촉진

국내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연구 토의하며 나아가 세계 각국의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보다 원활한 정보교환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 1) 청년원 도착직후 이용자 전원은 청년원 이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 2) 청년원의 기상과 소등 및 국기 게양식과 하기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간	기 상	게양식	하기식	소 등
하 계	6월 1일 - 9월 30일	06:00	6:30	6:00	23:00
동 계	10월 1일 - 5월 31일	06:30	6:50	5:00	23:00

- 3) 청년원의 모든 식구와 이용자는 국기에 대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전관 방송으로 알립니다)
- 4) 청년원의 모든 집기, 기재의 사용 및 이동은 관계직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며, 사용후 원래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 5) 청년원의 시설, 기재, 비품의 파손시에는 이를 변상해야 합니다.
- 6) 사용기간중, 청년원 담당책임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어떤 경우에도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 7) 연수책임자의 허락없이 연수기간 중에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 8) 이용자가 사용 신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청년원 생활약속을 어길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숙 소** ㉠ 지급된 침구는 반드시 통일되게 정돈해야 합니다.
- ㉡ 침실에서는 금연입니다. 단, 숙소의 휴게실이나 재떨이가 비치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 ㉢ 숙소 및 주변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기상시와 취침전에 이용자가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숙소에서 소등시간 이후는 불을 켜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 세면 및 샤워실에 비치된 세면대야는 사용후 깨끗하게 비누로 닦아서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실내화는 숙소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반드시 신발장의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㉞ 게시물을 부착할 때에는 테이프를 사용하시고(풀 사용금지) 행사의 종료와 함께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 식 당**
- ㉟ 식사는 프로그램상에 명시된 시간에만 배식하며 각자가 자기의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 ㊱ 스스로 양을 조절하여 배식받아서 남기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국그릇에 모아서 정해진 곳에 버리기 바랍니다.
 - ㊲ 식사시에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식탁을 깨끗이 하시고 식사후에는 의자를 반드시 제자리에 넣어 주십시오.
 - ㊳ 식수대에서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쓴컵 안손 입을 구별하여 놓아 주셔야 합니다.
 - ㊴ 식당안에서도 금연입니다.

- 식 수**
- ㉟ 청년원내의 수도물은 식수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㊱ 각 숙소의 음료대에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세 탁**
- ㉟ 세탁은 세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㊱ 세탁물의 건조는 침실안이나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쓰레기**
- ㉟ 화장실에 준비된 화장지는 변기에 바로 넣습니다.
 - ㊱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 두었다 “자각의 집” 뒤편에 있는 소각장에서 완전히 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 ㊲ 소각할 수 없는 물건들은 따로 모아 주십시오.

- 안 전**
- ㉟ 화재예방에 유의하시고 청년원에 비치된 소화기, 소화전들의 위치를 확인, 비상시에는 정확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㊱ 여름철에는 방충,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하여 숙소의 창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 료**
- ㉟ 간단한 구급약은 운영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㊱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즉시 행사담당자나 일·숙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

㉔ 특이체질을 가지신 분은 미리 행사본부나 청년원의 운영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㉕ 매점은 식당안에 있으며, 간단한 생활용품, 우표, 간식, 음료수 및 기념품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㉖ 매점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입니다.

우편화 ㉗ 원칙적으로 연수받으시는 분은 전화이용을 허락치 않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전화는 행사진행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㉘ 우표는 매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매점 앞 우체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1일 1회(매일 12: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 집됩니다.

3.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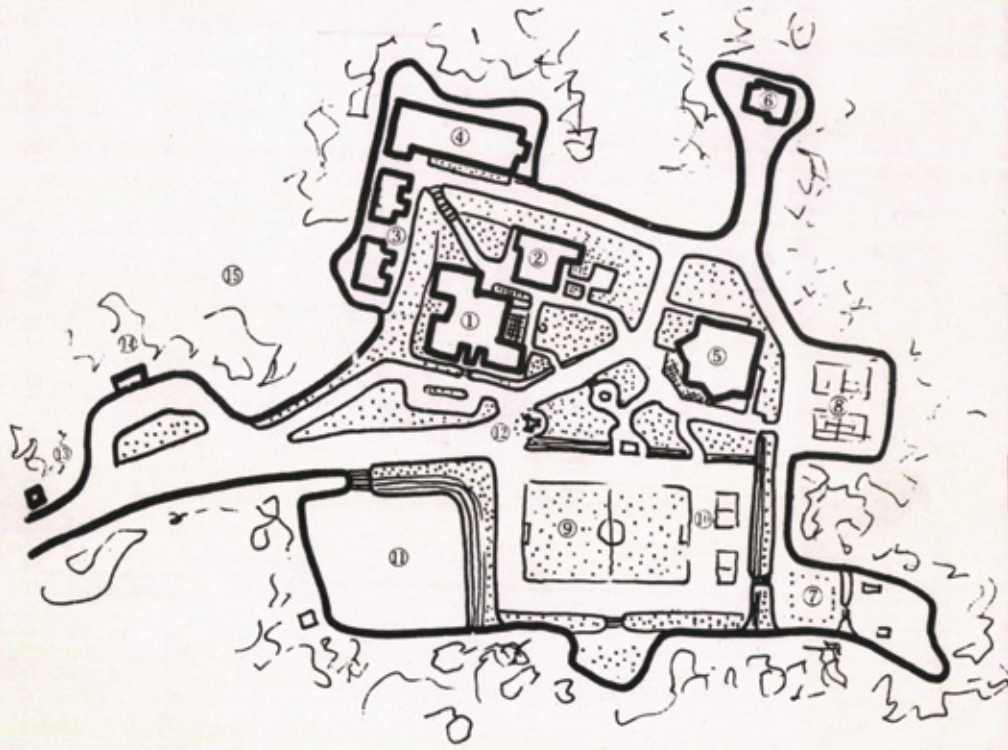
- 1) 청년원 주위에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 각종 운동기구가 운영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 후 이용하시고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3) 개인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간수해야 하며, 청년원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청년원을 이용하는 단체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청년원 교수들의 강의
- 2) 각종 실습 프로그램
- 3) 야외 협동훈련(오리엔티어링)
- 4) 청년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청각 기자재 및 교재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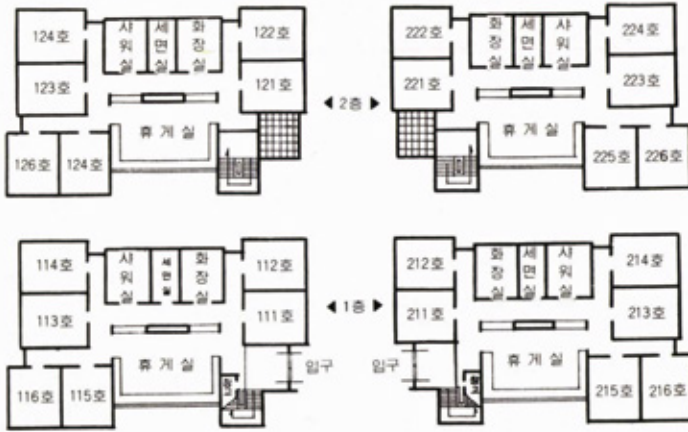
유네스코청년원 시설배치도



- | | |
|-------------------------|----------------|
| ① 본관 - 강의실/세미나실/사무실/자료실 | ⑧ 정구장 |
| ② 식당 - 연수생식당/직원식당/매점 | ⑨ 축구장 |
| ③ 숙소 - 자각의 집/대화의 집 | ⑩ 배구장 |
| ④ 창조의 집 - 토의실/숙소/교수연구실 | ⑪ 야외집회장 |
| ⑤ 협동의 집/제 2 강의실 / 대강당 | ⑫ 기념탑 |
| ⑥ 별 관 | ⑬ 수위실 |
| ⑦ 제 1 야영장 | ⑭ 주차장 |
| | ⑮ 제 2 야영장 (예정) |

숙소 배치도

자각의집, 대화의집 (8인용)



창조의 집 (16인용)



이용방법

"실용의 법" 유네스코 청년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유네스코 청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용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간의 확인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유네스코 청년원 운영과(이천호명 51번)에 전화 또는 직영방문을 통해 사용일자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용가능한 경우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과 속도에 관한 사항은 청년원 연수과나 운영과 직원과 협의하여 주십시오.
4. 청년원에 도착하면 상세한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년원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유네스코 청년원 시설 사용료

(85년도 4월 1일 기준)

단, 아래의 사용료는 본 청년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일	명	정	사	용	료	단	위	비	고	
시	일	당	회	본	관	15,000	30,000	1	일	24시간 초과시 50%가산			
				당	당	10,000	20,000						
		대	당	회	회	25,000	50,000	-	-				
				당	당	40,000	80,000	-	-				
				장	장	2,500	5,000	1	일	1일			
				속	구	15,000	30,000	1	회	50인 초과마다 50,000원 가산			
정	구	당	장	15,000	15,000	1	일	50인 초과면 1명이면 8,000원					
			장	500	500	1	일	24시간 초과시 50%가산					
								최고 1회당 2,000원					
날	당	회	회	회	1,200	1,500	1	회	회	일당 2,500원			
			회	회	30,500	36,500	1	시간	휴가연동제 따라 조정				
날	당	회	회	회	15,000	15,000	-	-	원거로 연동제 따라 조정				
			회	회	7,000	7,000	-	-					
지	정	당	회	회	회	6,000	6,000	-	-				
				회	회	6,000	6,000	-	-				
지정당기제													

유네스코청년원 사용신청서

단	계				
명	사		명		
대	표				
연	락				
사	용				
도	확		일		
사	용				
식	사		회		
기	타				
귀하 같이 유네스코 청년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198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유네스코 청년원장 귀하					

유네스코청년원에 알리고 싶은 말씀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OREA UNESCO
YOUTH CENTER
연도미상



***KOREA
UNESCO
YOUTH
CENTRE***

A New Image for Youth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젊음의 집
유네스코 청년원
1997



젊음의 집
유네스코청년원
KOREA UNESCO YOUTH CENTRE





젊음의 집 유네스코 청년원
연도미상




젊음의 집 유네스코 청년원
1993



**유네스코
평화센터**
Korea UNESCO Peace Center

“
유네스코평화센터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는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따라
나로부터 세계로 이어지는 평화·문화의 형성을
지향하는 **종합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 vertical poster for the UNESCO Peace Center. The background is a green field with a white U-shaped frame. Inside the U, there is a globe. Text is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and a small icon of a building.

유네스코 평화센터

KOREA UNESCO
PEACE CENTER

유네스코평화센터는 인간과 마음
속에 평화를 심는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따라 나로부터 세계로 이어
지는 평화 문화의 형성을 지향하는
종합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유네스코 평화센터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대곡리 868-1
Tel. 031.638.9051 / Fax. 031.638.9607 <http://upc.unesco.or.kr>

(5) 사진으로 본 청년원

청년원,
직원들의 휴식처



사무처 훈계 체육대회
(1985.5.4 잔디축구장)





사무처 직원토론회(1994.6.24-25 젊음의 집)



사무처 직원토론회(1994.6.24 식당)



사무처 춘계 체육대회(2010.4.23 잔디축구장)



사무처 식목행사(2010.4.23)



사무처 직원 연찬회(2014.5.29 젊음의 집)



사무처 춘계 행사(2015.5.13 젊음의 집 탁구대)













② 정문안내소





㉓ 새 청년상의 창조 기념탑







준공 당시 유네스코 청년원 전경
(왼쪽 젊음의 집)

















청년원 원장실





제1강의실



제2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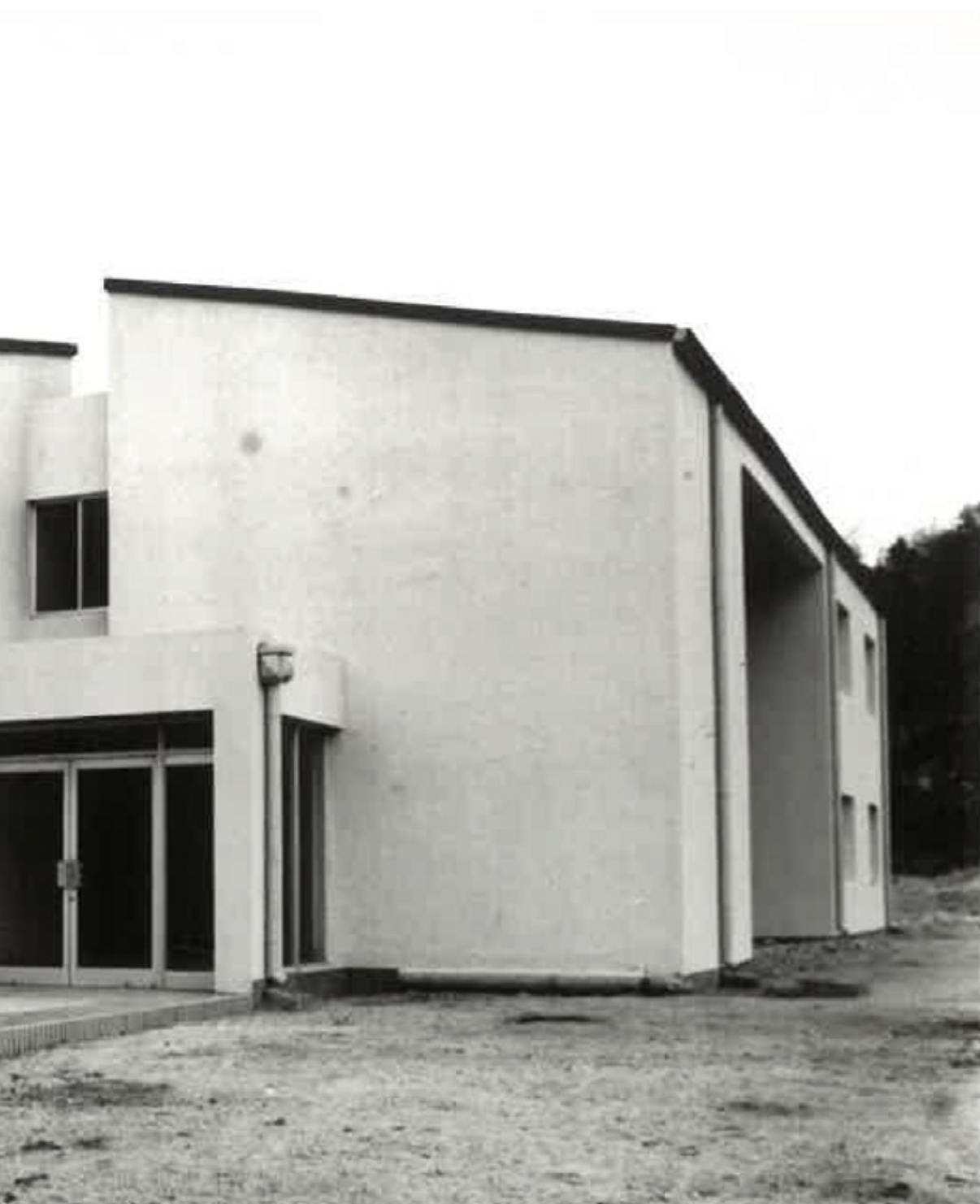






























③ **별관**









◎ 정원







㉔ 귀빈숙소(이천영어마을 원어민교사 숙소)













㉔ 이천 영어마을(상생관)



㉔ 잔디 축구장











⑩ 캠프장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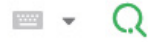
유네스코 평화센터 네이버 지도 이미지
2024년 4월 16일



유네스코 평화센터 위성 사진

인터넷 검색 이미지

N 유네스코평화센터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유네스코평화센터 수련원,연수원

방문자리뷰 2 · 블로그리뷰 18

↑
길찾기

📍
거리뷰

☆
저장

📁
공유

📍 경기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470번길 167 ∨ 지도

☎ 031-638-9051

🌐 <http://upc.unesco.or.kr/>

🚗 예약, 주차

유네스코평화센터 더보기 →

유네스코 평화센터 네이버 검색 이미지
2024년 4월 16일

(6) 유네스코 청년원

관계 자료목록

① 단행본/보고서/자료집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제2차 유네스코아세아청년연구소회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4
보람있는 대학생활 : 학생활동의 방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7
제2회 한국 유네스코 학생 방일단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67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2
제9회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 한국 대학생의 현실문제와 지도 방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제13회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 참고자료: 새로운 학생활동지도와 KUSA의 발전방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제14회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 참고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제5회 조국순례대행진, 보고서: 젊음. 조국. 내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유네스코 학생회 요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청년연구 제1집 - 제17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1994
새 청년상의 창조: 대학생 연수과정 참고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제23기 유네스코 학생 지도자 교육과정, 보고서: 대화. 협동. 탐구. 실천하는 새 대학생상(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보람있는 대학생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젊음의 집 유네스코 청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9
청소년 활동연구 (1)	유네스코 청년원	1980
제24기, 25기 유네스코 학생 지도자 교육과정 참고자료 "눈으로는 세계를, 가슴에는 조국을"	유네스코 청년원	1980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만남·삶·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0
새물결 운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0
청년·역사·세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81 연수교재) 써어클의 관리, 운영과 활동 지침	유네스코 청년원	1981
('81 연수교재) 써어클 활동을 위한 일반이론	유네스코 청년원	1981
('81 연수교재) 써어클 활동을 위한 자료집	유네스코 청년원	1981
('81 연수교재) 써어클 활동을 위한 자료집	유네스코 청년원	1981
('81 연수교재) 프로그램 작성 및 평가기법	유네스코 청년원	1981
1981년도 사우디 아라비아 청소년 방한 연수단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위하여: 1982 유네스코 교실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2
Korea UNESCO Youth Cente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3
청소년관계 문헌목록집 (1945-198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85 하계 학교 안내 = Summer School Guid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1985년도 재외교포학생 하계학교 보고서	유네스코 청년원	1985
1985년도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위원회, 참고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1985년도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연수 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1985 유네스코 청년원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5
(1986년도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 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6
86 하계학교 : 1986년 여름, 나와 조국과의 만남 = Summer school for overseas Korean students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6
(1987년도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 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7
유네스코 청년원 기숙사 증축설계 설명서	유일종합건축사사무소	1987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7
2000년대의 대변혁 - 과학기술과 사회	유네스코 청년원	1989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한 한국청년의 역할: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활동의 방향모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9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Korea Youth Volunteer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9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9
The Plan of Korea Youth Volunteer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남남협력의 배경과 현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구급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네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스리랑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인도네시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태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필리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보건위생: 말라리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보건위생: 식품위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보고서 작성요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자기진단검사 (I- IV)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전이기술(Transferable skills)의 이론과 실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태평양 열도의 인간과 문화: 파푸아뉴기니, 피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한국청년해외봉사단 단원을 위한 활동지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단원에 대한 대우 규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There is no path. Paths are made by walkin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훈련용 교재) Workbook for essential vocabular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청소년 범죄와 소년선도 현황 및 대책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국제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유네스코 청소년활동 (1992-93)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청소년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참고자료: 리더십에 관한 상황론적 연구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청소년 범죄와 소년선도 현황 및 대책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I. 토의의 실습을 위한 자료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개인 상담 실습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레크리에이션 II (야외 활동)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만남의 시간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지역사회조사 실습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인간관계훈련의 이론과 실제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실내 Recreation (미니올림픽)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야외 활동 (청소년과 캠프)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조사방법론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집단토론을 통한 문제해결기법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Leadership 이론과 실제 (I)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Leadership 이론과 실제 (II)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Leadership 이론과 실제 (III)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회의실습을 위한 자료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자기주장훈련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Communication Game의 개발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청소년 지도를 위한 성취동기 이론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예술과 인간을 위한 서론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개인 및 집단상담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상황놀이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O. L	유네스코 청년원	1980-90년대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과정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한국 청소년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0
1992 국제 청소년 광장 사전 세미나 자료집	유네스코 청년원	1992
Youth and Change: A report of the 1992 International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2
1993 국제 청소년 광장 사전 세미나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유네스코와 학생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4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과정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4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 추수과정) 지방화시대와 청소년문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Report of 31st International Youth Camp) Youth : toward a new encount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6
유네스코 자원활동캠프 : Stop whispering, start shoutin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과정교재) 청소년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Second Regional Collective Consultation of Youth-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UNESCO	1996
Youth Toward A New Encount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6
(제29기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 제4과정) 세미나 발표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Report) '97 Arirang Youth Camp : Culture of Peace : Together in Arira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7
(Final Report) Regional Workshop on the Development of an INFOYOUTH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7
자료로 본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1) 아태지역 청소년정책 비교연구 (I)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2) 청소년 집단활동 프로그램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3) Finland의 청소년 정책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4) 국제자원활동을 위한 훈련의 이론과 실제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5) 아태지역 청소년정책 비교연구 (II)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6) 세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7)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8)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UN의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9) 뉴질랜드 청소년정책과 현황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10) 네델란드의 청소년정책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11) 청소년 관련 지표연구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12) 새로운 천년을 향한 세계 청소년 동향	유네스코 청년원	1998
세계청소년 정보망 (Infoyouth)사업 (1995-1998) : 중간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Report of the 33rd International Youth Camp : Right to act, right to hop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8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WCMRY	1998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19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98 Arirang Youth Camp 예비 캠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Series No,1) Internet Atlas on Youth: Volunteerism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Series No. 9) Internet Atlas on Youth: Youth Council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자료로 본) 유네스코 청년원 20년사, 1977~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Final Report) Regional Training Workshop for National Focal Point Staff of the INFOYOUTH Network in Asia and the Pacific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99 Arirang Youth Camp :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99 Arirang Youth Camp : 예비 캠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19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Reference Book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국제자원활동 사업보고서 : 함께 하는 미래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국제자원활동 :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Report of the 5th Arirang Youth Camp Let's Share Our Difference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1
Training workshop for International Youth Voluntary Service in Asia and the Pacific :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1
The 36th IYC (International Youth Camp) 예비캠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1
2002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37차) 국제청년야영 캠프리더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제3기 유네스코 대학생 협력동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제4기 유네스코 대학생 협력동아리 1차 훈련웍샵 자료집 : 청년 대학 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제6회 아리랑청소년캠프 예비캠프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The 6th Arirang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2
(38차) 국제청년야영 캠프리더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2003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국제자원활동 지도자 훈련웍샵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The 38th International Youth Camp: Youth in Ac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The 38th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Draft Program) The First UNESCO Australia-Kore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3
2004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21c형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장 Selfguide Book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39th International Youth Camp: Steps Toward a Sustainable Future :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4
제2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2005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2005 국제자원활동 훈련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REPORT of the 40th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5
The 40th International Youth Camp: BE THE ONE TO CHANGE, 자료집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5
The 41st International Youth Camp, Pre-Camp Workbook(제41차 국제청년캠프 - 한국 참가자 예비캠프 자료집)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5
새물결운동 10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	유네스코학생회(KUSA)	2005
제3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자료집) The 41st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6
(제1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 국제개발과 청년의 참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2006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 참여 정책 :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International Consultation Meeting on the Proposal for the 2nd 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and the 5th World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6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2006 BroSis Project-seou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The 4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 UNESCO Culture Centre	2006
제4회 유네스코 지구촌 영어교사 연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제2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 한국 청년의 국제자원활동 성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제3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 한국 청년의 세계시민의식과 실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지역포럼 자료집)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세계화·다문화시대 함께 살아가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최종보고서) 한국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2007 “세계화·다문화시대 함께 살아가기(= Living Together in a Global and Multicultural Er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2007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5th UNESCO Youth Forum) 제5차 유네스코 청소년 포럼, 참가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2007 국제자원활동 훈련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Change : Pictorial report the 42nd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Dialogue : Pictorial report of the 1st UNESCO Asian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Participation :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The 42nd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The 42nd IYC 예비캠프 자료집 The 42nd International Youth Camp "Pre-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7
5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2007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5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이천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 기본계획(안) : 이천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간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
이천 영어마을 실시설계 (지구촌 평화마을) (교육관) - 건축/구조 -	예원건축사무소	2007
REPORT of the 43rd International Youth Cam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제4차 유네스코 청년 포럼) 지속 가능한 아시아의 청년(= Sustainable Asia & the Role of Youth)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Report) 2nd UNESCO Asian Youth Forum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2008 국제자원활동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43rd International Youth Camp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국제청년캠프(ICY) 평가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6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8
6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이천영어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최종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자료집) 제44차 청년지역행동: The 44th Youth in Community Ac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2009 국제자원활동 : 에세이 모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2009 국제회의의 청소년 파견사업: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 보고서	미지센터	2009
2009년, 일곱 청년 이야기 : 제7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2009년, 일곱 청년 이야기 : 제7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에세이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3rd UNESCO Asian Youth Forum :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유네스코 청년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칭)UNESCO Corps 타당성 연구 결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제44차 청년지역행동 활동보고회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 참가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KIA Global Workcamp 2009 기아글로벌워크캠프 에세이 모음집	기아자동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Pictorial Report of the 3rd UNESCO Asian Youth Forum do-er 사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The 44th Youth in Community Action : Vision, Value, and Ac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7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9
(국제자원활동 매뉴얼)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2010 유네스코 국제자원활동 Essa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4th UNESCO Asian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제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레알?? : 유네스코 청년포럼 대전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KIA Global Workcamp 2010 기아글로벌워크캠프 에세이 모음집	기아자동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The 45th Youth in Community Action : Youth working for Sustainable Communitie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2010 DMZ FILM CAMP & 2nd DMZ DOCS FESTIVAL : Fina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공연영상위원회	2010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제45차 청년지역행동: Traditional Market over Super Marke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제6회 청소년자원봉사포럼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변화 "자원활동과 국제협력"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순천향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2010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2차 회의) 참가자용 자료집(2) 각국 입장표명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3차 회의) 참가자용 자료집(2) 각국 입장표명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8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 UNESCO Peace Center	2010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2차 회의) 참가자용 자료집(1) 학습자료	유네스코평화센터	2010
8th Korean-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 2011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5th UNESCO Asian Youth Forum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1
2011 유네스코 국제자원활동 Essa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2nd International DMZ Film Cam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2nd International DMZ Film Camp : Fina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공연영상위원회	2011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 종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4차 회의) : 참가자용 자료집(1) 학습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4차 회의) : 참가자용 자료집(2) 각국 입장표명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2011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제5차 회의) : 참가자용 자료집(1) 학습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이천영어마을 2011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초청 간담회	이천시청, 이천영어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9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Korea UNESCO Peace Center	2011
EXPO 2012 Yeosu Korea UNESCO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2012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World Heritage Volunteer Progra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2010 유엔 세계 청소년 보고서 : 청소년과 기후변화 (한국어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2012 International Workcamp - KNCU Final Report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감천 2012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Busa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유네스코 Workcamp, 상상 그 이상의 2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Workcamp in Jeju Island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2012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참가자 자료집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2012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종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10th Korea-Australia English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 Final Rep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12
2012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참가자 자료집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2012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총회 종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2013 유네스코 블런티어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2013 UNESCO 국제워크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2013 KNCU International Youth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2014년 최종보고서 :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세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2014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해외자원활동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2015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제4기 활동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Final Report 2016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KNCU International Workcam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6년도 제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발대식 및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유네스코학생회 (KUSA) 비전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6 유네스코워크숍 참고자료-유네스코 클럽 활동 안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6 모의 유네스코총회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7 유네스코학생회 활동 길라잡이: 행동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만드는 열린 KUS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2017 유네스코학생회(KUSA)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청소년 2030: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세계청소년보고서: 청소년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세계청소년보고서(요약문): 청소년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2014~2021 UNESCO 청소년 운영전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UN YOUTH 2030 전략과 한국 청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청년이 생각하는 2030의 세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② 기록물철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
(참고자료) 한일문화 비교 청년캠프	유네스코 청년원	1966-1992
(참고자료) 한일문화 비교 청년캠프	유네스코 청년원	1966-1993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유네스코 청년원	1967-1976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유네스코 청년원	1974-1984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유네스코 청년원	1985-1993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신문)	유네스코 청년원	1969-1978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신문)	유네스코 청년원	1979-1990
(참고자료) 새물결 운동 전국대회	유네스코 청년원	1967-1991
(참고자료) 새물결 운동학교, 체육대회	유네스코 청년원	1971-1992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회 회장단 연수회	유네스코 청년원	1968-1977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회 회장단 연수회	유네스코 청년원	1978-1990
(참고자료)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협의회	유네스코 청년원	1967-1982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67-1985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76-1980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78-1990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81-1983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84-1990
(참고자료)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청년원	1986-1994
(참고자료) 조국순례대행진	유네스코 청년원	1974-1987
(참고자료) 조국순례대행진	유네스코 청년원	1978-1990
(참고자료) 조국순례대행진	유네스코 청년원	1982-1993
(참고자료) 조국순례대행진	유네스코 청년원	1989-1993
(참고자료) 한-사우디 청소년 교환 교류사업	유네스코 청년원	1981-1990
(참고자료) 국제청소년광장	유네스코 청년원	1992-199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 캠페인

함께 만드는 미래

TOGETHER



① 함께, 인류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듭니다.

- **전문가 양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래 변화를 준비합니다.
- **해법 제시:**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미래 방향을 제시합니다.
- **지식 확산:**
문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② 함께,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 **교육 기회 확대:**
교육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 이웃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미래세대 교육 지원:**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교육 방향 제시:**
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③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미래세대 대화:**
청년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 역량을 함양합니다.
- **교사 및 학생 국제교류:**
국가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합니다.
- **유네스코 유산 활용:**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여 평화를
촉진합니다.



유네스코 청년원을 기억하며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ybk@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편집 및 교열 김용범, 장지원
디자인 박장호
인쇄 신세계기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4
ISBN 979-11-90615-6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은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791190 615631
ISBN 979-11-90615-63-1